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공통국어2

강호영 외

1. 시야를 넓히는 말과 글

01 인공 지능을 보는 다양한 관점

문제 확인

본책 010~017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6 ④ 07 ④ 08 ④
09 경영하는 능력, 배울 동기 10 ①

01 이 자료에서는 인공 지능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 또한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설문 조사나 연구 조사 결과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02 두 번째 장면에서는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사람과 같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이라고 인공 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두 번째 장면에서 ‘존 매카시’는 인공 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든 인물이라고 하였다.

② 첫 번째 장면에서 인공 지능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특정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세 번째와 네 번째 장면에서 인공 지능은 미리 입력된 명령문이 없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④ 다섯 번째 장면에서 인공 지능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처럼 감정을 인식하고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03 ‘머신 러닝’은 기계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딥 러닝’은 사람의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04 제시된 선지는 인공 지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의 예이다. 이때 ④ 개인 정보 해킹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공 지능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근거가 된다. 나머지는 인공 지능에 대한 긍정적 혹은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05 이 소설에서 ‘그것’은 ‘나’를 대체하는 로봇 도우미로, 가사도 육아도 회사 업무도 ‘나’와 다르게 완벽하게 처리해 낸다. 이로 인해 ‘나’는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개인적·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위협받게 되자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

06 ‘그것’은 L 그룹의 프로젝트를 따 올 정도로 회의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고, 홈페이지 역시 수준급의 솜씨로 제작해 낸다. 그

러나 어쩔 수 없이 수정을 직접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것’의 아이디어도 살리지 못하고 ‘그것’보다 실력도 떨어진다 는 것을 깨닫게 된다.

07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하니 예전에는 생기 있는 후배 ‘구’와 활기차고 능력도 뛰어난 ‘홍’을 힘담하며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 ‘나’를 멀리 한다. ‘나’ 역시 그들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지, ‘나’가 아니기에 ‘나’는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08 필자는 인공 지능에게 주도권과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면 사유하고 성찰하며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9 ‘본론-(가)’에서 인공 지능 전문가인 ‘스튜어트 러셀’ 교수가 소설에서 얻은 교훈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교훈을 바탕으로 ‘러셀’은 더 중대한 교훈은 기계에 의존하는 대가로 자율성을 잃을 수 있다며 자율성을 지키는 일의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10 ‘결론’ 부분에서 필자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여 성찰의 힘을 키워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꼭 짚어 봐야 할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018~023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① 05 ④ 06 ⑤ 07 ④ 08 ①
09 ⑤ 10 ⑤ 11 ④ 12 ⑤ 13 ② 14 ③ 15 지혜를 추구하는 주체적인 삶이다. 16 ③

01 (나)에서 인공 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든 ‘존 매카시’의 인공 지능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였으나, 이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의 첫 문장에서 질문을 제시하여 수용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② (다), (라)에서 ‘머신 러닝’, ‘딥 러닝’ 등의 자막을 활용하여 각 문단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인공 지능’, ‘머신 러닝’, ‘딥 러닝’ 등의 기술에 대한 개념을 밝혀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④ 모든 이미지들이 시각 자료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02 이 자료의 중심 화제는 ‘인공 지능’으로 (가)에서는 인공 지능이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나)에서는 인공 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다)와 (라)에서는 인공 지능의 핵심 기술

인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을 설명하고 있고, (마)에서는 인공 지능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의 중심 화제는 ‘인공 지능의 핵심 기술과 발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03 (라)에서 ‘딥 러닝’은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로 단순히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학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04 인공 지능을 이용해 가상 인물을 만들어 위장으로 취업했다는 것에서 인공 지능이 불법적인 일에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공 지능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나머지는 인공 지능을 실생활에서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05 이 소설은 주인공인 ‘나’를 대신하여 인공 지능 로봇 도우미인 ‘그것’이 가정과 회사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 주게 되면서 ‘나’가 겪게 되는 심경의 변화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소설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것에서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적인 측면에 가깝다.

② 이 소설은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해 나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이다.

③ 주인공인 ‘나’는 인원 감축이라는 실직의 위기에 처했으나, ‘그것’의 완벽한 일 처리로 오히려 기사화되고 있다.

⑤ 절박한 타이밍에 ‘그것’이라는 로봇 도우미의 투입으로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인생의 타이밍이 잘 맞는 기회가 오기 힘들다는 교훈은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06 ‘평소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면 좋잖아’라는 ‘홍’의 말에서 ‘나’가 평소에는 아이디어를 내는 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가 못하면 잘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나 ‘나’와는 달리 ‘그것’이 실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나’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전남편’이라는 표현에서 ‘나’가 이혼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아이’가 있다는 것에서 혼자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꿈에서 전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기는 꿈을 꿀 정도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③, ④ ‘나’는 자기 대신 로봇인 ‘그것’을 출근하게 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들킨다거나 혹은 ‘그것’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07 ‘나’가 ㉠ ‘트윈 사이보그’를 신청한 이유는 ‘홈페이지의 리뉴얼 작업 결과에 따라 팀이 통합될 때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상

황’으로 인해 꼭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자신 대신에 ㉡을 회의에 보내기 위해 ㉢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08 (가)에서 ‘그것’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분신’이라고 말한 것은 ‘나’가 아니라 로봇 도우미 업체의 담당자이다.

| 오답 풀이 | ② “‘그것’이 홍의 신임을 얻어 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에서 상사의 신임을 얻은 ‘그것’에 놀라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는 메인 페이지를 따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안도했다.’에서 ‘그것’이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라 ‘그것’이 일하는 한 내가 잘릴 염려는 없어 보였다.’에서 ‘그것’의 능력을 인정하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그것’이 회사 일을 온전히 맡기로 하자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는데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했다.’라는 부분에서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09 (가)의 ‘그것’은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업무 능력을 보인다. (나)의 ‘기계’는 인간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등 인간의 필요를 충족해 준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인간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범용 인공 지능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다.

10 (가)는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인공 지능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보기>는 인공 지능 때문에 인간의 노동 방식이 바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면 인공 지능 기술이 노동 환경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본 ⑤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나’의 가사, 육아, 회사 업무를 대체하는 로봇 도우미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므로 ‘나’가 기계와 불화한다고 볼 수 없다. <보기>도 인간 노동과 기계 노동의 공존에 대해 논하고 있다.

② (가)의 인공 지능 로봇인 ‘그것’은 가사와 같은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디자인 페이지를 구축해 내는 창조적인 영역의 노동까지 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인공 지능 로봇이 완벽하게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인공 지능은 제한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④ (가)에서는 협업이 아니라 인공 지능 로봇이 아예 인간인 ‘나’ 대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나’의 정체성마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1 (가)는 인공 지능 로봇을 소재로 현대인이 처한 삶을 그린 소설이고, (나)는 인공 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인간의 모

습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인공 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읽기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 12 (가)에서 ‘그것’과 ‘나’가 교대하지 못한 이유는 ‘홍’이 결과물을 당장 수정하기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것’과 ‘나’가 교대할 시간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인공 지능 로봇인 ‘그것’에게 도움을 받으며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으나 인공 지능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것’에게 온전히 일을 맡겼을 정도로 기계를 불신하고 있지도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가)는 인공 지능 로봇인 ‘그것’이 가사, 육아, 회사 업무 등을 완벽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에 대해 그려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가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인공 지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영화나 소설에서는 인공 지능에 의한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양극단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가)에 그려진 인공 지능으로 인해 ‘나’가 혼란스러워하는 부정적인 면모와 반대되는 유토피아 관점의 영화나 소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④ <보기>에서 인공 지능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가)를 보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것’이 야기할 문제를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

- 13 (나)에서는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지적하고, 사유하고 성찰하는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14 (나)에서 필자는 우리가 스스로 사유하는 일을 멈추고 기계에 결정권을 넘긴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였다.

- 15 **새술형**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는 지성에 걸맞은 삶이 최선이자 가장 즐거운 삶이다.”라고 말했다. 인간만의 특권인 지혜를 추구하는 주체적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의 방식이라고 본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에서 찾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 16 ㉠에서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실행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으나 ‘나’가 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도감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나’의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1 ② 02 ④ 03 인공 지능 시대에 인간은 자율성을 잃지 않고, 사유하고 성찰하는 힘을 키워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04 ④ 05 ⑤

- 01 주제 통합적 읽기를 수행할 때는 읽기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여러 글이나 자료를 비교 분석한 후 읽은 내용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고, 정보 간에 상충되는 점이나 모순되는 점을 확인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화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해야 한다. 한편 독자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재구성하는 것은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 활동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 02 (다)는 인공 지능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며 사유와 성찰하는 능력을 지녀야 함을 주장하는 논설문이다. 건의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의견을 제안하는 글을 말하는 것으로 (다)를 비교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03 **새술형** (다)에서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여 인공 지능 시대에 갖춰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바람직한 자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다.	☐
‘자율성’, ‘성찰’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 04 [A]의 ‘홍’의 말에서는 수정한 내용이 수정 전보다 별로라는 ‘나’에 대한 질책이, [B]의 ‘구’의 말에서는 그간 ‘홍’의 신임을 받던 ‘나’에 대한 빈정거림이 나타난다.

- 05 ㉠에는 인공 지능 로봇인 ‘그것’을 사용한 후 동료와의 관계가 와해되며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① ㉠은 ‘나’가 ‘그것’의 업무 능력과 동일하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일 마무리해 달라는 ‘홍’의 말이 ‘그것’과 교대하여 업무를 진행하라는 말로 ‘나’에게 들렸다는 것이다.

② ‘그것’을 사용한 사실은 회사에 밝혀지지 않았다. 갑자기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하여 인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나’에게 동료들이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은 열흘 동안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 준 ‘그것’과 달리 실수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나’를 두고 사람들이 한 말이다.

④ ㉠은 몇 년 동안 쌓아온 동료 관계가 ‘그것’이 ‘나’를 대신하여 일한 열흘 사이에 와해된 기분을 느끼는 ‘나’를 보여 주고 있다.

02 생각을 나누는 독서와 발표

◆ 문제로 확인

본책 028~029쪽

01 ㉔ 02 ㉕

01 이 글에서 필자는 공감은 인지적 노력과 감정적 노력이라는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한정 끌어다 쓸 수 없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④ '본론'의 (가)에서 인류의 역사로 보면 공감의 범위는 조금씩 확장되어 왔다고 했으며, (라)에서 오늘날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

③ '본론'의 (라)에서 심리학자가 입증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폭력이 발생하는 빈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음을 말하고 있다.

⑤ '결론'의 (가)에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현재, 문명의 위기를 해결하는 정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지적 공감이 미치는 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2 ㉔ '정서적 공감'이 내부 집단을 향하는 깊은 공감이고, ㉕ '인지적 공감'이 외부 집단을 고려하는 넓은 공감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필자는 공감에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기 집단에만 공감이 치우치게 되면 다른 집단에 쓸 공감이 부족해진다고 보았다.

② 필자는 두 가지 공감의 힘을 바탕으로 인간이 서로 협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문명을 건설해 왔다고 보았다.

③ 필자는 정서적 공감은 익숙하고 쉽고 자동적인 반면에, 인지적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필자는 정서적 공감이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상태인 감정 이입이고, 인지적 공감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역지사지가 알맞은 표현이라고 하였다.

꼭 짚어 꼭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030~031쪽

01 ㉔ 02 ㉕ 03 ㉔ 04 ㉔ 05 ㉔ 06 ㉔ 07 ㉔ 08 ㉔
09 ㉔

01 (나)에서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타인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인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마)에서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된 것으로 보아 공감의 대상은 인류를 넘어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인류는 공감이 미치는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다)에서 정서적 공감은 감정 이입이며, 인지적 공감은 역지사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감정 이입과 역지사지는 모두 공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라)에서 '외부 집단까지 포용하는 인지적 공감은 문명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02 '부처님 오신 날'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서로 다른 종교의 기념일을 축하해 주는 것은 갈등이나 편 가르기가 아니라 오히려 화합의 예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03 (가)에서 필자는 오늘날 갈등과 편 가르기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편 가르기는 자기 집단에 대한 과잉 공감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사회적 통념을 반박함으로써 독자가 글에 주목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04 ㉔에는 정서적 공감의 개념이 들어가야 하는데, (다)에서 정서적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다. (가)로 볼 때, 자기 집단에 대한 과잉 공감은 정서적 공감이 깊게 된 상태로 편 가르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05 사회적 독서 활동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글이나 자료를 읽고 그에 관한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거나 메모하며 책을 읽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이기보다는 개인적 독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06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할 때 분석해야 할 예상 청중의 특성으로는 관심사, 배경지식, 이해 수준, 주제에 대한 태도 등이 있다.

07 다른 사람과 함께 글이나 자료를 읽고 그에 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사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08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할 때, 발표의 '처음'에서는 청중의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주의를 환기하거나 청중이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질문이나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관심을 유발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발표를 마무리하며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발표의 '끝'에서 사용되는 전략이다.

- ③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발표의 '중간'에서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전략이다.
- ④ 인용 자료나 여론 조사 그래프 등의 다양한 매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발표의 '중간'에서 사용되는 전략이다.
- ⑤ 청중의 질문을 예상하여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발표의 '끝'에서 사용되는 전략이다.

09 청중이 발표를 집중하여 들었는지 여부는 발표자가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청중이 바른 태도를 갖추어 발표를 들었는지 점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 참고 자료

발표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

- 발표 내용이 가치 있고 유용하였는가?
- 발표 내용과 발표 구성이 흥미 있고 청중이 이해하기 적절하였는가?
-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발표하였는가?

고난도 **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032~033쪽

01 ① 02 ③ 03 문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공감도 아니라 인지적 공감을 활용하여 공감의 반경을 넓혀야 한다. **04 ① 05 ③ 06 ⑤ 07 ⑤**

01 ㄱ. (다)에서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와 응용 윤리학자 '피터 싱어'의 말을 인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ㄴ. (가)에서 공감의 종류를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

02 이 글의 필자는 인지적 공감을 발휘하여 공감의 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인지적 공감이 발휘된 사례에 대해 모듬을 구성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적절한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책을 찾아 메모하며 읽거나 자신의 생각을 일기장에 쓰고 간직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 아니므로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⑤ 이 글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폭력의 역사를 다룬 글이 아니므로 이 글을 읽은 독자가 하는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03 **서술형** 필자가 추구하는 것은 인지적 공감이며, 필자는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문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공감을 통해 공감이 미치는 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해당되는 공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4 발표를 할 때는 청중과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이 중요하므로, 발표를 하기 전에 예상 청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제와 관련한 예상 청중의 세부 관심사, 배경지식과 이해 수준, 주제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청중의 '듣기 태도'는 발표 후에 청중이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예상 청중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참고 자료

청중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전략

- 매체 자료를 제시한다.
- 청중에게 질문을 한다.
- 흥미롭거나 청중의 삶과 밀접한 예를 제시한다.

05 청중과의 질의응답은 발표의 '끝'에서 하는 청중과의 소통 시간이다. 질의응답을 할 때 효과적으로 답변하려면,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질문에만 직접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06 <보기>의 실제 발표는 노 키즈 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라는 세계』와 같은 책을 인용하여 노 키즈 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임을 설명하는 피피티(PPT)는 발표 내용의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 오답 풀이 | ① '노 키즈 존'이라고 적힌 가게 입구의 사진은 청중에게 '노 키즈 존'이라는 화제에 대한 질문과 관심을 유도하는 데 활용하기 적합한 매체 자료이다.

② 노 키즈 존을 찬성하는 입장의 인터뷰 영상은 학생의 발표와 반대되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노 키즈 존 관련 여론 조사에서 노 키즈 존의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그래프는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보기>에서 학생이 언급한 노 키즈 존이 어린이의 정서적 영향이나 차별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④ 『100분 토론』 영상 중에서 노 키즈 존을 찬성하는 업주의 입장이 드러나도록 편집한 영상은 <보기>의 학생이 제시한 노 키즈 존의 부정적인 측면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다룬 자료이므로 <보기>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07 청중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발표했는지 평가할 때 발표자는 질의응답 시 효과적으로 답변하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지하였는지, 즉 발표 전략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 발표의 목적에 알맞은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때 모든 종류의 매체 자료를 활용할 필요는 없다.

01 ③ 02 ② 03 ③ 04 ③ 05 ① 06 ③ 07 ③ 08 ④
09 ③ 10 ③ 11 ④ 12 ④ 13 ⑤ 14 ④ 15 ① 16 ⑤
17 ① 18 ③ 19 ⑤ 20 매체 자료를 제시한다. 청중에게 질문
한다. 흥미로운 예를 제시한다. 청중의 삶과 밀접한 예를 제시한
다. 등

01 인공 지능 로봇인 ‘그것’은 ‘나’가 도저히 표현해 낼 자신이 없
을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었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뛰어난
웹 구축 능력과 플래시 다루는 솜씨로 구현해 낸다. 이로 보아
‘그것’은 단순히 미리 입력된 명령문으로만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가)에서 말하는 ‘딥 러닝’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그것’은 ‘나’가 회사에서 잘릴 위기라는 것을 알
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에서 활약하여 위기를 모면하였
다. 즉,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② ‘그것’은 ‘나’를 대신하는 로봇이므로, ‘나’의 데이터를 바탕으
로 학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
여 주고 있으므로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을 습득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모두가 기대할 만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점, ‘나’보다 훨씬 뛰어
나게 웹 디자인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문학이나 음악
을 창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⑤ ‘그것’은 추가로 입력된 ‘나’의 명령문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여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이것이 ‘홍’의 신임을 얻어 냈다.

02 주제 통합적 읽기는 하나의 화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
로 작성된 글과 자료를 읽는 활동이다. 따라서 주제 통합적 읽
기는 하나의 글을 보다 깊이 있게 읽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
는 다양한 글을 종합적으로 읽기에 더 적절한 방법으로 보아
야 한다.

03 (가)는 인공 지능의 핵심 기술에 대한 개념, 발전 양상 등을 통
해 인공 지능 기술이 상품 추천이나 의료, 문학 및 음악 작품
창작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04 ‘나’는 ‘그것’이 자신의 회사 일을 대신하게 되자 공허함과 불
안함을 느끼며, 회사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집안일에 매여 있
는 자신의 모습을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할
날만 기다렸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집’은
‘나’에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05 미리 입력된 명령문이 없어도, 기계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
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머신 러닝’이다. ‘딥 러
닝’((C))이 ‘머신 러닝’((C))의 하위 분야이므로 이 둘 모두 ‘머
신 러닝’의 특성을 지닌다.

| 오답 풀이 | ② 사람의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
는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은 ‘딥 러닝’((C))
이다.

③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류하는 능력을 습득하여 스스로 학습하
게 하는 기술은 ‘딥 러닝’((C))이다.

④ 단순히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
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학습하게
하는 기술은 ‘딥 러닝’((C))이다.

⑤ 기계가 직접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그 속에 숨겨진 규칙성
을 찾아내는 기술은 ‘머신 러닝’((C))에 대한 설명이므로 ‘머신 러
닝’((C))과 ‘딥 러닝’((C)) 모두 해당된다.

06 ‘나’는 ‘그것’이 회사에서 활약하자 당황스럽고 얼떨떨한 감
정을 느낀다. ㉠를 기점으로 ‘그것’이 회사에 출근하고 ‘나’가 집
안일에 전념하게 되자 ‘나’는 묘한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낀다.

07 (나)는 인공 지능 시스템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멸망하고 마는 모습을 그린 소설과, 이 소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우
리가 문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잃지 말아야 한
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읽고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가)는 주인공 ‘나’가 자신 대신 가사와 회사 일을 병행하는 인공
지능 로봇 ‘그것’을 들임으로써 벌어지는 사건과 그로 인한 자
신의 내면 심리를 전하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09 <보기>에서는 로봇과 인공 지능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는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제한적인 위탁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로봇과 인공 지능은 인간 노
동의 일부를 대신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 인간인 ‘나’는 로봇인 ‘그것’
보다 디자인 능력이 떨어져 ‘그것’이 한 디자인 수정조차 제대
로 하지 못한다. 이는 ‘나’와 ‘그것’의 공존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나’와 동료들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나’가 기존의 자신과 다
르게 일을 너무나 완벽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리
키는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
하게 변한 사람.’이라는 언급에서, 기존의 ‘나’는 여러 가지 일
을 잘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함께 상사의 험담도 하고,
감원 대상으로 동질감도 느꼈을 동료 직원들이 달라진 자신
을(실제로는 ‘그것’) 멀리하자 기존의 관계가 깨져 버렸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❶ 오답 풀이 ❶ ① 인간인 '나'가 수정한 업무를 보고 '실수'라고 언급한 것에서 '그것'의 일처리가 그동안 완벽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 역시 동료들과 같은 처지에서 일을 잘하는 '홍'에 대해 험담했었는데, 이제는 '나'를 대신한 '그것'이 '홍'과 가깝게 지내며 '홍'과 같이 일을 완벽히 하게 되었으므로 동료들이 '나'를 피하는 것이다.

④ 소설 속 인물들은 먹고 자고 입는 것, 즉 의식주를 모두 기계에 의존하면서도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른다. 그리하여 기계가 멈추자 모두 멸망하고 만다.

⑤ 인간이 더 이상 학습하지 않고 기계에 결정권을 넘기게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이 근본적인 가치조차 포기하게 된다는 소리이다.

11 (나)에서 ㉠ '소설 「기계는 멈춘다」'는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토피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간의 퇴보를 유토피아로 보는 것도 부적절하다(③). 이 소설 속 인물들은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인 인공 지능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고 있으므로 기계를 불신한다고 볼 수 없고(②, ⑤), 오히려 인공 지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야 한다(①).

12 (라)에서 필자는 인류가 역사를 거듭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지각하는 대상의 범위를 확장해 왔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이야기하며 그 사례로 반려동물을 들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례는 인간이 공감의 범위를 같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로 그 대상을 넓힌 사례로 볼 수 있다.

13 명언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베이컨의 말처럼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이나 '널리 알려진 말.'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명언이 활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경각심'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이 글에서 특별히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례를 제시하거나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4 필자가 언급한 '갈등과 편 가르기'는 주로 사회적 갈등이나 차별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학급 내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는 주로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적 갈등이나 차별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15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내적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 (다)에서 필자는 인간이 두 가지 공감의 힘을 바탕으로 문명을

건설해 왔지만, 협력은 외부 집단을 포용하는 것이므로 인지적 공감이야말로 문명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 보았다. 또한, (마)에서는 현재 이 두 가지 공감의 힘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서적 공감보다는 인지적 공감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서적 공감을 중심을 바탕으로 한 협력으로 문명을 건설해 왔다는 것은 필자의 생각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17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할 때에는 먼저 발표의 목적과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 다음 예상 청중의 관심사, 배경지식, 이해 수준, 주제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여 예상 청중을 분석한다. 예상 청중을 분석한 후에는 발표 목적과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발표 내용을 생성한다. 생성한 내용을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전략을 세운다. 발표를 할 때에는 청중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한다. 발표가 끝나면 발표 활동이 적절했는지 점검하고 성찰해 보는 것이 좋다.

18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를 할 때는 예상 청중의 관심사, 태도, 이해 수준, 배경지식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은 발표 내용에 대한 준비이다.

19 발표자가 자신의 발표를 평가할 때에는 청중 특성과의 관련성, 주제와 목적의 명확성, 내용의 체계성, 자료의 적절성과 신뢰성, 발표 전략의 적절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발표에서 인상적인 부분,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 등을 파악하는 것은 청중으로서 바른 태도를 갖추어 발표를 들었는지 점검할 때의 항목이다.

20 **새싹형**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를 할 때에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발표의 '처음'에서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거나, '중간'과 '끝'에서 내용 전개 및 정리를 위해 어떤 전략을 활용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여 효과적인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청중의 관심을 유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썼다.	☐
전략을 두 가지 이상 썼다.	☐

2. 우리 삶을 비추는 한국 문학

01 청산별곡 / 십 년을 경영후여

◆ 문제로 확인

본책 044~047쪽

01 ③ 02 ④ 03 ① 04 ② 05 ⑤ 06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07 ② 08 ①

01 이 시가는 3음보의 규칙적 율격을 활용해 운율을 형성하고 음 악성을 높이고 있다.

02 화자가 실연한 사람일 경우 ‘잉 무든 장글’은 ‘이끼 묻은 은장 도’로 해석할 수 있다.

03 이 시가에서 ‘물 아래’는 속세를 뜻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가던 새’는 날아가는 새로, 화자를 농민으로 해석할 경우 ‘갈 던 밭’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구절에서 화자가 ‘물 아래 가던 새’를 바라보는 것은 속세에 미련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4 이 시조에서 화자는 ‘달’과 ‘바람’, ‘강산’이 어우러진 자연 속 에서 느끼는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05 이 시조의 초장에서 화자는 십 년을 계획하여 초려 삼간을 지 어냈다. 초려 삼간은 소박한 생활 공간을 말하며, 이는 종장, 종장의 내용과 어우러져 소박한 생활 가운데 자연 속에서 느 끼는 풍류에 대한 지향과 연결된다. 따라서 초장 부분에 나타 난 화자의 태도와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 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이라는 의미의 ‘안빈낙 도(安貧樂道)’이다.

▶ 오답 풀이 ▶ ①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 는 뜻이다.

② ‘금상첨화(錦上添花)’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 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모가 있다는 뜻으로, 남의 하찮은 말이나 행 동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 르는 말이다.

④ ‘수주대토(守株待兔)’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6 **새술형** 강산은 들일 곳이 없으니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겠다는 발상이 나타나는 시구는 이 시조의 종장이다. 종장에서는 자연과 하나가 된 몰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와 강호가도(江湖歌道)가 드러난다.

평가 기준	확인 ☒
시조에서 몰아일체가 나타나는 시구를 찾아 썼다.	☐

07 이 시조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 소박한 초가를 짓고, ‘달’과 ‘청 풍’에 방을 한 칸씩 맡기고, ‘강산’은 들일 곳이 없어 둘러 두고 보겠다고 한다. 이는 자연을 친화와 풍류의 대상으로 여기며 즐기던 한국 문학의 정서를 보여 준다.

08 이 시조에서는 ‘달’과 ‘청풍’에 초려 삼간의 방 한 칸씩을 맡긴 다고 표현하여 자연물에 인격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다.

꼭 읽게 꼭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048~051쪽

01 ① 02 ④ 03 ⑤ 04 청산, 바루래 05 ③ 06 ④
07 ① 08 ③ 09 ⑤ 10 ④ 11 ⑤ 12 ② 13 ④ 14 ⑤
15 ⑤은 임이 부재하는 시간을, ④은 임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의 미한다. 16 ③ 17 ① 18 ④

01 제시된 시가의 갈래는 고려 가요이다. 고려 가요는 주로 고려 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 ‘고려 속요(俗謠)’, ‘여요 (麗謠)’, ‘장가’로 불렸다.

▶ 오답 풀이 ▶ ② 가사는 3·4조 또는 4·4조를 기본으로 하는 4음 보의 연속체로서, 행수(行數)에는 제한이 없어 운문 형태에 산문 적 내용이 담긴 과도기적 형태의 시가이다.

③ 주로 사대부의 서정을 간결한 형식 속에 담아 노래한 정형 시 가는 시조이다. 시조는 고려 말에 발생해 조선 전 기간에 걸쳐 가 장 대중적으로 창작된 서정 갈래이다.

④ 화랑, 승려 등이 창작한 신라 시대의 서정 시가로, 향찰로 표 기한 것은 향가이다. 향가는 형식에 따라 4구체, 8구체, 10구체 로 지어져 전해졌다.

⑤ 고려 말 신흥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 하기 위해 지은 시가는 경기체가이다. 경기체가는 고려 말에 발 생하여 조선 전기까지 창작되었다.

02 고려 가요는 대체로 3·3·2조의 음수율과 한 구를 세 번에 끊 어 읽는 3음보의 율격으로 운율을 형성하며, 의미 없는 후렴 구가 반복되고,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연장체로 구성된다.

03 이 시가는 후렴구인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각 연을 분절하며, 구조적 통일성을 형 성한다. 다만 이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작품의 분위기 나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리듬감을 주기 위한 목적의 말이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가는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라는 동일한 후렴구를 각 연마다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이 시가의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말로 운율을 형성하여 흥을 돋운다.

③ 후렴구는 각 연의 끝에 배치되어 형태적 통일성에 기여한다.

④ 후렴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ㄹ'과 'ㅇ' 음은 울림소리에 해당하며, 울림소리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04 [서울형] 제시된 시가에서 화자가 찾는 도피의 공간이자 이상향, 안식처를 상징하는 시어는 '청산(청산), 바르래(바다)'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어 두 가지를 모두 찾아 썼다.	☐

05 화자를 지식인으로 이해할 경우 '청산'이나 '바르래'는 현실에서 얻고자 한 것이 좌절되어 떠난 삶의 이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공간은 현실에서 얻고자 한 욕망이나 명예, 세력 따위를 실현한 공간이 아니라 도피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를 유랑민으로 이해할 경우 화자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농민으로 볼 수 있다. '청산'은 농사를 짓고 살던 삶의 터전과는 대비되는 공간으로, 삶의 비애를 내려놓을 수 있는 도피처이자 이상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3연의 화자는 '물 아래 가던 새'를 보고 있다. 이때 '물 아래'는 현재 있는 자연적 공간과 대비되는 속세나 현실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를 유랑민으로 생각하면 3연은 쫓겨난 삶의 터전에 대한 미련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3연에서 화자는 현재 있는 공간이 아닌 자신이 떠난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화자를 지식인으로 생각하면 3연은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현실을 돌아보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가던 새'를 보는 화자의 행동은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를 실현한 사람으로 본다면 '가던 새'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맘'으로 해석할 수 있다.

06 화자는 1~4연에서 '청산'을 동경하며 삶의 비애와 고독감을 노래하고 있으며, 5~8연에서도 '바다'를 동경하며 운명적 고독과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를 노래하고 있다. 5~8연에서 화자의 의지는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1~4연과 5~8연은 대칭적 내용 구조를 갖고 있으며 1연에서 '청산'을 동경한 것과 같이 6연에서는 '바다'를 동경하고 있어 서로 대응한다.

② 작품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전반부는 1~4연이고, 후반부는 5~8연이다. 1~4연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은 '청산'이다.

③ 1~4연과 동일하게 5~8연에서도 유사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해 보여줄 수 있고, 운율감을 드러낼 수 있다.

⑤ 작품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후반부의 주요 공간은 '바다'이다. '바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삶의 공간으로, 1연의 '청산'과 의미가 같다.

07 [A]에서 화자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돌에 맞아서 울며 지낸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때 돌은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인간의 운명을 의미한다. 즉, 화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체념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② 화자는 운명에 체념하고 있는 것이지 삶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

③ 화자는 느닷없이 날아온 돌에 맞아서 울며 지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어진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화자의 태도에서 달관하거나 초월적인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갑자기 날아온 돌은 삶의 비애를 야기하는 부정적 현실로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이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인할 수 없다.

08 ㉠ '밤'은 청산을 찾아온 화자에게 절대적인 고독이 심화되는 시간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 '새'는 화자가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② ㉡ '물 아래'는 속세를 뜻하는데 이는 화자의 이상향인 '청산'과 대비되는 곳이다.

④ ㉢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다. 따라서 '사슴'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 '강수'는 삶의 비애와 슬픔에 빠져 있던 화자가 삶의 고뇌를 잊기 위해 찾은 도구로 이해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청산별곡' 각 연에 나타난 시어의 상징적 의미

1연	청산	괴로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 이상향
2연	새	화자의 감정을 투영한 존재
3연	새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
4연	밤	절대적이고 극대화된 고독의 시간
5연	돌	가혹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
6연	바다	괴로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 이상향
7연	사슴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에 대한 소망
8연	강수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하는 매개체

09 (가)와 (나)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형성을 지닌 평시조이고, (다)는 평시조보다 중장과 중장의 길이가 길어진 사설시조로, 정형성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자연을 소재로 안빈낙도와 물아일체의 삶을, (나)는 사랑을 소재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 ② (나)는 임이 곁에 없는 상황에서 화자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다)는 농민의 바쁜 농촌 생활과 그 속에서 느끼는 여유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다)는 농민의 일상과 정서를 보여 주는 것이다.
- ③ (가)와 (나)는 평시조이고, (다)는 사설시조이다.
- ④ (가)와 (다)의 분위기는 전원적인 데 비해, (나)는 애상적이다.

10 (가)와 (나)는 평시조, (다)는 사설시조이다. (다)는 3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가), (나)와 달리 중장이 확장되었으며 4음보의 정형성을 유지하지 않는 평시조의 정형적 형식에서 벗어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사대부의 작품으로, <보기>에 따르면 사대부는 주로 사대부의 정서와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 친화를 노래했다고 하였다.

② (나)는 기녀의 작품으로, <보기>에 따르면 기녀는 남녀의 정을 섬세하고 우아하게 표현하는 시조를 창작했다고 하였다.

③ (다)는 사설시조로 <보기>에 따르면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향유층이 평민 계층으로 확대되며 등장했다고 하였다.

⑤ (가)~(다)는 모두 시조로, <보기>에 따르면 시조의 기본적인 형태는 3장(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11 (가)에서 화자는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 은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에 제시된 자연은 화자가 가까운 곳에 두거나 집 근처에 둘러 두고 보고 싶은 공간으로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다. 반면 (다)에서 화자는 땔나무를 얻기 위해 산속에서 노동을 하고 노동을 하는 중간에 쉬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다)에 제시된 자연은 노동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12 설의적 표현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인데 (가)에는 이러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초장에서 '초려 삼간'을 지었다고 한다. 이는 화자의 소박한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 준다.

③ 중장에서 화자는 '달'과 '바람'에 자신의 집 한 칸씩을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한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 자연물을 친근하게 나타내고 있다.

④ 초장, 중장, 종장은 각각 네 번씩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시조의 정형적 율격인 4음보의 율격을 보여 준다.

⑤ 중장과 종장에서 화자는 자연과 하나된 물아일체적 삶을 통해 풍류를 표현하고 있다.

13 (가)의 화자는 초장, 중장에서 화자의 가까이에 있는 자연물을 보고 있으며, 종장에서는 초려 삼간에 들일 수 없다고 표현하며 멀리 있는 강과 산을 보고 있다. 이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물아일체가 되는 모습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는 '달', '바람', '강'과 같은 자연물을 의미하는 시어들이 등장한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에는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초장과 중장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려는 태도를 비교적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종장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초장~종장으로 흐르며 시선의 변화는 드러나지만 시간, 공간, 정서의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14 (나)에는 '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베어 '춘풍 니불' 안에 넣어 두겠다고 하는데, '춘풍 니불'은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나타내는 것이지 계절의 변화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며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추상적인 시간을 사물처럼 형상화하여 허리를 베어 내어 이불 속에 넣었다가 임이 온 날 밤에 펴겠다고 표현하였다. 즉, 추상적인 시간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③ '서리서리', '구뽀구뽀'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이와 같은 순우리말로 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 '기나긴 밤'을 임이 없는 밤에는 '서리서리 너털다가', 임이 온 밤에는 '구뽀구뽀 퍼리라'라고 하여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5 **새시형** (나)의 화자는 임 없이 보내는 외로운 겨울밤을 잘라 내어, 임과 함께 지내는 밤을 길게 늘리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즉, 임이 없는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다. 그러므로 ㉠의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의 '어른 님 오신 날 밤'은 임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과 ㉡의 의미를 썼다.	☐

16 '안빈낙도(安貧樂道)'란 가난한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도를 즐기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그러나 (다)에는 농촌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농민의 모습이 나타날 뿐 도를 즐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농민이 김을 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점심을 먹고, 석양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일과를 제시하고 있다.

② 중장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담배를 피우며 콧노래를 부르면서 조는 모습에서 화자가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낮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돌려메고'와 같은 동적인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묘사되면서, 화자가 능동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⑤ 초장과 중장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러 가는 농부의 모습을 열거하여 농민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7 작가는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참나무’를 보면서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누군가에게 기대고 쉴 수 있는 자리를 내주는 사람, 속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겨울철 참나무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자기 성찰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만, 사물을 의인화한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상을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에서 작가는 과거 자신의 부정적 모습을 성찰하고는 있으나, 현대 사회의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④ 지난 주말 산에 가 참나무를 바라보며 느꼈던 바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작가는 겨울날 ‘참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자신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공동체의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18 작가는 (라)의 2문단에서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라고 하였으며, 3문단에서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기대고 쉴 수 있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하였다. 작가가 본받고 싶은 나무의 속성으로 나무가 한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존재임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은 작가의 깨달음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⑤ 작가는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으므로 마음이 굳건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깨달음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겠다는 깨달음은 적절하다.

② 작가는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였다.

③ 작가는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라고 하였다.

01 (가)의 자연은 고단한 삶의 현실에서 느낀 비애와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나 이상향을 의미하고, (나)의 자연은 어울려 살고 싶은 대상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의 자연은 모두 전원 공간일 수는 있지만, 노동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가)에서 자연은 속세에서 벗어난 공간이고, (나)에서 자연은 화자가 즐기는 풍류의 공간이다.

④ (가)에서 자연은 삶의 고독감이 더해지는 공간이고, (나)에서 자연은 삶의 고독감이 더해지거나 덜해지는 곳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화자의 자연을 즐기는 흥이 더해지는 곳이다.

⑤ (가)에서 자연은 삶의 비애를 벗어나기 위해 화자가 선택한 공간이다. 그러나 (나)의 자연은 권력을 잃은 이가 은거하며 지내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십 년을 생각하여 선택한 곳으로, 자연에 귀의하여 화자가 풍류를 즐기는 곳이다.

02 (가)의 갈래는 고려 가요이다. 고려 가요는 고려 시대에 주로 평민들이 지어 불렀던 민요적 시가로, 3음보의 운율과 3·3·2조의 음수율을 보인다. 또한 매 연에서 같은 가락으로 되풀이하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음악적 효과를 높인다.

| 오답 풀이 | ③ 조선 시대에 주로 창작된 3·4조 4음보의 연속체 시가는 가사이다.

④ 주로 사대부의 서정을 간결한 형식 속에 담아낸 우리 고유의 정형적 시가는 시조이다.

03 **새소형** 3연의 ‘가던 새’를 ‘갈던 밭’으로, ‘잉 무든 장글란’을 ‘이끼 묻은 쟁기일랑’으로 해석한 것은 (가)의 화자를 농민이었으나 혼란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유랑민으로 본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당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조롱곳 누로기(조롱박꽃 누룩)’는 술을 담그는 재료로, ㉠에는 ‘술’이 자신을 잡으니 어쩔 수 없이 술로 시름을 달래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이는 시장 전개상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선택한 화자의 체념적 자세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 오답 풀이 | ① ㉠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는 의미가 없는 후렴구로, 악률을 맞추고 리듬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가)의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다.

② ㉠ 밤은 낮을 그럭저럭 지내온 화자의 시름과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때로 밤에 속세를 떠나온 것에 대한 슬픔과 고뇌를 위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③ ㉠ 둘은 외부에서 날아온 것으로, ㉡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비애에 대해 체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④ ㉢ 1연의 1행과 대칭을 이루는 부분으로, 화자가 청산이나 바다와 같은 이상향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보기>의 화자에게 자연이 노동의 현장인 반면, (나)의 화자에게 자연은 하나 되어 즐기는 풍류와 관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보기>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노동을 하며 흥겨움과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있다. 따라서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으로 도피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의 화자에게 자연은 탈속적 공간이 아니라 노동의 현장이자 생활 공간이다.

④ <보기>의 화자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등 노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와 달리 <보기>의 화자에게 자연은 속세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은 생활 공간이다.

⑤ <보기>의 화자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화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즐기기도 하는 등 여유로움과 흥겨움을 잃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작가는 사소한 일에 상처받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 말없이 기다리는 것, 세월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누군가 기대어 쉴 수 있고 겉모습이 변해도 속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나무를 통해 배우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깨달음에 비추어 볼 때 가벼운 말로 주변에 상처를 주는 친구가 있다면 빨리 반성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작가는 ‘한 그루 나무’를 보며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 그루 나무’를 주변 사람이 찾아와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작가는 ‘한 그루 나무’를 보며 자신이 사소한 일에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는지 반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그루 나무’를 시류에 쉽게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바로 새겨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작가는 ‘한 그루 나무’를 보며 세월이 가져다 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 그루 나무’를 나이 들어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작가는 ‘한 그루 나무’를 보며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으며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그루 나무’를 보며 잠시 방황과 일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기다려 주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02 속미인곡 / 진달래꽃

본책 056~061쪽

문제풀이 확인

01 ① 02 ③ 03 ⑤ 04 한양의 궁궐 05 ④ 06 ① 07 ①
08 ④ 09 구준비 10 ① 11 ② 12 ① 13 진달래꽃 14 ⑤

01 이 작품은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심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처음과 끝에 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기법인 속미상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서사 첫 부분에서 보조적 위치의 화자는 중심 화자에게 ‘히 다 더 저문 날의 놀을 보러 가시느고’라고 묻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난 시간적 배경은 새벽이 아니라 늦은 오후나 초저녁 무렵으로 볼 수 있다.

03 중심 화자는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임을 걱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04 **새술형** <보기>에서 작가인 정철이 낙향을 한 상황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쓴 작품이 ‘속미인곡’이라고 하였으므로, 정철에게 ‘턴상(天上) 벽옥경(白玉京)’은 임금이 있는 곳, 즉 한양의 궁궐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를 바탕으로 작가 정철에게 ‘턴상(天上) 벽옥경(白玉京)’의 의미가 한양의 궁궐임을 썼다.	☐

05 [A]의 화자는 보조적 위치의 화자로 중심 화자에게 질문하며, 중심 화자의 하소연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06 이 시가에서 중심 화자는 이별한 상황에서 이별한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애쓰고,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임을 만나는 등 임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07 중심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산천을 헤매다 집으로 돌아온 뒤 기력이 다해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임을 만나는 꿈을 꾀다. 꿈에서 임을 만나는 것이지, 집으로 돌아온 직후 임의 기척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08 이 시가에서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오년된 계성’은 모두 중심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임금을 향한 작가의 충정을 방해하는 정치 상황이나 부정적 세력을 의미한다.

09 **새술형** ‘구준비’는 임의 옷을 적실 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낙월’에 비해 적극적인 사랑의 의미를 나타낸다.

평가 기준	확인 ☒
‘구준비’라고 바르게 썼다.	☐

- 10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빈 배’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임을 떠나 홀가분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
- 11 이 시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며 체념과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기 희생과 인내의 의지를 보인다. 이와 같은 화자의 태도를 이별을 거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12 「진달래꽃」과 「공무도하가」는 모두 이별의 정한과 슬픔을 다룬 작품으로, 우리 문학이 가진 전통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 참고 자료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갈래	고대 가요, 서정 시가, 4구체 한역시(漢譯詩)
성격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제재	물을 건너는 임
주제	임을 여인 슬픔
특징	중심 소재인 ‘물’의 의미가 ‘사랑-이별-죽음’으로 변화하며,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한(恨)을 노래함.

- 13 **시술형** ‘진달래꽃’은 시적 화자가 떠나는 임을 축복하기 위해 뿌리는 꽃으로 화자의 분신이자 표상이며,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희생, 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진달래꽃’이라고 바르게 썼다.	☐

- 14 화자는 떠나는 임에게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므로 ㉠이 원망의 속내를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꼭잡게 **꼭**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062~067쪽

- 01 ② 02 ③ 03 ③ 04 ② 05 부림, 물결, 오던된 계성
06 ④ 07 ⑤ 08 ⑤ 09 ④ 10 ④ 11 자신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12 ① 13 ② 14 ④ 15 ④ 16 ⑤ 17 ④
18 ⑤ 19 봄 20 ① 21 ② 22 ② 23 ④ 24 ④ 25 ③

- 01 「속미인곡」의 갈래는 가사이다. 가사는 ‘서사-본사-결사’의 삼단 구성으로, 3·4(4·4)조, 4음보의 연속체로 이루어진다. 정격 가사의 경우 마지막 행은 평시조의 종장과 글자 수가 같은 경우가 많으며, 조선 후기에는 마지막 행이 평시조의 종장과 일치하지 않고 길이가 길어진 변격 가사가 많이 창작되었다.

- 02 계절에 따른 시상의 전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춘하고열, 추일동턴’과 같은 시어에서 계절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는 실제로 계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임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중심 화자의 걱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 03 중심 화자인 ‘여인 2’는 임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임과 헤어지게 된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이를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04 ‘구준비’가 ‘낙월(落月)’에 비해 적극적인 속성을 가진 대상인 것은 맞지만, 그러한 속성이 화자가 임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이는 임에 대한 그리움에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 있고 싶다는 중심 화자의 말에 대하여 보조적 위치의 화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라며 조언과 위로의 말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구준비’는 임에게 닿아 임의 옷을 적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낙월(落月)’에 비해 임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

③ ‘낙월(落月)’은 지는 달이기 때문에 잠시 비추다 없어지는 대상이다.

④ ‘낙월(落月)’은 ‘구준비’에 비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랑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구준비’는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낙월(落月)’은 소극적인 사랑을 의미하지만, 둘 다 어떻게든 임 가까이에 다가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05 **시술형** ‘본사’의 ‘구름’과 ‘안개’는 임과 중심 화자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시어로는 ‘부림’과 ‘물결’, ‘오던된 계성’이 있다. 이와 같은 시어들은 당시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임과 중심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관련한 시어를 찾아 썼다.	☐
시어를 두 가지 이상 썼다.	☐

- 06 중심 화자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한 것은 동인과 서인의 당쟁에서 패배한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신하로서 임금을 보필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7 '더 각시'는 작품의 중심 화자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늘어 놓고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여 줌으로써 이야기를 전개 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상대방(보조적 위치의 화자)이 그리워하는 대상 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작품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역할은 '더 각시'가 아니라 다른 보 조적 위치의 화자가 하고 있다.

③ 상대방(보조적 위치의 화자)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언하 고 있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작품 속에 등장하지도 않는다.

④ 상대방(보조적 위치의 화자)이 잘못을 하지도 않았고, ㉠이 상대방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다.

08 (가)는 입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했고, (나)는 당신과 다시 만 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7·5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보이는 반 면,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정한 율격이 없는 자유시이다.

② (가)는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보아 현재 입과 이별한 상태로 보기 어렵고, (나)는 만나게 될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보아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대상에 대한 사랑을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④ 민요적인 어조로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가)이다.

09 (가)의 화자는 입이 떠나는 상황에 대해 체념하며 떠나는 입에 대한 축복과 자기희생의 태도를 보이고, 입이 떠나간 상황에 서도 희생적 인고의 자세를 보인다. (나)의 화자는 당신과 만 나 사랑과 꿈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견 디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두 작품의 화자 모두 이별의 상황을 입에 대한 사랑으로 견뎌 내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입에 대한 사랑을 드러 낼 뿐, 다른 대상과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②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이별에 슬퍼하지만 이를 자신의 탓으 로 돌리며 안타까워하지는 않는다.

③ (가)의 화자는 멀리 있는 입을 그리워하며 다시 입을 만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나)의 화자는 멀리 있는 입을 그 리워하며 입과의 재회를 가정하고 있지만 이를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사랑을 이루기를 고대하는 모습은 (나)에 드러나며 과거의 이 별로 인해 겪은 상처를 이겨 내려는 태도는 (가), (나) 모두 드러 나 있지 않다.

10 '진달래꽃'은 화자가 입을 축복하기 위해 뿌리겠다는 대상으 로, 입에 대한 화자의 희생적 사랑을 표상하는 화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달래꽃'은 작품의 정서를 집약적으 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그러나 화자와 입의 처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할 뿐, 서로 바뀌지 않는다.

11 **시술형** <보기>에서는 (가)의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 내야 하는 상황에 슬픔을 느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눈물을 참고 떠나는 입을 보내준다고 했다. 그러므로 화자가 보이는 태도의 이면에는 입이 자신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빈칸에 들어갈 말로 자신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썼다.	☐

12 '나 보기가V역겨워V가실 때에는'은 3음보를 두 행에 걸쳐 배치함으로써 3음보를 한 행에 배치한 '말없이V고이 보내V드리우리다'보다 호흡의 속도를 느리게 하였다.

13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와 같은 표현을 통해 슬픔을 의인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교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14 이 시에서는 '당신'의 과거 상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화자는 부재하는 '당신'과 다시 만나 사랑과 꿈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견디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 '하나의 꿈을 엮는 것'은 '당신'을 만나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어야 한다. '당신'을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로 본다면 그 친구를 만나는 것 등이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람일 수 있다. 단 순히 그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을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16 ㉠ '어느 겨울'은 '추운 길목'과 함께 화자가 처한 현실의 시련을 의미한다. 즉, '어느 겨울'과 '추운 길목'은 그 의미가 유사하며, 두 시구를 비교해 어떤 것이 더 모진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하기 어렵다.

17 (다)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을 사람이 만나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에 대응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나)는 자연 현상을 사람과의 관계에 대응시켜 표현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입과 이별한 상황을, (나)는 입을 떠나 보내게 되는 상황을, (다)는 이별한 사람을 잊는 것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 이별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② (가)에서는 차라리 죽어서라도 입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는 입이 떠나더라도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③ (가)는 과거 사랑했던 입과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다) 또한 입과 이별한 상황에서 상대를 잊는 것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나)는 1연과 4연에서, (다)는 1연과 5연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18 (가)의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이겨 내기 위해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슬픔을 보이지 않고 인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이별의 상황에서도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9 **시술형** (가)에서 ‘꿈’은 화자가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화자는 꿈속에서 임을 만나 그동안 마음에 두었던 말을 실컷 하려고 하지만 새벽닭 소리에 꿈에서 깨어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시어를 적절하게 찾아 ‘꿈’이라고 썼다.	☐

20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충신연주지사’로 임금을 ‘임’으로 보고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헤어진 임과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으로 바꾸어 심정을 표현하면 화자가 임금을 생각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더 애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

21 ‘낙월’은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지만 멀리서 임을 바라보기만 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이다. ‘구준비’는 임의 옷을 적시며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 오답 풀이 | ① ‘낙월’과 ‘구준비’ 둘 다 죽어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담긴 소재로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쪽이 더 잘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낙월’과 ‘구준비’는 둘 다 화자가 죽어서 된 대상으로 임을 직접 찾아가는 소재이므로,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소재로 보기 어렵다.

④ ‘낙월’은 멀리서 임을 바라보는 대상이며 ‘구준비’는 임의 옷을 적시며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상이다.

⑤ ‘낙월’과 ‘구준비’는 둘 다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이므로,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22 ㉠에서 화자는 임이 자신을 싫어하여 떠나가더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슬프지만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견디겠다는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정서가 드러난다. ‘애이불비(哀而不悲)’란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 오답 풀이 | ① ‘흥진비래(興盡悲來)’란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이다.

③ ‘비분강개(悲憤慷慨)’란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복받친다는 의미이다.

④ ‘절치부심(切齒腐心)’이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인다는 의미이다.

⑤ ‘풍수지탄(風樹之嘆)’이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23 (다)에서는 감각적 심상이 도드라지지 않으며,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독백체의 어조로 사랑과 이별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그대여’, ‘-더군’ 등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③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을 사랑과 이별에 빗대고 있다.

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잊는 건 한참이더군’에서 ‘잠깐’과 ‘한참’이 대비되고 있다.

24 ㉠은 ‘멀리서 웃는 그대여’와 대구를 이루는 표현으로 그대와 이별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화자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임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는 꽃이 피는 것을 사랑이 시작되고 인연이 맺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인연을 맺어 사랑을 이루기까지의 힘겨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꽃이 지는 것은 이별을 의미하므로, 사랑하던 그대와의 이별이 쉽게 이루어졌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꽃이 피는 것을 사랑의 시작으로 본다면, ㉠은 그대와의 사랑이 처음 시작된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영영’은 ‘영원히 언제까지나’라는 뜻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잊는 것이 영영 한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를 잊는 것의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5 (다)의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꽃이 피고 지는 것에 비유하며 이별과 그리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꽃이 지는 건 잠깐이라고 말하며, 이별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임을 표현하였고, 잊는 건 한참이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기>와 연결 지어 보았을 때,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은 ㉢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사랑과 이별을 꽃이 피고 지는 현상에 비유하기는 했지만 꽃이 피는 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②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은 결실을 맺을 때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④, ⑤ 이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연을 잊어야 한다거나 지속되지 못하는 사랑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지는 않았다.

01 ⑤ 02 ① 03 ④ 04 '빈 비'는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05 ④ 06 ⑤ 07 ④

01 (나)는 임이 떠나가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다)는 당신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와 (다)는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나 (가)는 화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독백적인 어조는 (다)에서만 나타난다.

②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경을 강조하는 부분은 (가)~(다)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임 계신 곳 소식을 알고자 하나 벌써 오늘도 저물었다는 표현을 통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부분이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는 4음보율의 율격을 보이지만, (다)에서는 그러한 율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가)~(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이나 혹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심화된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대 가요 이후 현대 시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문학의 전통이다.

03 (가)의 화자는 임과 이별했지만 임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이 된다면 떠나는 임을 축복하고, 임에게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다)의 화자는 '당신'과 만나 사랑과 꿈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견디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세 작품의 화자는 모두 이별의 슬픔을 임에 대한 사랑으로 견뎌 내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04 **새술형** 화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구체적인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가)에서 사공도 없이 걸려 있는 '빈 비'는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화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말인 '객관적 상관물'을 썼다.	☐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썼다.	☐

05 3연에서 화자는 떠나는 임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이 뿌린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라고 말하며, 임에 대한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자신의 처지를 외롭다고 생각하고 이

에 실망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의 정한을 희생적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06 '사뿐히'는 가볍게 발을 내디디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화자의 자기희생적 태도를 부각시키는 표현이지, 임이 떠나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아니다. 이는 임이 떠나게 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라는 화자의 배려와 희생을 표현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우리다'를 반복하여 시적 리듬감이 느껴진다.

②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자 헌신적 사랑을 상징한다.

③ 1연과 4연에서 수미상관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이별을 대하는 인고의 자세를 잘 드러낸다.

④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다른 표현 기법은 반어적 표현이다. 4연에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상황에서 임을 보내야 하는 화자의 슬픈 마음을 강조한다.

07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을 표현하기는 했으나, 시련으로 인한 상처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낱실과 씨실이 교차하는 구체적 모습을 통해 '당신'과 화자의 만남이라는 추상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② 도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③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위로, 사랑과 연대의 표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는다는 것은 화자의 소망이다. 그러므로 ㉔은 화자의 소망을 담은 가정적 표현이고, 이 시에서는 이를 반복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3 춘향전

본책 072~081쪽

문제로 확인

01 ⑤ 02 ⑤ 03 ③ 04 ⑤ 05 ⑤ 06 ④ 07 ⑤ 08 ④
09 ④ 10 ⑤ 11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12 ①
13 ② 14 ④ 15 ④ 16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어미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하라. 17 ① 18 ④
19 ④ 20 ④ 21 ② 22 ② 23 행복한 결말

01 ‘본관 사또’는 ‘몽룡’을 말석에 앉혀 술잔이나 먹여 보내자는 ‘운봉 영장’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운봉 영장’의 의견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몽룡’이 자신을 걸인이라고 칭하고 있고, 사령들과 ‘운봉 영장’이 ‘몽룡’을 걸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몽룡’이 걸인처럼 행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에서 ‘몽룡’이 ‘본관 사또’의 생일 잔치를 보며 심란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운봉 영장’은 ‘몽룡’을 보며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냈어 어떠하뇨?’라고 말하며 ‘몽룡’을 생일잔치에 참석시키며 ‘몽룡’과 ‘본관 사또’가 대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④ ‘운봉 영장’은 ‘몽룡’의 거동을 보고 양반의 후예임을 알아보았다.

02 ‘본관 사또’는 탐관오리의 전형적 인물로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을 의미하는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어울린다.

| 오답 풀이 | ①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본관 사또’가 위정자의 힘을 빌려 위세를 부리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이라는 의미이다. 이 글에서 ‘본관 사또’는 백성들을 착취하여 호화롭게 지내고 있는 인물이므로 이 한자 성어를 통해 ‘본관 사또’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무위도식(無爲徒食)’은 ‘하는 일 없이 놀고먹음.’이라는 의미이다. 이 글에서 ‘본관 사또’는 일을 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학정을 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인물에 해당하므로 이 한자 성어를 통해 ‘본관 사또’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혹세무민(惑世誣民)’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본관 사또’가 백성들을 속이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명관(名官)은 ‘정치를 잘하여 이름이 난 관리’라는 뜻으로, ㉔에서 서술자는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하여 ‘저 사령’을 ‘명관’이라고 반어적으로 비꼬며 비판하고 있다.

04 ㉔는 ‘어사또(몽룡)’가 속으로 하는 말로, ‘본관 사또’를 벌하겠다는 ‘몽룡’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다. 이는 앞으로 ‘본관 사또’가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05 ‘운봉 영장’은 걸인이 지은 한시의 내용을 보고 걸인이 ‘어사또’임을 눈치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본관 사또’의 모습과 ‘운봉 영장’이 대조되면서 ‘본관 사또’의 어리석음이 더욱 부각된다.

06 이 한시의 주제는 백성을 돌보지 않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으로, 이와 관련 있는 한자 성어는 ‘가렴주구(苛斂誅求)’나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이다.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혹독한 정치의 폐가 큼을 이르는 말이다. 참고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일어날 때 쓰는 한자 성어이다.

07 ‘어사또’가 상을 받길로 탁 차 던지는 행동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탐관오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한 행동이다. 이를 통해 양반의 겉과 속이 다름을 비판하고자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8 서술자의 개입이란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서술 방식을 말한다. 제시된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장면을 극대화하여 서술하였다.

09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본관 사또’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말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본관 사또’가 암행어사 출두 사실을 알고 숨으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이 작품은 어사출두 장면을 기준으로 전후의 상황이 반전되고 작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어사출두 장면에서는 ‘어사또’가 ‘변 사또’를 포함한 탐관오리들을 징벌하고 있는데, 도망가고 벌을 주는 장면이 긴박하게 그려지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11 **새술형**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하여 암행어사 출두 장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라고 썼다.	☐

12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을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草木禽獸)인들 아니 떨랴.’라고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해학적 표현이 아니라 암행어사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13 ㉔에서는 열거와 대구, 과장의 방식으로 장면을 극대화하여 해학적인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은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몽룡’이 ‘본관 사또’를 벌하는 것은 ‘어사또’라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회와의 갈등을 겪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꼭꼭 짚어보기 **소단원 평가 문제**

01 ④ 02 ⑤ 03 ③ 04 ② 05 혈(血), 고(膏) 06 ③
07 ② 08 ⑤ 09 ④ 10 ④ 11 당시 조선의 신분 제도가 혼
들리고 있었다. 12 ③ 13 ② 14 ⑤ 15 ① 16 ② 17 ③
18 ⑤ 19 비단잉어 20 ④

15 ‘어사또’는 ‘춘향’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춘향’의 마음을 떠보며 시험한다.

16 **새술형**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어미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說話)하라.’에는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데, 서술자가 춘향 어미인 ‘월매’가 즐겁게 한 말들을 자세히 보여 주지 않고 생략하여 서술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어미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하라.’라고 썼다.	☐

17 수청을 들라 하는 ‘어사또’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춘향’이 ‘어사또’와 관리들을 ‘명관(名官)’이라고 반어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며 비꼬는 상황이다.

18 ④ ‘가을이 들어’는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쓰여 ‘본관 사또’의 학정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맥락적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계절적 배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참암절벽 높은 바위와 ‘청송녹죽 푸른 나무’는 모두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비유한 표현이다.

② ‘바람’과 ‘눈’은 ‘춘향’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③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춘향’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몽룡’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의 마음이 담겨 있다.

⑤ ‘이화춘풍(梨花春風)’은 ‘봄바람’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몽룡’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19 임금이 ‘춘향’에게 ‘정렬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림으로써 ‘춘향’은 기생에서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신분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20 이 작품을 통해 작품이 창작될 당시 조선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고 있었으며, 여인의 정절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부패한 관리가 있어 이를 감찰하는 벼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경제력을 인정받는 평민은 등장하지 않는다.

21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작품의 표면적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과 여성의 굳은 정절이지만, 숨겨진 이면적 주제는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난 인간의 평등 의식,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저항과 비판이다. 양반의 위선을 풍자하는 것은 이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22 ‘춘향’은 남원을 떠나기 전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시로 나타냈다.

23 **새술형** 이 작품은 주인공들이 사랑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내용의 결말을 보여 준다. 즉, 고전 소설의 일반적 결말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결말의 특징을 보인다.

01 「춘향전」의 서술자는 작품 외부에 있는 인물로,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02 ‘몽룡’이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여 시를 짓겠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이는 푸대접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고, 학정과 사치를 일삼는 ‘본관 사또’를 비판하기 위해 시를 지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이 작품은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징벌을 암행어사 출두라는 현실성 있는 요소로 드러내고 있다. 비현실적인 요소를 통해 독자의 긴장감을 풀어 주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라)는 암행어사 출두를 앞둔 장면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이다.

04 한시를 지은 ‘어사또’나, 비판의 대상인 ‘본관 사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거나 심화되지는 않는다. 다만, ‘어사또’가 한시를 지은 이후에 어사출두를 하면서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05 **새술형**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삶을 나타내는 ‘주(酒, 술)’, ‘효(肴, 안주)’와 대비되는 백성들의 힘겨운 삶을 나타내는 한자어는 ‘혈(血, 피)’, ‘고(膏, 기름)’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에 해당하는 말을 [A]에서 찾아 썼다.	☐
해당하는 말을 모두 찾아 썼다.	☐

06 ㉠은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과 대조되는 ‘본관 사또’의 화려한 생일잔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07 ㉡은 사람의 가슴을 구성하는 뼈를 가리키는 말인 ‘갈비(뼈)’와 음식 이름인 ‘갈비’의 음이 같다는 점을 이용한 해학적 표현이다.

08 「춘향전」은 열녀 설화, 신원 설화, 관탈 민녀 설화, 염정 설화, 암행어사 설화 등 다양한 근원 설화에서 유래하지만 인신 공희 설화에서 유래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인신 공희 설화」는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의 설화로, 「심청전」의 근원 설화 중 하나이다.

- 1 | 오답 풀이 | ① ‘염정 설화’는 남녀의 사랑을 다룬 설화이다.
 ② ‘열녀 설화’는 여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절을 지키는 내용의 설화이다.
 ③ ‘신원 설화’는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한을 풀어 주는 내용의 설화이다.
 ④ ‘관탈 민녀 설화’는 하층민 여인이 지배층에 맞서 정절을 지켜 내는 내용의 설화이다.

09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 등장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일반적 특징이 아니라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한다. 또한 이 작품에서 ‘어사또’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 1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어사또’가 부하들과 내통하는 모습과 (나)에서 수령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열거와 대구를 활용하여 온 울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② (나)에서 ‘본관 사또’가 겁에 질려 숨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하고 있다.
 ③ (나)에서 수령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당대 부패한 관리들의 모습을 풍자하였다.
 ⑤ (가)와 (나)에서 장면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하여 장면을 극대화하였다.

10 (다)에서 ‘춘향’은 ‘어사또’인 ‘몽룡’을 알아보지 못하고,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또’를 비꼬며 끝까지 자신의 절개를 지키려 했다.

- 1 | 오답 풀이 | ① 관리들은 어사출두를 예감하지 못하여 어사출두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있다.
 ② ‘몽룡’은 ‘춘향’이 이미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몽룡’이 ‘춘향’을 심문하여 ‘춘향’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본관 사또’는 어사출두 전까지 ‘몽룡’이 ‘어사또’임을 알아채지 못한다. ‘춘향’을 올리라고 부당한 것은 술주정을 부리는 모습이다.
 ⑤ ‘춘향’은 ‘몽룡’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려 하고 있다.

11 **서술형**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의 아들인 ‘몽룡’이 서로 사랑하여 혼인했다는 것에서 당시 조선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당시 조선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내용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2 ㉠의 ‘저 불속’은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관리들이 혼이 나고 있는 현장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은 암행어사가 출두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공방의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언어유희는 말을 사용하여 즐기는 놀이로 판소리 등의 평민 문학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다. ㉠에서 활용된 표현은 ‘수절’과 ‘정절’이라는 단어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언어유희적 표현을 한 것이다.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한다.

14 (다)에서 ‘유자’가 비단잉어들의 죽음에 대해 묻는 ‘총수’의 질문에 ‘고꺾이 들었다’고 말하며 탄청을 피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비단잉어들이 죽은 원인을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

15 (가)는 ‘운봉 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고 지고.”’에서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고, (다)는 ‘뿔어낸뽕뽕’, ‘차에코폴구싫어’에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6 ‘어사또’가 여러 벼슬을 다 지내고 퇴임한 것은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인 행복한 결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는 주제 의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 | 오답 풀이 | ① ‘어사또’가 ‘본관 사또’를 벌하는 것은 학정과 사치를 일삼던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이자 ‘춘향전’의 주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③ 기생의 딸인 ‘춘향’이 ‘정렬부인’으로 봉해지며 양반의 신분이 된 모습을 통해 당대 민중들이 신분 상승을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춘향전’의 주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④ 양반의 아들인 ‘몽룡’과 기생의 딸인 ‘춘향’이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당대 민중들이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바랐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춘향전’의 주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⑤ 신분 차이가 나는 ‘춘향’과 ‘어사또’의 관계를 임금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통해 당대 백성들이 신분제를 벗어난 평등한 세상을 소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난 인간의 평등을 ‘춘향전’의 주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17 ㉠은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다가 죽을 위기를 겪은 ‘춘향’이 천신만고 끝에 사랑을 이뤄 남원을 떠나는 장면에서 지은 시의 일부이다. 흥겨운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아쉬운 감정이 나타난다고 해야 적절하다.

18 (다)의 서술자는 ‘나’이고, ‘나’는 ‘유자(그)’가 겪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즉, (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일부 전지적 작가 시점을 혼용해 서술하고 있다.

19 **서술형** ‘총수’가 비싼 가격으로 산 비단잉어는 ‘총수’의 사치스러움과 허영, 물질만능주의적 의식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에서 찾아 '비단잉어'라고 썼다.	☐

20 '유자'는 비단잉어가 수입 고기라서 못마땅해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의 회사 직원의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비단잉어 한 마리 사지 못할 정도로 상식 밖의 비싼 몸값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유자'는 비싼 비단잉어를 사들인 사치스러운 '총수'의 행동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② '유자'는 비단잉어의 죽음에 대해 묻는 '총수'에게 비단잉어가 고뿔이 들었다는 엉뚱한 말을 하며 탄침을 피우고 있다.

③ '뱀어낸벤또', '차에코폴구싶어'에서 언어유희적 표현이 드러난다.

⑤ '유자'는 '총수'의 집에서 사들인 비단잉어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고난도 **업** 소단원 심화 문제

본책 088~089쪽

01 ② 02 ② 03 ④ 04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백성들의 징벌
05 ⑤ 06 ④

01 (가)~(마)는 부정적 대상인 탐관오리들과 '본관 사또'가 겁에 질려 달아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고, (바)는 언어유희적 표현과 능청스러운 말투 등을 활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부정적 대상인 '총수'를 비판한다. 이처럼 (바)에는 (가)~(마)처럼 한국 서사 문학의 해학과 풍자적 특징이 나타난다.

| 오답 풀이 | ① (가)~(마)와 달리 (바)는 장면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③ 판소리 사설의 운문체로 리듬감 있게 서술한 것은 (가)~(마)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④ 사실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⑤ (가)~(마)와 (바)는 모두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지만, 그러한 점이 한국 서사 문학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2 이 작품은 암행어사가 나타나 탐관오리를 벌하는 등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당대 민중들의 울분을 해소해 주었다.

| 오답 풀이 | ① '춘향전'은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로도 재구성되어 전해지고 있다.

③ 학정을 일삼는 지배층을 상징하는 '본관 사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춘향'은 저항하고, '몽룡'은 그러한 '본관 사또'에게 벌을

내린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주체적인 의식이 성장한 민중들의 지배층에 대한 저항 의식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춘향전'은 구전 설화에서 시작되어 판소리 '춘향가'를 바탕으로 기록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⑤ '춘향전'의 공간적 배경은 전라도 남원 일대이다. 당대의 많은 소설들이 중국을 배경으로 삼은 것에 비해, '춘향전'은 우리나라의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삼은 것에서 그 문학적 의의가 있다.

03 (라)에서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언어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로 '본관 사또'를 희화화하고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등을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名官)인가.'는 '저 사령'이 명관이 아니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서술자가 직접 등장 인물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② '몽룡'이 지은 한시는 '본관 사또'의 가혹한 정치를 비판하며 '춘향전'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앞으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③ 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을 열거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⑤ '춘향'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名官)이로구나.'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또'에게 냉소적인 태도로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수청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04 **서술형** '본관 사또'와 같은 부패한 관리를 징계하기 위해 '몽룡'이 어사출두를 하는 내용을 통해 당시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징벌이 '춘향전'의 주제 의식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작품의 어사출두 부분에 나타나는 의미를 바탕으로 썼다.	☐
명사로 끝맺음을 하여 썼다.	☐

05 '춘향'과 '몽룡'의 사랑은 청춘 남녀의 사랑으로 시대를 초월해 대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자 가치이다. 또한 '본관 사또'와 같은 힘 있는 권력자를 징벌하는 모습은 악인을 징계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통쾌함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면들이 '춘향전'이 시대를 넘어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ㄱ. '춘향전'이 실존 인물을 등장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ㄴ. '춘향전'은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결말인 권선징악(勸善懲惡)과 행복한 결말을 따르고 있다.

06 (바)는 서술자인 '나'가 3년 4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 겨우 한 마리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싼 비단잉어를 여러 마리 사들여 연못에 둔 '총수'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01 ② 02 ⑤ 03 울림소리인 ‘ㄹ’과 ‘ㅇ’ 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경쾌한 느낌을 준다. 04 ④ 05 ④ 06 ① 07 ③ 08 ⑤ 09 ⑤ 10 ④ 11 ⑤ 12 ③ 13 ① 14 ② 15 ⑤ 16 ③ 17 소극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낙월’에 비해 ‘구준비’는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18 ⑤ 19 ④ 20 ③ 21 ③ 22 열거와 대구의 방법으로 장면을 극대화하였다. 23 ③ 24 ③ 25 ① 26 ⑤ 27 ‘유자’는 능청스러운 말투로 ‘총수’의 허영심을 비꼬며 풍자하고 있다.

01 3연에서 화자가 ‘물 아래 가던 새’를 보는 것은 화자가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02 4연의 ‘나즈(낮)’는 화자의 고독과 외로움이 ‘바크(밤)’보다는 덜하지만, 그렇다고 화자의 고통이 해소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를 고려 말 유랑민으로 본다면 3연의 ‘가던 새’는 속세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가던 농토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화자를 유랑민으로 본다면 1연의 ‘청산’과 6연의 ‘바루래’는 현실적 삶의 공간이 아니라 도피의 자연 공간일 수 있다.

③ 화자를 실연한 사람으로 본다면 3연의 ‘잉 무든 장글란’은 ‘이끼 묻은 은장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를 실연한 사람으로 본다면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은 실연의 아픔이다. 따라서 8연의 ‘설진 강수’는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

03 **새술형**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는 울림소리인 ‘ㄹ’과 ‘ㅇ’ 음이 반복되어 경쾌한 느낌을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사용된 음운을 고려하여 어떤 느낌을 주는지 썼다.	☐

04 ‘물 아래’는 의미적으로 ‘청산’이나 ‘바루래’와 대비되는 속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물 아래’ 가던 새를 보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을 표현하는 것이지 비현실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살어리(3)v 살어리(3)v랏다(2)v 청산(靑山)에(3)v 살어리(3)v랏다(2)’로 3음보 3·3·2조의 율격을 보여 준다.

②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말로, 운율을 형성하고 노래의 흥을 돋우는 후렴구이다.

③ ‘새’가 우는 것을 통해 화자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면서 울고 싶은 자신의 감정을 ‘새’에 이입하고 있다.

⑤ ‘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하는 동시에 화자의 비애를 일으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05 (다)는 농민의 하루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바쁜 농촌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유를 표현하고 있다.

06 (가)의 자연은 속세와 떨어져 화자가 좋아하는 자연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이고, (다)의 자연은 땀나뭇을 구해 오는 삶의 공간이다.

| 오답 풀이 | ② (가)의 화자는 자연과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자연을 삶과 분리하여 보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를 종속의 관계라 보기는 어렵다.

③ (가)의 자연이 물아일체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다)의 자연이 안빈낙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가)의 자연은 화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이지만, (다)의 자연이 화자에게 힘겨움을 느끼게 하는 곳은 아니다. 노동하는 삶의 현상이지만 화자는 그 가운데 흥겨움을 느끼는 삶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⑤ (가)의 자연은 세속적 이해가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탈속의 공간이고, (다)의 자연도 자연 친화적인 삶이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노동하는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07 (가)의 화자는 중장에서 초려 삼간에 들어가 있는 달, 청풍을 보고 있다가, 중장에서 방에 들일 수 없는 강산을 멀리 두고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

08 (나)는 기녀인 황진이(黃眞伊)의 시조로 섬세하고 우아한 어조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의 화자는 임 없이 보내는 외로운 겨울밤을 잘라 두었다가, 임과 함께 지내는 밤에 꺼내어 그 밤을 길게 늘리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즉, (나)의 화자는 ‘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여, 그리운 임이 오는 날 임과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09 (가)는 4음보의 율격을 보이지만 (나)는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보이므로 (가)와 (나)는 음보율에 있어 차이가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조선 시대 중기에 창작된 가사 작품이다. (나)는 1920년대 작품이다. (다)는 정확한 창작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선 시대 후기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 후기 작품으로 추측하고 있다.

② (가)는 두 명의 화자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이미 임과 이별한 상황이고, (다)는 이별했던 ‘춘향’과 ‘몽룡’이 재회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나)는 ‘임’과 이별한 상황을 가정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다)는 판소리계 소설로,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어미 들어 와서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 다 설화(說話)하랴’와 같이 판소리 사설체가 드러난다.

- 10 (나)의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슬프더라도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가)의 화자에게도 임에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이 사정이 있어서 화자를 버렸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② (나)의 화자는 아직 임과 이별하지 않았으며 (나)의 화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알 수 없다.

③ (가)와 (나)의 화자가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나)에서는 화자와 임의 거리가 나타나 있지 않고, (가)에서는 화자가 있는 곳과 임이 있는 곳 사이의 거리가 꽤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가’에서 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나저제나 자신을 신임하는 임금의 부름이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정철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이 다시 자신의 충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 따르면 정철은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한 후, 임금인 선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을 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의 ‘남’은 선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벽옥경’은 옥황상제가 산다는 곳이므로, <보기>와 연결 지어 보면 ‘벽옥경’은 임금이 사는 한양의 궁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여인 2’는 현재 임과 이별한 상황이므로, 임이 자신을 보며 너로구나 여기시며 사랑을 주었던 때는 과거라고 할 수 있다. <보기>와 연결 지어 보면 이는 정철이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여인 2’는 자신의 지은 죄가 산갈이 쌓였다고 하며 이별의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보기>와 연결 지어 보면 임금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는 충신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12 ㉠은 (가)에서 ‘여인 1’의 말로, ‘여인 1’은 보조적 위치의 화자로 ‘여인 2’의 하소연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④ ‘여인 2’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여인 2’는 (가)의 중심 화자로,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주제를 드러낸다.

⑤ ‘여인 1’과 ‘여인 2’ 모두 무관한 설명이다.

- 13 (나)의 1연에서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2연에서는 ‘진달

래꽃’을 뿌리며 떠나는 임을 ‘축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3연에서는 화자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밟고 가라는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4연에서는 인고의 자세를 통해 이별의 정한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14 ‘감탄고토(甘呑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脾胃)에 따라서 사리(事理)의 옳고 그름을 판단(判斷)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춘향’이 겪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말로, 위기 끝에 다시 사랑을 얻은 ‘춘향’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③ ‘구사일생(九死一生)’은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춘향’이 겪은 죽을 위기와 ‘몽룡’과의 재회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이다.

④ ‘전화위복(轉禍爲福)’은 재앙(災殃)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福)이 된다는 말로, ‘춘향’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말이다.

⑤ ‘길흉화복(吉凶禍福)’은 길흉(吉凶)과 화복(禍福)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춘향’이 겪은 위기와 ‘몽룡’과의 재회를 모두 아울러 이룰 수 있는 말이다.

- 15 ㉡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적 서술로, 판소리 창자가 관객과의 소통에 직접 참여하듯이 소설 속에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부분을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참고로, 특정 장면을 구체화하여 부연하고 장황하게 서술하는 것은 장면의 극대화라고 한다.

- 16 (가)~(다)는 모두 현재 함께 있지 못하는 임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다)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② (나)와 (다)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나)와 (다)는 수미상관식 구조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④ (다)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다)는 4연에서 ‘그대여’라고 임을 직접 호명하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⑤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가)는 죽어서라도 임 곁에 가고 싶은 그리움을, (다)는 임을 잊는 것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 17 **❖ 서술형** ‘낙월’은 지는 달로, 임이 계신 곳을 멀리서 잠깐만 비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임에 대한 사랑을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반면에 ‘구준비’는 임의 옷을 적시며 임의 가까이에서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따라서 소극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낙월’에 비해 ‘구준비’는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쓸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사랑을 표현하는 화자의 태도 차이가 나타나도록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8 ㉠ ‘우리들의 사랑을 함께 하리’는 앞선 행인 ‘어느 겨울인들’과 연결되며, ‘겨울’과 같은 현실적 시련의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사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즉, 현실적 시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이겨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19 4연에서 ‘그대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별 후 멀어져 가는 입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 전반적으로 사랑과 이별의 힘겨움을 강조할 뿐 ‘그대’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 이 작품의 주된 갈등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이다. 즉, ‘몽룡’과 ‘본관 사또’ 그리고 ‘춘향’과 ‘본관 사또’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21 (가)와 (나)에서는 ‘어사또’가 ‘본관 사또’를 포함한 탐관오리의 잘못을 한시를 통해 비판하고, 본관 사또를 징계하기 위해 어사출두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은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징벌’이라고 할 수 있다.

22 **새술형** ㉠은 ‘운봉 영장’이 어사출두를 예상하고 관리들을 단속하는 장면이다.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단편적인 내용을 확장하고 부연하여 장면을 극대화함으로써 구체성과 현장감을 높이고, 해학적인 표현 효과를 거두는 ‘장면의 확대’ 방식의 서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부분에 사용된 두 가지 표현 방법은 열거와 대구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활용된 표현 방법 두 가지를 포함하여 썼다.	☐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상 특징을 고려하여 썼다.	☐

23 ㉢에서는 탐관오리의 사치로 인해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있는 한자 성어로는 ‘가렴주구(苛斂誅求)’나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등이 있다.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라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4 (가)는 수령들이 도망치는 모습과 ‘본관 사또’가 숨어서 말실수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고, (다)는 충청도 사투리로 표현된 ‘유자’의 능청스러운 말투와 비속어 표현 등을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서사 문학에는 해학적 특징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사투리를 사용한 해학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다)에 해당한다.

② (나)에서 ‘춘향’이 ‘어사또’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당대 암행어사를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④ (다)에서는 ‘유자’를 통해 ‘총수’의 물질만능주의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으며 소시민적 의식을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에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는 나타나지 않으며, (다)에서 대상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는다.

25 ㉠은 서술자가 아니라 공방이 한 말이다.

| 오답 풀이 | ② 판소리 사설체의 문체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허둥대는 관리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③ ‘춘향’은 ‘어사또’의 수청 요구에 기막혀 하며 ‘명관(名官)’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어사또’를 비판하고 있다.

④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몽룡’을 원망하는 ‘춘향’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⑤ ‘본관 사또’의 횡포로 ‘춘향’이 죽게 된 상황을 표현한 말이다.

26 ‘그는 비위가 상해서’와 같이 서술자가 ‘유자’의 심리를 드러낸 부분은 있지만, ‘총수’의 심리를 드러낸 부분은 없다.

| 오답 풀이 | ① ‘유자’는 충청도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장감과 생동감이 드러난다.

②, ③, ④ (다)는 비속어, 언어유희적 표현, ‘유자’의 능청스러운 말투 등을 통해 웃음을 불러일으키고 ‘총수’를 풍자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27 **새술형** ‘유자’는 능청스러운 말투로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이라 하여 ‘총수’를 비아냥거리고 ‘새끼’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해 값비싼 물고기를 사들여 애지중지하는 ‘총수’의 모습을 비꼬며 ‘총수’의 허영심을 비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풍자의 대상을 밝혀 썼다.	☐
[A]를 말하는 사람의 말투의 특징을 밝혀 썼다.	☐

3. 생각하고 표현하는 우리

01 영화 「업(UP)」 비평문

◆ 문제로 확인

본책 102~105쪽

01 ① 02 ⑤ 03 ⑤ 04 삼등신에 가깝게 머리를 크게 그림으로써 만화적이고 정감 어린 인물의 느낌을 강조하였고, '칼'과 '러셀'의 외모를 대비시켜 흥미를 배가하였다. 05 ② 06 ⑤ 07 무수한 풍선을 매달고서 창공에 둥실 떠 있는 작은 목조 이층집 08 ①

01 이 글에서는 영화 「업」의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가운데-(나)'에서는 인물과 배경을 형상화한 방법에 대한 분석이 드러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이 글이 영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글인 것은 맞지만, 작품이 지닌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처음-(가)'에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영화의 가치가 아니라 영화 「업」의 첫 부분에 대한 소개이다.

③ 이 글에서는 특정 장면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가운데-(가)'에서 영화 「업」이 애니메이션 본유의 영역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라고 하며 작품에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영화로서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애니메이션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운데-(가)'에서 영화 「업」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의 경험과 관련하여 줄거리에 담긴 의미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2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영화 「업」의 시작 장면을 소개하여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그는 다시 꿈꿀 수 있을까. 꿈을 향해 이제라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라고 하여 질문 형식의 문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질문은 영화의 내용을 환기하며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효과를 준다.

③ 영화의 시작 장면에 대한 필자의 감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관객의 감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영화의 대사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가운데-(가)'에서 '칼'과 '러셀'이 신비의 폭포를 향하는 여정은 기분 좋은 웃음을 잃지 않아 관객을 즐겁게 한다고 하였다.

04 **새술형** 이 글의 필자는 영화 「업」에 나타나는 캐릭터 디자인은 머리를 크게 그려 만화적이고 정감 어린 인물의 느낌을 강조하고, '칼'과 '러셀'의 외모를 대비시켜 흥미를 배가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인물을 삼등신에 가깝게 그려 만화적이고 정감 어린 느낌을 강조했다고 썼다.	☐
'칼'과 '러셀'의 외모를 대비시켜 흥미를 배가하였다고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5 비평문을 읽는 데 있어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활용해 필자의 관점과 비교하거나 비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을 완전히 배제하고 읽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 참고 자료

매체 비평 자료의 수용

매체 비평 자료	매체 자료를 비평한 사람이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한 내용이 담김.
----------	--



-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음.
- 자신의 비평과 비교하며 시야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음.

06 필자는 영화 「업」에서 수없이 많은 풍선들이 일시에 부푼 후 마침내 집이 두둥실 천천히 떠올라 비행할 때의 우아한 리듬이 빠르게 휘몰아치기만 하는 오늘의 허다한 오락 영화들이 결코 체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침내 집이 떠오르는 장면에서 빠르게 휘몰아치는 리듬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필자는 영화에 사용된 서정적이면서 내향적인 음악이 극에 절묘하게 어울린다고 하였다.

②, ③ 필자는 영화 「업」의 우아한 리듬이 빠르게 휘몰아치기만 하는 오늘의 허다한 오락 영화들이 체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④ 세상을 떠나 그 여행에 동행할 수 없었던 '칼'의 아내 '엘리'는 반복되는 테마 음악을 통해 강력하게 상기됨으로써 그 여정에 내내 함께한다고 하였다.

07 **새술형** '가운데-(라)'에서 「업」이 그려 내려는 세계는 '무수한 풍선을 매달고서 창공에 둥실 떠 있는 작은 목조 이층집의 이미지'에 또렷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무수한 풍선을 매달고서 창공에 둥실 떠 있는 작은 목조 이층집'을 찾아 썼다.	☐

08 이 글의 필자는 영화 시사회에서 받은 빨간 풍선을 집에 가지고 돌아와 꽃병에 꽂으며 어린 날의 꿈을 떠올린 경험으로 글을 마무리함으로써 영화가 주는 가치를 환기하고 있다.

01 ⑤ 02 ⑤ 03 ④ 04 ③ 05 ④ 06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 07 ⑤ 08 ② 09 ⑤ 10 ④ 11 ⑤ 12 영화와 관련된 필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영화의 가치를 환기(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3 ⑤ 14 ②

01 이 글은 영화 「업」이란 매체 자료를 비평한 비평문이다. 매체 비평 자료에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오답 풀이 | ①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②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시에 대한 설명이다.

④ 전기문에 대한 설명이다.

02 매체 비평 자료를 수용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해석에 대한 정보의 '양'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얼마나 타당하고 논리적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단순히 해석에 대한 정보가 많거나 적은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체 비평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 본질적인 태도가 아니다.

참고 자료

매체 비평 자료의 비판적 수용

공정성	필자가 공정한 관점에서 매체 자료를 비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함.
타당성	필자가 비평한 내용의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봐야 함.

03 이 글의 (가)에서는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을 이야기하는 영화의 시작 장면을 소개하여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ㄷ). 또한 '그는 다시 꿈꿀 수 있을까. 꿈을 향해 이제라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라고 질문 형식의 문장을 제시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ㄴ).

| 오답 풀이 | ㄱ. 전체 줄거리가 아니라 영화의 시작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ㄹ. 영화의 시작 장면에 대한 필자의 감상만 드러나 있다.

04 “칼”은 이웃의 여덟 살 소년 “러셀”이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우연히 그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는 문장을 통해 “칼”이 “러셀”과의 여행을 계획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칼”은 아내 “엘리”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꿈꾸던”을 통해 “칼”과 “엘리”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하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괴팍한 노인인 호기심 많은 소년이 말하는 개와 거대한 희귀 새를 만나 신비의 폭포를 향해 가는 이 여정”을 통해 “칼”의 여행에 “러셀”, 말하는 개, 거대한 희귀 새가 동행함을 알 수 있다.

④ “꿈과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 본유의 영역에 가장 충실한”과 “기분 좋은 웃음을 시종 잃지 않아 관객을 즐겁게 한다.”를 통해 관객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장면과 꿈을 향한 여정과 모험이 담겨 있는 영화임을 알 수 있다.

⑤ “칼”은 아내 “엘리”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꿈꾸던 남미의 파라다이스 폭포에 끝내 가지 못하고 세상을 뜨자, “본격적으로 파라다이스 폭포로 가려던”을 통해 “칼”이 파라다이스 폭포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내 “엘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5 필자는 영화 「업」에 사용된 음악의 서정적, 내향적 분위기가 영화와 어울리며, 반복되는 ‘엘리’의 테마 음악이 ‘엘리’를 강력하게 상기한다고 하였다.

06 **새술형** (마)에서 필자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날아가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소망이 가장 화려한 색들을 지닌 풍선의 도움으로, 삶을 지탱하게 만들었던 소중한 기억 역시 낡은 집에 여전히 편안하게 깃들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마)를 바탕으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이라는 내용을 썼다.	☐

07 (바)에서 필자는 영화 「업」의 인상적인 장면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다. 영화의 초반부에서 ‘칼’과 ‘엘리’가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부터 ‘엘리’가 세상을 떠난 후 늙은 ‘칼’이 홀로 파란 풍선을 들고 귀가하는 순간까지 압축한 장면은 아름답으면서 쓸쓸한 잔상을 남겼다고 하였다. 또 후반부에서 안락의자에 앉은 ‘칼’이 공책 맨 뒷장에서 ‘엘리’가 쓴 문장을 발견하는 영화의 장면은 감동과 용기를 주며 정화와 고양의 순간을 빛낸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바)에서 필자가 꼽은 영화의 초반부와 후반부의 인상적 장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바)에서 필자가 꼽은 영화 초반부의 인상적인 장면에 해당하나, 필자가 비평한 내용과 맞지 않다. 필자는 이 장면에 대해 아름답으면서 쓸쓸한 잔상을 남겼다고 하였다.

08 이 글에서는 영화 「업」의 제작 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09 매체 비평 자료 제작 시 객관적인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를 평가해야 한다. 제작자의 관점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비평의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필자는 ‘애니메이션 「업」은 꿈과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 본유의 영역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

괴팍한 노인인 '칼'과 호기심 많은 소년인 '러셀'이 말하는 개와 거대한 희귀 새를 만나 신비의 폭포를 향하는 여정에서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아 관객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 머무르면서 떠나는 역설을 풍선에 매달린 집으로 시각화하였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주제가 아니라 떠나는 과정에서 과거의 추억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 아울러 필자가 ㉠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 또한 아니다.

② '칼'이 '엘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는 점에서 '칼'과 '엘리'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필자가 ㉠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

③ (가)에서 '칼'이 '엘리'가 세상을 떠나며 함께 꿈꾸던 파라다이스 폭포에 가지 못해 상심하고는 있지만, 필자가 ㉠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

⑤ '칼'이 파라다이스 폭포로 가려는 꿈을 마침내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필자가 ㉠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 또한 아니다.

- 11 (라)에서 필자는 '칼'이 공책을 넘기다 '엘리'가 쓴 문장을 발견하는 부분을 인상적 장면으로 꼽으며 비평하고 있는데, 이는 '필자의 경험'이 아니라 '인상적인 장면'이라는 비평 요소를 중심으로 비평한 것이다. 작품의 가치와 관련하여 필자의 경험을 떠올리는 부분은 (마)에 나타난다.

- 12 **새술형** 이 글은 (마)에서 영화와 관련된 필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영화의 감동적인 가치와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영화의 의미를 환기하는 효과를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필자의 경험'이라는 비평 요소를 썼다.	☐
영화 「업」이 필자에게 주는 영향을 밝혀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 13 매체 비평 자료에는 매체 자료를 비평한 사람이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매체 비평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 비평 자료를 살펴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매체 비평 자료를 제작한 제작자의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은 매체 비평 자료 수용의 효과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② 여러 매체 비평 자료를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체 비평을 함으로써 매체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여러 매체 비평 자료를 참조하여 매체 비평을 함으로써 자신의 시야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④ 다양한 매체 비평 자료를 살펴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14 매체 비평은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매체에 대해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모두 지닐 수 있으므로, 긍정적 관점에 편향해서 수용하겠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고난도 **업** 소단원 심화 문제

본책 110~111쪽

01 ② 02 ④ 03 ③ 04 무수한 풍선을 매달고서 창공에 둥실 떠 있는 작은 목조 이층집의 이미지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추억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꿈'이라는 영화가 그려 내려는 세계를 선명하게 시각화한다고 하였다. 05 ②

- 01 매체 비평 자료에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이 매체 비평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매체 비평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면 매체 비평 자료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공정한지 살펴야 한다.

③ 매체 비평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면 비평한 내용의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야 한다.

④ 매체 비평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매체 비평 자료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할 수 있다.

⑤ 매체 비평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필자와 나의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 02 <보기>에 제시된 매체 비평 자료 제작 과정은 매체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함이지, 상업적 성공 여부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다. ④는 비평의 본질적 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애니메이션 영화 「업」에 대한 비평문이므로, 매체 자료 선정 과정(가)에서 필자가 했을 생각으로 적절하다.

② 필자는 인물의 형상화 방법이나 사용된 음악,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등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분석 영역을 구체화하는 과정(나)에서 필자가 했을 생각으로 적절하다.

③ 필자는 초반부와 후반부에서 강력하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 차례의 장면을 언급하며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분석 과정(다)에서 필자가 했을 생각으로 적절하다.

⑤ 필자는 영화 「업」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들어 영화의 가치를 환기하고 있으므로, 매체 비평 자료 제작 과정(라)에서 필자가 했을 생각으로 적절하다.

03 <보기>에서 학생은 필자가 영화의 초반부와 후반부 장면을 인상적으로 꼽은 것과 달리 풍선이 달린 집이 처음 떠오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며 필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학생은 필자와 다른 자신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② 필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필자의 관점에 무비판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필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필자의 관점과 가치관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필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필자의 관점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04 **시술형** 필자는 「업」이 그려 내려는 세계는 무수한 풍선을 매달고서 창공에 등실 떠 있는 작은 목조 이층집의 이미지에 또렷이 함축되어 있다고 했다. 필자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비평 요소로 「업」이 그려 내려는 세계를 분석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필자의 비평 내용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5 <보기>에서는 비평문의 순환적 성격을 강조하며, 비평문이 비평 대상 텍스트 및 다른 비평문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고, 새로운 비평문 작성을 자극하거나 촉진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㉞는 '비평문이 일회적으로 완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새로운 비평문으로 재생산'되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의 '경호'가 언급한 '영화 속 인물들의 이름과 세부적인 줄거리를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의 정보를 전달받는 것으로, 비평문의 순환적 성격과 관계가 없다.

| 오답 풀이 | ① '채현'이 말한 독자가 다른 비평문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보다 확장된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은 <보기>의 ㉡에 드러나는 비평문의 상호 관계적 특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이해이다.

③ '경민'이 말한 비평문이 새롭게 읽히고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보기>의 ㉡와 ㉞에 드러나는 비평문의 순환적 성격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이해이다.

④ '정석'이 말한 자신의 비평과 비교하며 시야와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은 <보기>의 ㉡에서 다른 필자의 비평문 쓰기를 자극하거나 촉진하는 모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이해이다.

⑤ '효린'이 말한 매체 비평 자료를 통해 비판적 분석 방법을 익히는 것은 ㉡의 다른 필자의 비평문 쓰기를 자극하거나 촉진하는 모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이해이다.

02 복합양식으로 짜인 글과 자료

본책 114~119쪽

* 문제 확인

01 ③ 02 ③ 03 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부 참여가 저조하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4 ④ 05 ② 06 ① 07 ② 08 ⑤ 09 사람들이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다. 10 ③

01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함을 추론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통계청의 사회 조사 결과 기부를 경험한 사람이 2013년에 34.6퍼센트였지만, 2023년에는 23.7퍼센트로 크게 감소하여 10년 동안 약 11퍼센트포인트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②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도 조사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부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에서 '무관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④ '기부 단체에 대한 불신'도 기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였다.

⑤ 필자는 세계 기부 지수 순위 결과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142개국 중에 79위라 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라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기부 지수 순위가 각 나라의 기부에 대한 인식을 가능할 수 있는 자료라 판단할 수 있다.

02 ㉠은 세계 기부 지수 순위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의향과 기부 참여율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필자는 두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라지 못했다는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과 ㉡이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는 자료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은 영국 자선 지원 재단을, ㉡은 통계청을 출처로 하는 통계 자료이다. 이처럼 출처가 명확한 통계 자료는 객관적인 근거로 작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② 필자는 ㉠과 ㉡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 부족과 기부 참여가 낮은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세계 기부 지수 순위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을 통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경험과 기부 의향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참여율 및 기부 의향이 하락 추세임을 알 수 있다.

03 **새싹형** 필자는 우리나라의 세계 기부 지수가 조사 대상 142개국 중 79위임을 들며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라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부 참여가 저조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부 참여가 저조하다는 내용을 썼다.	☐
필자의 관점이 부정적임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이 글의 필자는 사람들의 기부 참여율을 높이려면 기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행동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 단체에서 기부 계획을 공개하고 익명의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받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적은 금액으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퍼네이션’은 ‘재미’와 ‘기부’를 결합한 단어로, 쉽고 재미있는 기부 방식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퍼네이션’의 예를 제시하며 무겁게 느껴지던 기부에서 벗어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③ 필자는 기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면 기부를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⑤ 필자는 우리가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05 이 글의 필자는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기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기부 방법들을 소개하며 기부 참여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필자가 소개하는 최근에 등장한 다채롭고 재미있는 기부 방식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우리나라의 기부 방식이다.

③ 필자는 우리가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여 기부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기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기부자들과 소통하며 기부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기부 단체들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기부 단체의 운영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기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이는 자발적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지, 기부 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06 ①은 기부 목적과 기부 목표치가 담긴 ‘크라우드 펀딩’의 예시 이미지로,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어르신들께 소화기를 기부해요!’라는 표어를 활용하여 기부의 대상이 노인이며, 기부 목적이 소화기 제공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기부자가 사진을 통해 기부한 사실을 인증하는 기부 방식은 ‘퍼네이션’의 예시이다.

④ ‘152명’은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현황을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⑤ ‘7,800,000’원은 152명이 기부에 참여하여 모인 기부 총액이다. 이는 적은 금액으로도 기부에 참여하여 기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07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폭염의 강도가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폭염의 강도가 심해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고 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50년에 한 번 있을 강도의 폭염이 지금은 산업화 이전 대비 다섯 배나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폭염은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도 발생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폭염이 이렇게 더 자주 강하게 일어나면 사회적 피해와 열사병 사망자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④ 이전 세대가 평생에 1~2번만 겪어도 됐을 폭염을 현재대는 5~10번 겪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현재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폭염이 주는 피해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폭염의 빈도는 8.6배로 늘어나며, 지금 추세대로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면 2030년대에 기온 상승 폭이 1.5도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온 상승 폭이 1.5도에 도달하는 2030년대에는 폭염의 빈도가 8.6배로 늘어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08 이 자료의 제작자는 기후 위기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드러내며 기후 위기가 미래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이 자료는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할 문제 상황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를 인류가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면 미래 세대가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제작자의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자료는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기후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가 양면성을 지닌다는 것은 제작자의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자료에는 이전 세대와 현재대가 갖고 있는 기후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전 세대와 현재대가 기후에 대

한 서로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제작자의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09 **📖** 이 자료는 이산화 탄소를 지금 추세대로 배출하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며 이로 인한 폭염을 미래 세대들은 더욱 자주 겪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를 바란다는 이 자료의 제작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산화 탄소'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썼다.	☐

10 아이가 어른에게 걸어가는 배경 사진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폭염을 겪게 되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현세대가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미래 세대가 기후 위기를 해결할 주역임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막대그래프를 활용하여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폭염의 빈도는 8.6배로 늘어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지구의 온도와 폭염의 빈도 사이에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폭염', '5배'와 같은 문자를 서체와 크기, 색깔을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 변화라는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배출되는 배경 사진과 함께 '지금 추세대로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면 2030년대에 기온 상승 폭이 1.5도에 도달한다.'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공장 굴뚝의 배경 사진은 이산화 탄소의 배출이 기후 위기의 원인임을 나타내기 위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⑤ 사람을 나타내는 기호가 방사형 구조로 확장되는 그림과 함께 '폭염이 이렇게 더 자주 강하게 일어나면 사회적 피해와 열사병 사망자 수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람을 나타내는 기호가 방사형 구조로 확장되는 그림은 기후 위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어날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꼭꼭 짚어볼까요?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120~123쪽

01 ⑤ **02** ③ **03** ③ **04** 무겁게 느껴지던 기부에서 벗어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05** ⑤ **06** ④ **07** ④ **08** ① **09** 기부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일상 속에서 가볍고 즐겁게 기부를 실천하기를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10** ② **11** 제작자는 폭염과 같은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기후 위기를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보고 있다. **12** ②

01 이와 같은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을 올바르게 수용하려면 비판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복합양식은 문자, 소리,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기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는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다.

② 이 글에는 기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부 참여가 저조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과, 기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기부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③, ④ 복합양식은 문자뿐만 아니라 소리,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매체 환경의 발달로 오늘날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02 이 글에서는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부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여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여기서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영국 자선 지원 재단에서 발표한 세계 기부 지수 순위나 통계청의 사회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이 낮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다.

② 세계 기부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42개국 중에 79위였다는 것과, 사회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자가 10년 동안 약 11퍼센트포인트 줄어 들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객관적인 근거로 작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인다.

④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경험 및 기부 의향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는 2023년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사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⑤ 세계 기부 지수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자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부 지수가 낮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03 <보기>의 독자가 떠올린 생각에 필자의 주장이 공정한지를 평가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참여율 감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는 관점을 평가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②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걸까?'는 의도를 평가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④ '정보의 출처인 영국 자선 지원 재단과 통계청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일까?'는 신뢰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⑤ '필자가 제시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 감소 추세는 논리적으로 타당할까?', '퍼네이션'과 같은 새로운 기부 방식이 실제로 기부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까?'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04 **📖** 필자는 (다)에서 ㉠에 대해 무겁게 느껴지던 기부에서 벗어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의미를 (다)에서 찾아 썼다.	☐

05 <보기>에서 독자는 사진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끌고 변화하는 기부 문화를 직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감성적 요소를 통한 독자의 몰입 유도가 아니라 이해에 도움이 되는 직관적 전달을 강조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③ 사진을 제시하면 독자들이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②, ④ 글로만 제시된 내용에 사진을 추가하여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변화하는 기부 문화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자는 것이므로, 복합양식을 활용해 글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6 이 글의 (나)와 (다)에서 필자는 최근에 등장한 다채롭고 재미있는 기부 방식을 소개하며 독자들이 기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부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최근 등장한 재미있는 기부 문화’와 ‘너도나도 하고 싶은 재미있는 기부’가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⑤ 필자는 ‘퍼네이션’과 같이 최근에 등장한 기부 방식이 무겁게 느껴지던 기부에서 벗어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는 새로운 기부 문화라고 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③ 세계 기부 지수 순위는 (가)와 관련된 것이며 이는 기부 참여율을 높이자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다.

07 이 글의 필자는 기부 단체의 변화를 언급하며 기부 단체가 이를 통해 기부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기부 단체의 변화가 기부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다)에서 기부는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고 기부를 하여 일으킨 긍정적 변화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온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며 대표적인 예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였다.

08 (가)에서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예시를 이미지로 보여 주어, 해당 개념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크라우드 펀딩’의 예시 이미지에 목표 금액과 달성 금액이 드러나 있을 뿐 기부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전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크라우드 펀딩’의 예시 이미지에 목표 금액을 넘은 달성 금액이 드러나 있는데, 이는 목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모인 것을 보여 줌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노인의 이미지를 제시한 것은 기부의 대상을 드러낸 것이다.

⑤ 기부자 수와 목표 금액, 달성 금액을 제시한 것은 ‘크라우드 펀딩’이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 기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09 **☞서술형** 필자는 사람들이 기부에 관심을 갖고 기부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자 이 글을 썼다. 필자는 특히 (다)에서 기부는 더 이상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일상 속에서 가볍고 즐겁게 기부를 실천하자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기부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부의 변화 양상이 드러나도록 썼다.	☐
기부 참여를 독려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도록 썼다.	☐

10 (나)에서 굴뚝 사진을 제시한 것은 이산화 탄소 배출이 기후 변화의 원인임을 드러내어 이산화 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는 산업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위해 산업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를 표현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서술형** 이 자료의 제작자는 폭염과 같은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기후 위기를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기후 위기를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도록 썼다.	☐

12 이 자료를 제작한 제작자는 사람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기후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굳이 대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 오답 풀이 | ① 이 자료를 제작한 제작자는 미래 세대가 겪을 위험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③, ④, ⑤ 이 자료를 제작한 제작자는 사람들이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지구 온도가 더 상승하지 않도록 실천할 방법을 찾거나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고난도 **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124~125쪽

01 ⑤ **02** ④ **03** 필자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부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4** ④ **05** ② **06** ⑤

01 (가)에서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도 조사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무관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기부 단체들이 기부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기부 단체 등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하였다.

③ (가)에서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이유는 기부 단체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자신이 기부한 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서 차라리 기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④ (나)에서 '퍼네이션'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02 기부자의 행복한 모습과 다양한 기부 방법을 나타내는 동영상은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기부가 즐거운 일임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부금 모금 내역 공개의 필요성은 동영상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 ①, ⑤ 일상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기부하는 다양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상을 통해 다양한 기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고, 기부가 어렵거나 부담스럽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독자가 기부에 더 쉽게 다가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② 동영상 속 기부자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통해 기부가 단순히 희생이나 의무가 아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③ 기부의 즐거움과 기부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상을 통해 독자들이 기부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필자의 의도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03 **시술형**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해 필자는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여기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기부 단체들도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부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해 필자가 긍정적 관점을 갖고 있음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4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과 자료에는 필자나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이를 올바르게 수용하려면 비판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③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⑤ 표현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05 이 자료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제작자는 폭염과 같은 기후 위기를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③, ⑤ 제작자는 현재의 기후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료를 제작했다.

④ 이 자료는 이전 세대보다 현세대가 폭염을 더 많이 겪을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심각해질 기후 위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제작자의 관점이 드러난다.

06 (마)의 막대그래프는 지구 온도 상승과 폭염 빈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폭염'이라는 문구와 불타는 지구 이미지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② (나)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다가올 기후 위기를 드러낸 것으로 이 글을 통해 이 수치가 과장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③ (다)의 노인 사진은 (라)의 아이 사진과 대비하여 이전 세대가 겪은 폭염 경험 횟수를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다)의 노인과 (라)의 아이는 모두 폭염이라는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기후 변화를 특정 세대에 국한된 문제로 볼 수 없다.

④ (라)의 아이 사진은 이전 세대와 비교해 현세대가 겪을 기후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03 함께 쓰는 보고서

꼭 짚어볼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127~129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⑤ 05 ② 06 ⑤ 07 ③ 08 ②
09 ③ 10 ③ 11 모둠 구성원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01 공동 보고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제나 대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쓰는 것이다. 독창적인 의견을 관철하는 것은 공동 보고서 작성의 의의와 맞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⑤ 공동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연결하고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화된 필자로 성장할 수 있다.

④ 공동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보를 종합하여 공동으로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02 공동 보고서 쓰기는 ‘주제 정하고 계획하기 - 목차 구성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작성하기’의 순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03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이 지닌 경험과 정보를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여 보고서 작성에 협력해야 한다.

04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최대한 많은 양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제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복합양식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답 풀이 | ①, ③ 다양한 매체에서 보고서 주제와 작성 계획에 맞는 자료를 찾고,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수집한 자료를 보고서의 형식과 목차에 맞게 조직해야 한다.

④ 정한 주제와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목차를 구성해야 한다.

05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모두 구성원의 역할을 정할 때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06 공동 보고서에 사용할 자료를 검토할 때는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신뢰성의 측면에서 자료에 과장, 축소, 왜곡된 내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므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과장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사용하려는 자료가 공동 보고서의 주제에 맞는 지 검토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③, ④ 사용하려는 자료가 믿을 만한 것인지 검토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07 이 공동 보고서에서는 ‘Ⅱ. 본문’에서 모두가 직접 진행하는 연구의 과정 및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Ⅰ. 머리말’에서는 연구 동기, 주제와 목적을 제시할 것이므로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Ⅱ. 본문’에서는 모두가 직접 진행하는 연구 내용을 제시할 것이므로 다양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Ⅲ. 맺음말’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거나 소감을 제시할 것이므로 예상되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Ⅲ. 맺음말’에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거나 소감을 제시할 것이므로 운동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공동 보고서의 주제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이므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결 방안보다는 실태와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08 (나)는 ‘케이비에스(KBS) 뉴스 누리집’을 출처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담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케이비에스(KBS) 뉴스 누리집’이라는 출처를 명시하고 있는 자료이다.

③ (다)는 신뢰성이 있는 기관인 ‘여성 가족부’의 자료이므로 출처를 신뢰할 수 있다.

④ (다)는 연도별, 연령별로 청소년의 신체 활동 여부를 조사한 자료이므로 특정한 의견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자료라 할 수 있다.

⑤ (나)와 (다) 모두 청소년의 운동 실태를 다루고 있는 자료이므로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보고서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09 목차의 ‘Ⅱ. 본문 - 3. 연구 과정’을 보면 모두가 직접 실시할 설문 조사 방법과 문항을 조직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운동과 관련하여 연구한 기존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다는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 이 그래프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의 한 문항을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은 총 178명이고, 설문 조사에 참석한 사람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75명이다. 따라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50퍼센트도 되지 못하므로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전체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설문 조사의 항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막대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② 조사 기간이나 설문 조사 문항을 변경하면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④ ‘매우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약간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75명 중 70명으로 약 93.3%이다.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75명 중 5명으로 약 6.7%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은 운동이 학습 시 집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의 자료에서는 운동이 학습 시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는데, 이 자료만으로는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라는 공동 보고서의 주제를 드러내기 어렵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할 때 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 등을 추가하여 연구 주제와의 연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11 **✎** **세술형** 보고서를 작성한 때는 협력적 태도로 의견을 조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수’는 친구들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의견 차이를 조율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공동 보고서를 쓸 때 지녀야 할 협력적 태도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서로 간의 차이를 조율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 참고 자료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태도

- 모둠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자신이 지닌 경험과 정보를 다른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
- 구성원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협력적 태도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고난도 **입** 모단원 심화 문제

본책 130~131쪽

01 ② 02 ② 03 (나)의 통계 자료에서 청소년 연령대인 13~18세 부분과 가장 최신 설문인 2020년 부분을 보고서에 활용하여 청소년 운동 부족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04 ⑤ 05 ③ 06 ③ 07 ⑤ 08 ③

01 (나)는 청소년들의 운동 실태에 대해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I. 머리말 - 1. 연구 동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우리나라 10대들의 생활 체육 참여율이 낮다는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I. 머리말 - 1. 연구 동기'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③ (가)와 (나)의 자세한 출처는 'IV. 참고 자료'에서 제시해야 한다.

④ (다)에서는 설문 조사 문항을 일부 제시하고 있는데, (다)의 또 다른 설문 조사 문항은 2번 항목처럼 그래프 등으로 결과값을 나타내어 보고서에 제시할 수 있다.

⑤ (다)의 막대그래프를 활용한 설문 결과는 'II. 본문 - 4. 연구 내용과 결과'에서 활용할 수 있다.

02 (가)는 국가 기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쓴 기사이므로 적절성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03 **새술형** (나)는 청소년의 운동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나)에서 청소년 연령대인 13~18세 부분과 가장 최신 설문인 2020년의 내용을 보고서에 활용하여 청소년 운동 부족 문제(운동 실태)를 드러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도별, 연령별 부분을 밝혀 썼다.	☐
자료가 보고서의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썼다.	☐

04 (다)의 막대그래프를 보면 운동이 학습 시 집중력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이지, 5퍼센트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설문 조사의 기간이나 인원을 늘리면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다.

② 설문 조사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복합양식 자료이다.

③ 운동이 학습 시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약간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학생이 75명 중 70명으로 대다수이다.

④ 설문 참여 인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78명 중 75명으로 50퍼센트가 되지 않는다.

05 공동 보고서에서는 연구 결과나 실험 데이터가 핵심이 되며, 전문가의 견해는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의 견해는 신뢰성을 높이거나 추가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기 어렵다.

➤ 참고 자료

보고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객관성	주관적이거나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담아야 함.
정확성	관찰, 조사, 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으며 그 내용과 결과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함.
신뢰성	사실에 근거한 정보, 자료 등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믿을 만한 자료를 사용해야 함.
체계성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과 결과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해야 함.

06 <보기>는 설문 대상자들이 제품의 정보를 얻는 매체의 비율을 글로 보여 주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원그래프는 각 항목에 대한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07 공동 보고서 초안을 검토할 때는 복합양식 자료를 내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08 <보기>에서 학생은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며 모둠 구성원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한 점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 협력하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는 역할을 나누는 데 이견이 있었지만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모둠장이 모둠 구성원들의 역할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끼리 의견을 나누며 역할을 정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둠장이 모둠 구성원의 역할을 잘 배분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는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의견 차이를 조율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견 차이를 조율할 때 자신의 입장을 관철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의 모둠 구성원들은 모둠 구성원들끼리 의견 차이를 조율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보다 구성원들 서로가 협력적인 태도로 양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었지만 이를 잘 해결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아예 이견이 발생할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32~137쪽

01 ① 02 ④ 03 ② 04 ④ 05 ③ 06 ③ 07 자신의 관점을 담아 매체 자료를 평가하고, 평가에 대한 근거를 든다. 08 ⑤ 09 ⑤ 10 ② 11 ④ 12 ③ 13 <보기>는 이 글의 (가)에 추가하기에 적합하다. <보기>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세계 기부 지수 순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 줄 수 있다. 14 ③ 15 ② 16 제작자는 폭염과 같은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기후 위기를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17 ① 18 ① 19 ⑤ 20 ② 21 ①

01 비평 자료는 필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평 자료의 근거가 타당한지, 공정한지를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수용해야 한다.

02 이 글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나)에서 본격적으로 파라다이스 폭포로 가려던 ‘갈’은 이웃의 여덟 살 소년 ‘러셀’이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우연히 그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04 (다)에서 영화의 서정적이면서 내향적인 음악은 극에 절묘하게 어울린다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 그 여행에 동행할 수 없었던 ‘갈’의 아내 ‘엘리’는 반복되는 테마 음악을 통해 강력하게 상기됨으로써 그 여정에 내내 함께한다고 하였다.

05 이 글은 ‘영화’라는 매체를 비평한 매체 비평문이다. 매체 비평문을 쓸 때는 매체 자료에 활용된 표현 방법이 매체 자료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분석하고, 매체 자료의 주제와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법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L. 매체 자료의 비평에서 제작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의도에 부합하도록 분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평에서는 제작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그 의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D. 필자는 매체 자료를 비평하며 자신의 분석적이고 주관적인 견해를 표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중의 반응도 참고할 수 있지만, 필자의 비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06 매체 자료를 분석할 때는 그 자료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어떤 효과를 낳는지, 제작자의 의도와 표현 방법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③은 매체 자료의 제작 과정에 대해 묻는 것으로 비평적 분석에 필요한 질문과 거리가 멀다.

07 **③** **③** 매체 비평 자료 제작하기의 과정을 고려할 때, 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담아 평가에 대한 근거를 들어 매체 자료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관점’과 ‘근거’라는 말을 넣어 평가의 과정에서 해야 하는 일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8 (마)에서 기부 단체들이 기부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부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기부 단체들의 변화를 언급하였지만, 기부 단체들의 이러한 변화가 기부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영국 자선 지원 재단에서 발표한 세계 기부 지수 순위와 통계청의 사회 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② (바)의 마지막 문장에서 청유형 문장을 통해 기부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③ 필자는 (다)와 (라)에서 최근에 등장한 기부 방식 중 ‘퍼네이션’과 ‘클라우드 펀딩’을 소개하고 (바)에서 기부를 실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필자가 다채롭고 재미있는 기부 방식,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방식을 소개한 것은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④ 필자는 (나)에서 ‘사람들의 기부 참여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은 후,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행동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09 이 글의 필자는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을 문제 상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통해 기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이 글에서 새로운 기부 문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10 <보기>는 2013~2023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경험 및 기부 의향’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보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참여율과 기부를 경험한 사람들의 통계청의 사회 조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가)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으로 믿을 만한 자료이다.

③ 꺾은선 그래프로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경험과 기부 의향의 추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 의향은 2023년에 2021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10년 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⑤ 기부 의향과 기부 참여율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11 기부 단체들의 설립 현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필자의 의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기부하지 않는 이유들을 원그래프로 제시하면 각 항목의 비중을 한눈에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② ‘퍼네이션’의 예시를 사진으로 제시하면 ‘퍼네이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③ ‘클라우드 펀딩’의 예시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클라우드 펀딩’이 어떤 내용의 기부 방식인지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⑤ (바)에서는 기부를 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부를 실천한 사람들의 인터뷰나 기부가 일으킨 긍정적인 변화를 다른 사례를 담은 동영상상을 활용하면, 기부의 의미를 보다 직접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

12 기부 문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 글에서 다른 내용과 거리가 있으며,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동영상에 넣는 것 또한 영상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맞지 않다. 영상은 빠르고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을 읽고 기부의 중요성을 자막으로 제시하는 것은 영상 제작의 의도와 부합하므로 적절하다.

② 기부 참여율의 변화를 ‘11퍼센트포인트 감소’와 같이 간단한 숫자로 시각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특성을 활용하여 주요 내용을 해시태그로 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부의 종류를 보여 주는 것은 기부를 독려하는 영상의 제작 의도를 강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서술형** <보기>는 세계 기부 지수 순위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해당 내용이 서술된 이 글의 (가)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기>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계 기부 지수 순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를 이 글의 어떤 부분에 추가할 수 있는지 썼다.	☐
<보기>를 추가했을 때의 효과를 썼다.	☐

14 이 자료에서는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폭염의 빈도가 잦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금 추세대로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면 2030년대에 기온 상승 폭이 1.5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을 뿐 그 기준의 근거를 1.5도로 잡은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폭염이 자주 강하게 일어나면 사회적 피해와 열사병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② 지금 추세대로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면 2030년대에 기온 상승 폭이 1.5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④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폭염의 빈도는 8.6배로 늘어났다고 하였다.

⑤ 2030년에 태어날 미래 세대들은 강한 폭염을 매년 1~2번씩 겪어야 한다고 하였다.

15 이 자료에서는 공장의 굴뚝에서 매연이 배출되는 모습을 배경으로 활용하여 이산화 탄소의 배출이 기후 위기의 원인임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지구 온도와 폭염 빈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막대그래프를 사용한 것이다.

③ 아이가 어른에게 걸어가는 모습은 미래 세대가 겪을 위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④ ‘매년 1~2번’을 자막으로 크게 넣은 것은 미래 세대가 겪을 기후 위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⑤ 사람을 나타내는 기호들이 방사형 구조로 확장되는 그림은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16 **서술형** 이 자료의 제작자는 폭염과 같은 기상 이변이 잦아지는 기후 위기를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기후 위기로 인해 미래 세대들이 겪을 어려움과 사회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제작자는 ~ 보고 있다.'의 형식으로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 17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보의 가치, 신뢰성을 판단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② 목차를 구성한 후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③ 수집한 자료를 보고서의 형식과 목차에 맞게 조직해야 한다.
 ④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모둠을 구성해야 한다.
 ⑤ 복합양식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료를 많이 활용하거나 적게 활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참고 자료

공동 보고서의 쓰기의 과정

주제 정하고 계획하기	-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모둠을 구성함. - 모둠 구성원들과 상의하여 보고서 주제를 정하고, 보고서 작성 계획을 세움.
목차 구성하기	모둠에서 정한 주제와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목차를 구성함.
자료 수집하기	다양한 매체에서 보고서 주제와 작성 계획에 맞는 자료를 찾고,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자료를 수집함.
내용 조직하기	수집한 자료들을 보고서의 형식과 목차에 맞게 조직함.
작성하기 (고쳐쓰기)	복합양식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고쳐 씀.

- 18 공동 보고서를 쓸 때에는 자신의 지닌 경험과 정보를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오답 풀이 | ② 구성원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력적인 태도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 ③, ⑤ 구성원의 경험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배분해야 하며 한 사람이 하나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출처가 명확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 19 목차를 살펴보면, '2. 연구 주제와 목적'에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연관성

분석' 항목이 있고, '4. 연구 내용과 결과'에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 실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분석'이라는 항목이 있다. 따라서 이 공동 보고서의 주제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20 머리말의 '2. 연구 주제와 목적'에서는 우리 모둠의 연구 주제와 목적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므로, 다른 모둠의 연구 주제와 목적을 비교하여 제시할 필요는 없다.

| 오답 풀이 | ① 머리말의 '1. 연구 동기'에서 청소년의 운동 참여율 하락을 다룬 뉴스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문제 상황을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본문의 '3. 연구 과정'에서 제시할 설문 조사 문항은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④ 본문의 '3. 연구 과정'에서 설문 조사 방법을 제시할 때는 설문 참여 인원, 조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⑤ 본문의 '4. 연구 내용과 결과'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참고 자료

보고서의 종류

조사 보고서	어떤 주제에 대해 문헌 찾기, 인터넷 검색, 면담,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쓴 보고서
실험 보고서	실험 계획과 과정을 기록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 그 내용을 쓴 보고서
관찰 보고서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뒤 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쓴 보고서

- 21 <보기>는 우리나라 10대의 운동 참여율이 낮다는 뉴스와 청소년의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실태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는 이 보고서 목차의 '1. 연구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4. 살아 숨 쉬는 국어와 매체

01 변화하는 국어와 매체

문제 확인

본책 142~145쪽

01 ② 02 -음 03 ② 04 ⑤ 05 ④ 06 ④ 07 ⑤ 08 매체의 변화를 이해하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01 중세 국어의 음운상 특징으로는 오늘날에는 없는 ‘ㄹ(반치음)’, ‘ㄴ(순경음 비음)’, ‘ㅇ(아래아)’ 같은 음운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로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것으로,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지 않거나 한 개 혹은 두 개를 찍었다.

③ 어두 자음군은 자음의 경우 음절의 첫소리에 ‘ㄴ, ㄷ, ㄹ’ 등과 같이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것을 말한다.

④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으로 현대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 더 잘 지켜졌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 자음이 발음되었고, 이를 8종성법이라고 한다.

02 **새술형**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형 전성 어미로 ‘-음/-음’이 쓰였다. ‘여름’은 ‘열- + -음’으로 구성되며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을 정확하게 썼다.	☐

03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가 쓰였다. 주격 조사 ‘이’는 환경에 따라 ‘이’, ‘ㅣ’로 실현되고 생략되기도 하였다. <보기>의 ‘말씀·미’는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말씀이’를 이어 적기한 것이다. 따라서 주격 조사로 ‘ㅣ’가 사용되었다는 설명은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에 비해 고유어가 많이 쓰였다. 그러나 한자어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경쟁하다가 이전에 비해 한자어가 많이 쓰이게 되었다.

05 음성 언어는 말을 중심으로 한 소통 방식이어서 공장 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른 시간이나 공간으로 옮길 수 없다. 인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를 만들었고, 문자를 활용하여 기록한 내용을 보존할 수 있게 되면서 문명이 발전하였다.

06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매체의 특징이다. 인쇄 매체는 전파 매체와 마찬가지로 정보 생산자가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07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었으며,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되면서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지만 하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08 **새술형** 이 글의 ㉠과 같이 증강 현실 기술과 가상 현실 기술 등이 발전하고 인공 지능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의 변화를 이해해야 함을 썼다.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함을 썼다.	☐

꼭 짚어볼 소단원 평가 문제

본책 146~149쪽

01 ③ 02 ① 03 ① 04 ⑤ 05 ④ 06 ④ 07 ‘예쁘게’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뀐. 08 ⑤ 09 ④ 10 ③ 11 ④ 12 ① 13 ⑤ 14 ② 15 ④

01 주격 조사 ‘가’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므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02 (가)의 5문단에서 ‘이 시기에도 외래어가 있었는데,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이 유입되어 쓰이기도 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중세 국어 시기에도 외래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가)의 1문단을 통해 중세 국어는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초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난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통칭함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5문단을 통해 중세 국어 시기에는 현대 국어에 비해 고유어가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4문단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 당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을 받침에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에서 ‘언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국어는 변화하는 실체로서 현재에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가)의 ㉠은 모음 조화에 대한 설명이다. (나)의 ‘기·픈’은 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어울린 것으로 ㉠의 사례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 음성 모음인 ‘ㅡ’끼리 어울려 쓴 모음 조화가 나타난다.

③, ④ 양성 모음인 ‘ㅣ’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나타난다.

⑤ 양성 모음인 ‘ㅏ’와 ‘ㅑ’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나타난다.

➤ 참고 자료

양성/음성/중성 모음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중성 모음
ㅣ, ㅏ, ㅑ	ㅡ, ㅓ, ㅕ	ㅣ

04 <보기>는 중세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을건너갑니다’, ‘급한여울이나’ 등의 표기를 통해 현대 국어의 띄어쓰기와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중세 국어 역시 세로쓰기를 하였다.

② 현대 국어의 일반적인 표기 역시 끊어 적기이다.

③ 중세 국어는 일반적으로 이어 적기를 하였고 <보기>에서는 주로 끊어 적기를 하고 있다.

④ ‘-오니다’, ‘갑흐나’, ‘엇흐나’ 등의 표기를 통해 현대 국어의 맞춤법과 다른 표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05 ㄴ: ‘내·히’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ㄹ: ‘하·나·니’의 기본형 ‘하다’는 중세 국어 시기에는 ‘많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현대 국어의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 등의 뜻으로 쓰이므로 어휘의 의미가 변한 경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ㄱ: ‘부루·매’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어 적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ㄷ: ‘불·휘’는 ‘불휘+0’로,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06 ‘ㅑ·뿌·메’는 ‘ㅑ- + -음 + 메’의 형태로, 명사형 전성 어미인 ‘-음’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형 전성 어미로 ‘-음/-음’이 사용되었다.

07 **새술형** ㉠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는 ‘가엿게’, ‘불쌍하게’라는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 의미 이동의 예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현대 국어에서 ‘예쁘게’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썼다.	☐
현대 국어에서 어휘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음을 썼다.	☐

08 오늘날의 국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신조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또한 외국어나 줄임말도 많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어로 인한 세대와 집단 간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09 2문단에서 ‘음성 언어는 공간 사라져 그 내용을 다른 시간이나 공간으로 옮길 수 없다.’라고 하였다. 즉, 음성 언어는 그 내용을 보존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4문단을 통해 전파 매체는 정보 제공자가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인류는 음성으로 소통을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인쇄 매체는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6문단을 통해 무선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 확산 속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0 디지털 매체는 누구나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졌으므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면서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명확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은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드러나는 언어적 특징이나 소통의 특성을 말하므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뉴스, 이메일, 온라인 대화 등을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텔레비전 뉴스는 전파 매체에 해당하므로 ㉠의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

12 개인 방송은 개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13 텔레비전 뉴스는 전파 매체로,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가 소통하는 방법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 뉴스는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14 인터넷 공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도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해 디지털 매체 소통 과정에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등의 사이버 폭력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디지털 매체는 물리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량으로 인쇄물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보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디지털 매체에서 공유된 내용은 정보 생산자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이미 내용이 공유되었다면, 정보 생산자가 아무리 삭제하려고 해도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

④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것 자체를 문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전파 매체가 주로 이용될 때는 매체를 준비하는 과정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고 복잡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무선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되면서 정보의 생산이 훨씬 쉬워졌다.

15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맞지만, 매체에서 접하는 정보가 모두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매체에서 접하는 정보를 수용할 때는 신뢰성, 타당성을 확인한 뒤에 수용해야 한다.

고난도 **업** 소단원 심화 문제

본책 150~151쪽

01 ④ 02 ① 03 ① 04 ⑤ 05 ⑤ 06 ④ 07 ③

01 방점은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로서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성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수·비’에서 현재는 소실된 음운인 ‘부(순경음 비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므·른’은 ‘물+-은’을 이어 적기한 표기이다. 이어 적기는 한 음절의 중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옮겨서 쓰는 방법이다.

③ ‘여름’은 중세 국어에서는 ‘열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에서 계절의 이름인 ‘여름’을 가리킨다.

⑤ ‘中東國·국·에’에는 부사격 조사 ‘에’가 사용되었다.

02 (나)의 ‘·쁘·들’에는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연속으로 오는 어두 자음군인 ‘ㅃ’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의 ‘·뿔·씩’의 첫소리는 ‘ㄹ’으로 한 개의 자음만 쓰였고, 두 번째 자리에 쓰인 ‘ㅃ’은 같은 자음을 연속으로 쓴 ‘각자 병서’이다.

| 오답 풀이 | ② (가)의 ‘남·곤’은 ‘나모’가 조사와 결합할 때 ‘ㄱ’이 추가된 것이고, 이때 ‘곤’에 ‘·(아래아)’가 쓰였다. (나)의 ‘말쌈·미’의 ‘말쌈’에도 ‘·(아래아)’가 쓰였다.

③ (가)의 ‘기·픈’은 ‘깊은’에서 받침인 ‘ㅍ’을 이어 적기한 것이고, (나)의 ‘ㅈ루·미니’라는 ‘ㅈ룸이니라’에서 받침인 ‘ㄹ’을 이어 적기한 것이다.

④ (가)의 ‘·긋’에는 받침 ‘ㄷ’이 쓰였으므로 초성에 쓰이는 자음이 다시 중성에 쓰였음을 알 수 있고, (나)의 ‘·소·뒸·디’의 기본형은 ‘사·맞다’인데 8중성법에 의해 ‘사·맞디’로 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시·미’는 ‘심미’로 주격 조사 ‘이’가 쓰였음을 알 수 있고, (나)의 ‘·흙·배·셔·도’에서 ‘배’는 ‘바+ㅣ’ 구성임을 알 수 있다.

03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가 쓰였고, 환경에 따라 ‘이’, ‘ㅣ’, ‘Ø(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나타났다. 주격 조사 ‘이’는 (가)의 ‘·시·미’와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나타났다. ‘ㅣ’는 (나)의 ‘·흙·배’와 같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나타났다. ‘Ø’는 (가)의 ‘·불·휘’와 같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나타났다.

| 오답 풀이 | ② ‘·똥다’는 중세 국어에서 ‘·똥다’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똥다’에서 ‘·똥다’로 형태 변화가 일어났다.

③ ‘·구·래’는 ‘가룸에’, ‘바·루·래’는 ‘바람에’라는 의미로 모두 부사격 조사 ‘애’가 사용되었다.

④ ‘·그·출·씨’는 ‘그치므로’라는 의미로 앞말과 뒷말을 인과 관계로 이어 주는 어미가 사용되었다.

⑤ ‘·하·니’의 뜻은 ‘·많으니’로, 여기서 ‘하디’는 ‘·많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현대 국어에서 ‘하디’는 동사이므로 품사와 의미가 모두 다른 ‘하디’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4 ‘·노·미’의 ‘·놈’은 중세 국어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 ‘·놈’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의미 축소의 예이다.

| 오답 풀이 | ① ‘·어·벗·비’는 중세 국어에서 ‘가엿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라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의미 이동의 예이다.

② ‘·너·겨’의 ‘·너지다’는 ‘·여기다’라는 뜻으로 현대 국어에서 형태상 변화가 있을 뿐 의미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말·쌈·미’의 ‘·말·쌈’은 중세 국어에서 ‘·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 ‘·말·쌈’은 ‘·말’을 높여 이르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의미 축소의 예이다.

④ ‘·어·린’의 ‘·어리다’는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의미 이동의 예이다.

05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전파 매체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자가 한정되어 있고 정보가 일방향적으로 제공되며, 수용자와 소통하는 통로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정보 수용자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목적이라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06 <보기>에 제시된 매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온라인 대화로 특징인과 대화를 나누는 수단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지식을 전달한다는 설명을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수아'와 '은별'은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② 온라인에서 대화를 할 때에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대와 정보나 감정을 주고받기 위해 '생선'과 같은 줄임말을 쓰거나 '머거'와 같이 발음대로 문자를 입력하기도 한다.

③, ⑤ 온라인 대화를 기반으로 한 소통에서는 자신의 정보와 생각,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사진, 이모티콘 등의 다양한 기호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07 <보기>의 기사에 나타나는 디지털 매체의 문제로 미루어 볼 때, 인터넷 댓글에서도 올바른 언어 사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악성 댓글을 문화로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02 한글 맞춤법과 국어생활

꼭꼭 짚어봐!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154~159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② 05 ② 06 ① 07 ④ 08 수
돛물 / '수돛물[수돈물]'은 한자어 '수도(水道)'와 순우리말 '물'로 된
합성어이며,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
시옷을 받쳐 적어야 한다. 0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⑤
14 사천구백구십일만 칠천이백사십오 15 ③ 16 ⑤ 17 '출드
라'를 '출더라'로 고쳐야 한다.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18 ⑤ 19 ④ 20 ③ 21 ②
22 ② 23 ① 24 ④

01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 방언의 표기는 어문 규범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02 '깍두기'는 [깍뚜기]로 발음하지만 어법에 맞게 '깍두기'로 표기한다. 그러므로 ㉠과 같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

03 '구름[구름]', '하늘[하늘]', '지구[지구]'는 모두 표기와 발음이 같으며 소리대로 표기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표준어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해 '꽃이'를 '꼬치'로 적으면 각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칙을 함께 제시한다. 따라서 체언 '꽃'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꽃이'는 연음되어 [꼬치]로 발음되지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꽃이'로 표기된다.

④, ⑤ '꽃잎[곤넵]', '밥이[바비]', '밥만[밤만]'은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어법에 맞게 '꽃'과 '밥'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한다. 이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04 '제5항'의 '다만'을 참고할 때, '법석'에서 나는 된소리는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씩'을 '법석'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제11항' [불임 1]을 참고할 때, '출생률'에서 '률'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고,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도 아니므로 본음대로 '출생률'로 표기해야 한다.

③ '제5항 2'를 참고할 때, '살짝'은 'ㄹ' 받침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살작'이 아니라 '살짝'으로 표기해야 한다.

④ '제6항'을 참고할 때, '굳이'는 'ㄷ'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가 왔으므로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으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굳이'로 표기해야 한다.

⑤ '움짤'을 '움찔'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만, '움찔'에서 나는 된소리는 'ㄹ'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관련된 규정은 '제 5항 2'이다.

05 '제5항 1'을 참고할 때,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대로 된소리로 적기 때문에 발음과 표기가 서로 동일하다.

06 '발생률'에 사용된 '률'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것이 아니며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도 아니므로 본음대로 '률'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발생율'이 아닌 '발생률'로 표기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② '유행'은 한자음 '류(流)'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기 때문에 두음 법칙에 따라 '유행'으로 표기한다.

③ '급류'에서 '류(流)'는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류'로 적어야 한다.

④ '합격률'에서 한자음 '률(率)'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으며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도 아니므로 본음대로 '률'로 적어야 한다.

⑤ '능률'에서 한자음 '률(率)'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으며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도 아니므로 본음대로 '률'로 적어야 한다.

- 07 ④의 ‘헛별[해뻔/헨뻔]’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만,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여야 한다. ‘헛별’은 ‘해+별’의 결합으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므로 ㉠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긱밥, 나룻배, 아랫집’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귀뻔/귄뻔], [나루뻔/나루뻔], [아래뻔/아래뻔]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② ‘잇몸, 아랫니, 텃마당’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인뻔], [아래뻔], [탄마당]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③ ‘갯잎, 뒷일, 나뭇잎’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갯뻔], [뒤뻔], [나뭇뻔]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난다.

⑤ ‘훗날[훈:날]’은 ‘후(後)+날’, ‘제삿날[제:산날]’은 ‘제사(祭祀)+날’, ‘뒷마루[툐:마루/툐:마루]’는 ‘퇴(退)+마루’의 결합이다. 이들은 모두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 08 **새술형** 사이시옷의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된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 순우리말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한다. ‘수돗물’은 한자어 ‘수도(水道)’와 순우리말 ‘물’로 구성된 합성어이므로 조건에 맞는다. 그 다음 ‘제30항’에서 관련 조항을 찾으면 2-(2)번 항목에 적용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수돗물’이 적절한 표기임을 썼다.	☐
‘제30항 2-(2)’를 바탕으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이유를 썼다.	☐

- 09 ‘제30항 3’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긱간(庫間), 찻간(車間), 텃간(退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횡수(回數)’이다. ‘초점(焦點)’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 10 ‘층’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조사가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43항’의 ‘다만’을 참고할 때, ㉠의 ‘층’이 순서를 나타내고 숫자와 어울리어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앞말과 붙여 쓴 것이다.

- 11 ‘친구와 같이’에서 ‘같이’는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 현재의 표기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매일같이’의 ‘같이’는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② ‘일주일 만에’에서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일주일 만에’로 띄어 쓴다.

④ ‘두’와 ‘밤’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현재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⑤ ‘친구밖에’에서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 12 ‘전등’과 ‘끄기’는 각각의 단어이므로, ‘전등끄기’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3 ‘하고’는 앞말과 뒷말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한글 맞춤법 ‘제41항’을 참고할 때 그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학생하고 교사가 있다.’와 같이 써야 하며 <보기>에 제시된 조항의 예시로는 적절하지 않다.

- 14 **새술형** <보기 1>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제44항’에 따르면,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써야 한다고 했으므로 <보기 2>는 ‘사천구백구십일만 칠천이백사십오’로 쓰는 것이 옳바르다.

평가 기준	확인 ☑
수를 만 단위로 띄어 한글로 썼다.	☐

- 15 <보기 1>에서는 ‘이서’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어 대화 상대인 ‘하준’은 ‘이서’의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보아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ㄴ)하고 대화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ㄷ)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띄어쓰기는 의사소통 시 대화 상대와의 친근감을 강화(ㄱ)하거나 전달할 내용의 분량을 줄이는 것(ㄷ)과는 관련이 없다.

- 16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의하면 ‘-(으)ㄴ수룩’은 예사소리로 적으므로 ‘볼쭙’이 아니라 ‘볼수룩’으로 적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문맥상 나열된 두 가지 대상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얹든지 서든지’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문맥상 지난 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더라’를 활용하여 ‘아름답더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의하면 ‘-(으)ㄴ게’는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해결할게’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의하면 ‘-(으)ㄴ지라도’는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힘들지라도’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17 **새술형** 한글 맞춤법 ‘제56항’을 참고할 때,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고,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키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보기>는 지난 겨울의 일을 회상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춥더라’를 ‘춥더라’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춥더라’를 ‘춥더라’로 고쳐 썼다.	☐
‘춥더라’로 고친 근거를 한글 맞춤법 ‘제56항’을 이용하여 썼다.	☐

- 18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의하면 어미 ‘-(으)ㄴ게’는 예사소리로 적으므로 ‘줄게’가 아니라 ‘줄게’로 적는다.

| 오답 풀이 | ①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의하면 어미 '-(으)르걸'은 예사소리로 적으므로 '볼걸'이 적절하다.

②, ③ 문맥상 나열된 두 가지 대상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므로 '가든지'가 적절하다.

④ 문맥상 지난 일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말했던'이 적절하다.

19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따르면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ㅅ, ㅆ'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어야 한다. ㉠은 도서관이 문을 닫아서 도서관에 못 갔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여기에는 '닫히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닫혀서'의 활용형인 '닫혀서'는 [다쳐서]로 발음되나, '닫-'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말이므로 'ㄷ' 받침을 유지하여 '닫혀서'로 적어야 한다. 즉, '도서관의 문이 닫혀서 못 갔어요'로 표기해야 ㉠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20 '경주가 정말 좋더라!'의 ' 좋더라'는 문맥상 과거에 직접 경험한 일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 '-더라'를 사용하여 ' 좋더라'로 표기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한글 맞춤법 '제10항' [붙임 1]에 따르면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 올 경우 본음대로 적는다. '女'의 본음은 '녀'이고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 쓰인 경우이므로 '남녀노소'라고 적어야 한다.

② '우리 마을'의 '우리'와 '마을'은 각각 다른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르면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툼툼이[툼툼미]'는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경우이므로 '툼툼이'로 적어야 한다.

⑤ '하고 있습니다'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며 '본용언+보조 용언'의 형태이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지 않는다.

21 만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사용자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가 이를 다른 의미로 이해하여 의사소통에 혼란을 겪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한글 맞춤법을 지키지 않으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22 '꺾병[꺾뽕/꺾뽕]'은 순우리말인 '꺾'과 한자어 '병(病)'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23 ㉠ 순우리말 '배'와 '길'의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뱃길'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 ㉡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썩둑[썩뚝]'은 '썩둑'으로 적어야 한다.

㉢ 한자음 '룰'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성공룰'로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문장은 ㉠, ㉡, ㉣이다.

| 오답 풀이 | ㉢ '부친'은 문맥상 '붙이다'의 활용형이므로 [부친]으로 소리 나더라도 어법에 맞게 '붙인'으로 적어야 한다.

㉣ '괘고'는 어간 '괘-'에 어미 '-고'가 붙은 것이므로 '괘고'로 적어야 한다.

㉤ '갯수'는 두 음절로 된 한자어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수'로 적어야 한다.

24 '살싸치'는 '살살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어법에 맞게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살살이'로 적어야 한다.

고난도 **답** 소단원 심화 문제

본책 160~161쪽

01 ㉢ 02 ㉣ 03 ㉤ 04 ㉡ 05 ㉠ 06 ㉠의 '보다'는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의 '보다'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07 ㉡ 08 ㉡ 09 ㉡

01 '미달이[미:다지]'를 발음할 때 음운 변동 현상인 구개음화가 나타나지만, 이를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미달이'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하늘[하늘]'을 발음할 때 음운 변동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해돋이[해도지]'를 발음할 때 음운 변동 현상인 구개음화가 나타나지만, 이를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돋이'는 ㉡에 따른 표기이다.

④ '줄자'는 단어를 구성하는 두 형태소를 소리대로 적었지만, 각 형태소의 본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과 ㉢을 모두 반영한 표기이다.

⑤ '이파리'는 '잎'에 '-아리'가 결합한 말이지만 '잎아리'로 적지 않고 '이파리'로 적는다. 이러한 표기에는 각 형태소의 본모양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만을 반영한 표기이다.

02 '깍두기'를 [깍뚜기]로 발음하지만 '깍두기'로 표기하는 것은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제5항-2'의 '다만'과 관련이 있다.

03 '훗날'은 한자어 '후(後)'와 고유어 '날'이 결합한 합성어로,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후:날]로 발음되어 사이시옷을 적은 경우이므로 ㉠이 아닌 ㉡의 예시로 적절하다. '꽤앞'은 고유어 '깨'와 '앞'이 결합한 합성어로,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ㄹ' 소리가 덧나므로 ㉠의 예시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신여성'과 '식용유'는 모두 한자어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② '숨이불'과 '꽃잎'은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 단어가 모두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이다.

③ '귓방'의 발음은 [귀뽕/귓뽕], '넋가'의 발음은 [내:까/넋:까]로, 모두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난다.

④ '넋물'의 발음은 [넋:물], '아랫니'의 발음은 [아랫니]로 모두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04 '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또한 '두시 삼십분'의 '시'와 '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지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오래되다'는 하나의 형용사이므로, '오래 되었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다'로 붙여 써야 한다.

③ '아름다울' 뒤에 오는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라고 적어야 한다.

④ '홍길동씨'의 '씨'는 호칭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맑아지다'는 하나의 동사이므로 '맑아 졌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아니라 '맑아졌다'로 붙여 써야 한다.

⑤ '오랜'과 '시간'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서로 띄어 써야 한다.

05 '당신만큼'에서 '만큼'은 '당신'이라는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오답 풀이 | ② '노력한만큼'에서 '만큼'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노력한'에 붙어서 '앞의 내용에 상당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③ '느낀대로'에서 '대로'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느낀'에 붙어서 '어떤 것과 같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느낀 대로'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④ '나 대로'에서 '대로'는 체언 뒤에 붙어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나대로'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⑤ '법 대로'에서 '대로'는 체언 뒤에 붙어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법대로'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06 **서술형** ㉠의 '보다'는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라는 의미

의 '부사'로, 하나의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의 '보다'는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밑줄 친 부분의 품사를 밝혀 썼다.	☐
㉡의 밑줄 친 부분의 품사를 밝혀 썼다.	☐

07 한글 맞춤법 '제35항'의 [붙임 2]에 따라 'ㄴ' 뒤에 '-었-'이 어울려 'ㄴ'이 될 때에는 준 대로 적는다. 따라서 '돼었어'가 아니라 '되었어' 혹은 '됐어'로 표기해야 한다.

08 '쓰레기'는 어간 '쓸'에 접미사 '-에기'가 붙어 명사가 된 것이다. '-에기'는 '-이'나 '-음'이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이므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09 ② '떠난 지'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뵈요'는 '뵈-'와 '-어요'가 준 말로, 'ㄴ' 뒤에 '-어'가 어울려 '네'로 될 때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하므로 '뵈요'로 적어야 한다.

③ 이 문장에서 '데'는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룰'은 '울'로 적어야 하지만 '합격률'에서 '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룰'로 적어야 한다.

⑤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틈틈이[틈틈미]'는 '이'로만 나는 경우이므로 '틈틈이'로 적어야 한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62~169쪽

01 ③ 02 ① 03 ② 04 ① 05 ③ 06 ② 07 ③ 08 ①
09 ① 10 ① 11 ④ 12 ⑤ 13 ④ 14 ⑤ 15 ④ 16 ③
17 ③ 18 ⑤ 19 ⑤ 20 ④ 21 ⑤ 22 ③ 23 ② 24 ④
25 ④ 26 ③ 27 '도착할지'를 '도착할까'로 문맥상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장의 '지'는 어미이다. 어미 '-르지'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도착할지는'으로 고쳐 써야 한다. 28 ④
29 ⑤ 30 ③ 31 ⑤ 32 ④

01 (나)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 끊어 적기를 표기에 반영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가)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 (나)와 가장 관련 있는 것은 현대 국어와 달리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한 것이다.

02 (나)의 ‘·ㅼ·들’은 음절의 첫소리에 자음이 연속으로 오는 어두 자음군인 ‘ㅼ’이 사용된 예이다. 명사형 전성 어미가 사용된 단어는 ‘·ㅼ·메’이다.

| 오답 풀이 | ② ‘ㅼ·ㅼ·성·이’는 끝소리가 ‘ㅇ’인 체언의 뒤에 주격 조사 ‘이’를 사용한 것이다.

③ ‘나·랏’은 ‘나라의’를 의미하며, 체언 ‘나라’의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을 사용한 것이다.

④ ‘·날·로’에 사용된 모음은 ‘ㅏ’와 ‘ㅗ’로 둘 다 양성 모음에 해당한다.

⑤ ‘·흙·배’는 모음 ‘ㅏ’로 끝나는 체언 ‘배’ 뒤에 주격 조사 ‘ㅏ’를 사용한 것이다.

참고 자료

관형격 조사 ‘ㅅ’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는 관형격 조사로 ‘ㅅ’이 쓰이기도 함.

예) 나·랏·말ㅅ·미 → 나라의 말이

03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의 ‘어리석다(형용사: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현대 국어에서의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므로 의미가 이동한 예이다.

| 오답 풀이 | ① ‘말ㅅ·미’의 ‘말ㅅ’은 일반적인 말을 가리키는 것에서, 현대 국어에서는 말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③ ‘·노·미’에서 ‘놈’은 ‘보통 남자’를 가리키는 말에서 ‘남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바뀌었으므로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④ ‘하·니·라’의 ‘하다’는 현대 국어의 ‘많다(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의 뜻이다. 현대 국어의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의미가 이동한 예이다.

⑤ ‘어엿·비’의 ‘어엿브다’는 ‘가련하다, 불쌍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나, 현재는 ‘예쁘다’의 의미로 쓰이므로 의미가 이동한 예이다.

04 ㉠에 사용된 조사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이다. ‘이 책은 내 것과 다르지 않아.’의 조사 ‘과’ 역시 비교의 의미로 사용된 격 조사이다.

| 오답 풀이 | ②, ③ ‘어디에’와 ‘도서관에’의 ‘에’는 앞말이 처소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④ ‘너와’의 ‘와’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⑤ ‘밥에’의 ‘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05 ㉠와 ㉡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리대로 적되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 <보기 2>의 예시 중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줄자[줄자], 눈물[눈물], 휴게실[휴게실]’이다.

| 오답 풀이 | ②, ④ ‘웃음’은 [우슴]으로 발음되므로 ㉡만 충족한 경우이다. ‘낮잠’은 [남잠]으로 발음되므로 ㉡만 충족한 경우이다.

⑤ ‘이파리’는 [이파리]로 발음되나 ‘잎’과 ‘-아리’라는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고 있으므로 ㉠만 충족한 경우이다. ‘사랑니’는 [사랑니]로 발음되나 ‘사랑’과 ‘이’라는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고 있으므로 ㉠만 충족한 경우이다.

06 ‘나무[나무]’와 ‘하늘[하늘]’은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하나의 형태소로 된 단어들이므로 소리대로 적은 원칙에 해당한다.

07 ‘호터저’는 ‘흠어져’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 따라 어법에 맞게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어간 ‘흠-’의 형태를 고정하여 ‘흠어져’로 적어야 한다.

08 이 글은 현대 국어에서 두 말이 어울릴 때 ‘ㅁ’ 소리가 덧나거나 ‘ㅎ’ 소리가 덧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ㅁ’ 소리가 덧나는 이유는 중세 국어 시기에 존재했던 어두 자음군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ㅎ’ 소리가 덧나는 이유는 중세 국어 시기에 존재했던 체언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현대 국어에도 중세 국어의 특징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군.’이라고 반응할 수 있다.

09 관형격 조사 ‘ㅅ’ 뒤에서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길’로 표기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② 보조사 ‘도’는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이므로 ‘ㅎ’은 뒤따르는 ‘ㄷ’과 어울려 ‘토’로 나타난다.

③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으므로 ‘호’로 표기한다.

④ 부사격 조사 ‘과’는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이므로 ‘ㅎ’은 뒤따르는 ‘ㄱ’과 어울려 ‘과’로 나타난다.

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으므로 ‘홀’로 표기한다.

10 ‘ㅅㅏ·미’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을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은 것이다. 주격 조사 ‘이’는 현대 국어에서도 사용된다.

| 오답 풀이 | ② ‘기·폰’은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한 예이다.

③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음운인 ‘·(아래아)’가 사용되었다.

④ 현대 국어라면 ‘아니 그치므로’와 같이 띄어 써야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로서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 성조를 표시하였다.

11 중세 국어 자료인 (가)에서는 ‘물’로 표기된 것이 1926년 자료인 (나)에서는 ‘뭍’로 표기되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평순 모음인 ‘ㅡ’가 원순 모음인 ‘ㅜ’로 바뀐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② (가)는 ‘남·군’, ‘바·루·래’와 같이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에 비해 잘 지켜지고 있다. (나)는 ‘도러보지도’처럼 중세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단어도 나타나고 있다.

③ (가)는 ‘기·폰’, ‘부·루·매’, ‘구·무·래’와 같이 이어 적기를 하고 있다. (나)는 ‘마지머’와 같은 이어 적기와 ‘바람을’과 같은 끊어 적기가 혼용되고 있다.

⑤ (가)는 현재의 맞춤법과 큰 차이가 있으며, (나) 역시 ‘-음니다’와 같은 표기를 통해 현재의 맞춤법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바람을 쐬고’에서 ‘쐬고’는 문맥상 어간 ‘쐬-’에 어미 ‘-고’가 붙은 것이므로 ‘쐬고’라고 표기해야 한다.

13 ‘깡충깡충’은 양성 모음 ‘ㅏ’와 음성 모음 ‘ㅓ’가 어울린 것이므로 모음 조화의 예로 볼 수 없다. 또한 모음 조화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중세 국어에 비해 덜 지켜지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4 신조어는 주로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기성세대와의 세대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15 이 글로 보아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매체가 발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편리성 역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 기술과 매체의 발달이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지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매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매체의 발전과 의사소통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인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고 문자를 만들었고, 문자를 활용하여 기록한 내용을 보존할 수 있게 되면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다)의 ‘인쇄 매체의 발달은 지식을 널리 보급하여 시민 사회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바)를 통해 인쇄 매체, 전파 매체보다 디지털 매체가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인쇄 매체는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므로 ㉠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쇄 매체는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인쇄물을 생산하고 전파할 수 있으므로 곧장 사라져 전달이 어려운 음성 언어에 비해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다. 따라서 ㉡의 내용 역시 적절하지 않다.

17 텔레비전 뉴스는 매체의 종류 중에서 라디오와 같은 전파 매

체에 해당한다.

18 왼쪽의 일반 편지나 오른쪽의 온라인 대화 모두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이어폰을 찾아 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19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 문제는 악의적 허위 정보와 사이버 폭력에 대한 문제이다.

20 ‘뇨소’를 ‘요소’로 쓰는 것은 한자음 ‘뇨’가 단어 첫머리에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1항’의 [붙임 1]에서 ‘다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제11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1 한글 맞춤법 ‘제5항’의 ‘다만’에 따라 ‘ㅅ’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 된소리로 적으므로 ‘쌈살하다’가 아니라 ‘쌈쌀하다’로 표기해야 한다.

22 한자음의 경우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이때 앞말이 모음이나 받침 ‘ㄴ’으로 끝나지 않았으므로 ‘성공울’은 잘못된 표기이며, ‘성공률’로 적어야 한다.

23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나타나지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떨’은 ‘울’로 적으므로 ‘백분울’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어미 ‘-르수록’은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볼수록’이 아니라 ‘볼수록’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깅둑’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러’이므로 ‘잘하더러’라고 적어야 한다.

⑤ ‘ㄷ’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가 올 때, ‘ㄷ’이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굳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24 어간 ‘쐬-’와 어미 ‘-더라도’가 결합할 때 연결 어미 ‘-어’가 어울릴 이유가 없으므로 ‘쐬더라도’가 아닌 ‘쐬더라도’로 적어야 한다.

25 ‘베갯잇[베갯님]’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인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26 ‘먹을 것이 없다.’에서 ‘것’은 의존 명사이므로 자립성이 없으나, 한글 맞춤법 ‘제42항’의 적용을 받아 앞말과 띄어 쓴다.

27 <보기 1>로 보아 ‘느지’는 ‘느가’로, ‘-르지’는 ‘-르까’로 바뀌어 볼 수 있다고 했으므로, ‘도착할지’를 ‘도착할까’로 바꾸었

을 때 뜻이 통하는지 판단한다. 이때 문맥상 뜻이 통하므로 ‘도착할 지’의 ‘지’는 어미 ‘-크지’의 일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도착할까’로 바꾸어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썼다.	☐
‘-지’가 어미임을 밝혀 썼다.	☐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고쳐 썼다.	☐

28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에는 ‘뱀뱀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즉, ‘뱀뱀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띄어 써야 한다.

29 ‘두고 나오다’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두다’와 ‘나오다’가 연결 어미 ‘-고’로 이어진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30 ‘집중할수가’에서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집중할수가’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쓰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역시 띄어쓰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만 팔천 원’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르다.

② ‘진행되다’는 한 단어이므로 ‘진행되는’으로 붙여 쓴다.

④ ‘떡볶이, 튀김등’에서 열거할 적에 쓰이는 ‘등’은 띄어 써야 한다.

⑤ ‘이순신장군’에서 장군은 관직명이므로 ‘이순신 장군’으로 띄어 써야 한다.

31 ‘아픈데 먹는 약이다.’에서 ‘아픈데’의 ‘데’는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아픈 데’와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눈이 오는 데 나가도 될까?’에서 ‘오는 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인 ‘는데’가 사용된 것이므로 ‘오는 데’로 붙여 써야 한다.

32 ‘종더라’는 지난 일을 나타내므로 ‘더라’를 사용한 것이 알맞으며,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이 없다.

| 오답 풀이 | ① 이 문장에서 ‘같이’는 부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② 어미 ‘-크걸’은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와 불걸’로 쓴다.

③ ‘툼툼히’는 ‘툼툼이’로 써야 한다.

⑤ ‘다쳤고’는 문맥상 ‘달렸고’로 써야 한다.

5.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01 함께하는 협상과 소통

본책 174~183쪽

* 문제로 확인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④ 06 원래 계획대로 산책로를 연장하되, 미래시 차원에서 수달 보호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07 ④ 08 ⑤ 09 ⑤ 10 ② 11 ⑤ 12 ④ 13 ⑤ 14 사랑천 주변 산책로 연장 계획을 취소하고, 산책로를 연장하지 않는다. 15 ④ 16 ④ 17 ④

01 ‘미래시 공무원’의 말을 통해 사랑천에 보호 대상인 수달의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산책로 연장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미래시와 희망구 주민들은 산책로 연장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었다.

02 제시된 협상은 협상의 시작 단계를 보여 준다.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상대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대측과의 입장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서로 간의 양보할 지점을 찾아 합의의 이끌어 내는 것은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03 ‘미래시 공무원’은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면서 희망구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안을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미래시 측은 사랑천 산책로를 연장하려던 기존 계획을 수정하면서 희망구 주민들이 만족할 방안을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협상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③ 미래시 측은 수달을 보호하고자 사랑천 산책로를 연장하려던 기존 계획을 수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④ 희망구 주민 측은 산책로 연장 계획을 지지해 왔던 만큼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의 수정에 우려와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⑤ 희망구 주민 측은 미래시의 결정에 실망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을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04 협상을 할 때는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조정해 나간다. <보기>는 이 협상의 쟁점과 양측의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으로 보아, 쟁점은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천 주변으로 산책로를 연장하려던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5 ‘미래시 공무원’은 “기존에 계획한 산책로 연장 구간을 주택 지역 근처로 옮겨 조성하고 산책로 중간에 공원을 마련하여 다양한 운동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히며 산책로

연장 구간을 사랑천이 아닌 주택 지역으로 연장하고, 산책로 중간에 공원을 마련해 운동 시설을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06 **새술형** ‘희망구 주민 대표’는 ‘미래시 공무원’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안을 묻자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산책로를 연장하되, 미래시 차원에서 수달 보호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답하며 희망구 주민 측의 제안을 전달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희망구 주민 대표’의 발언에서 희망구 주민 측의 제안을 찾아 썼다.	☐

- 07 ㉔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희망구 주민 대표’의 “차도 옆으로 나는 산책로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발언에 대해 “산책로 연장 구간을 차도에 바로 붙여서 낼 계획이 아닙니다.”라고 하며 희망구 주민 측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희망구 주민 측은 미래시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상대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협력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미래시 측이 원하는 수달을 보호하는 일이 사랑천을 보호하고 희망구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며, 미래시 측이 원하는 바가 상대측을 위한 일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③ 상대측의 발언에 반박하기 전에 상대측의 발언에 먼저 공감하며 상대측을 존중하는 말하기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미래시 측이 희망구 주민 측의 제안을 수락하여 캠페인을 벌일 경우, 희망구 주민 측에서는 봉사 활동 단체의 참여 등 추가적인 협조가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 08 (다)에서 ‘미래시 공무원’의 “희망구 주민들께서 사랑천을 보고 느끼며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해서 사랑천 산책로의 연장을 원한다고 판단했습니다.”라는 발언에서 미래시 측이 파악한 희망구 주민들의 근원적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희망구 주민들이 바라는 건 산책로 연장 그 자체보다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본 것이다.

- 09 [A]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생태 복합 시설의 건설이 “사랑천 주변을 직접 걸으며 여가를 즐기고 싶은 주민들의 바람을 충족하진 못합니다.”라고 언급한 뒤, 생태 복합 시설 건설을 추진하되, 기존 산책로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미래시 측의 제안이 지닌 한계를 제시하며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으므로,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철회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0 미래시 측의 생태 복합 시설을 건설하는 제안에 대해 희망구 주민 측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생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생기는 건 반가운 제안’이라고 반응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11 (라)의 ‘미래시 공무원’이 “사랑천에 더 많은 사람이 유입되어 수달이 위협을 느낄 것 같아 우려됩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산책로의 폭을 넓히는 일을 반대한 이유를 알 수 있다.

- 12 ‘미래시 공무원’과 ‘희망구 주민 대표’가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자세로 협상했으며, 상대방의 근원적인 동기를 고려해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 13 ‘희망구 주민 대표’는 사랑천 산책로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생태 복합 시설이 조성된 것에 대해 (가)에서 ‘수달과 희망구 주민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책로 연장을 재추진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14 **새술형** 미래시 측은 ‘시작 단계’에서 사랑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보호를 위해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기존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해결 단계’에 이르러 사랑천 연장 계획이 취소되고 산책로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미래시에서는 사랑천에 서식하는 수달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

평가 기준	확인 ☒
협상 합의안에서 미래시 측이 얻은 이익을 찾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 15 (나)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가 ‘희망구에 사는 수달을 희망구의 상징으로 홍보하는 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⑤는 협상 합의 이후에 미래시 측에서 할 행동이다.

- 16 ‘철민’은 개인 방송에서 ‘사랑천 산책로를 폐쇄하기로 협상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한 것이다. 이에 ‘민수’가 미래시 누리집에 항의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 등 다수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혼란을 주었다.

- 17 ‘소연’은 ㉔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며 ‘철민’을 비난하고 있으므로, ㉔을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존중하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철민’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을 임의로 판단해서 전달하고, 거짓된 내용을 공유하였으므로 ‘소연’은 ‘철민’에게 사회적 소통 윤리를 고려하여 사실을 정확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방송을 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01 ③ 02 ⑤ 03 수달을 보호하고자 기존의 사랑천 연장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04 ② 05 ④ 06 ① 07 ③ 08 ⑤ 09 ④ 10 ⑤ 11 • 희망구 주민 측의 근원적 동기: 사랑천을 보고 느끼며 여유있게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하다. • 미래시 측의 대안: 사랑천 생태 복합 시설을 건설한다. 12 ① 13 ① 14 ④ 15 ③ 16 ⑤ 17 ④ 18 ⑤ 19 산책로 연장은 무산되었지만, 그 대신 생태 복합 시설을 만들고 넓은 산책로를 보수하기로 했다. 20 ⑤ 21 ⑤

01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 발생한 갈등을 타협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따라서 협상을 할 때에는 상호 존중과 양보의 태도로 임하되,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타협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

02 (나)는 협상의 조정 단계로, 이 과정을 거치며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다. 타협안은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조정 단계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정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다.

03 **새싹형** (가)와 (나)의 내용으로 보아, '미래시 공무원'과 '희망구 주민 대표'는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는 문제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사랑천 산책로를 연장하려던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말하며 협상의 안건을 밝히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수달을 ~ 해야 한다.' 형식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썼다.	☐

04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최근 사랑천 주변을 대상으로 생태 조사를 한 결과, 수달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사랑천 산책로를 연장하려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협상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시 측은 사랑천 산책로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

05 '희망구 주민 대표'는 (나)에서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미래시 공무원'의 말에 "환경을 보호하고,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보호해야 하는 미래시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며 수달을 보호해야 하는 미래시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06 '미래시 공무원'은 (나)에서 생태 조사를 하던 중 수달의 배설물에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발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사람들이 남긴 쓰레기들이 수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㉑). 또, '희망구 주민 대표'가 사랑천 산책로 연장 구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차도 옆으로 나는 산책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산책로 연장 구간을 차도에 바로 붙여서 낼 계획은 아니라고 말하며 '희망구 주민 대표'가 제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짚어 정정하고 있다(㉒).

| 오답 풀이 | ㉑ (나)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상대측의 질문에 답변하고, 상대측의 의견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측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

㉒ (나)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상대측인 '희망구 주민 대표'에게 이유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을 뿐,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아쉬움은 표현하지 않고 있다.

07 '희망구 주민 대표'는 (나)에서 주택 지역으로 산책로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이미 주택 지역에는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충분하고, 공원들의 교통과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 더 이상의 공원이나 산책로를 만드는 건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희망구 주민들에게는 자연을 느끼며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산책로 연장 구간을 주택 지역으로 내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08 협상을 준비할 때는 협상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우리 측의 제안을 상대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상되는 상대측의 입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근원적인 동기를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은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말하기이므로 상대측을 압도하여 우리 측의 제안에 찬성하게 할 방법을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가)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기존의 산책로 연장 계획을 수정하는 쟁점에 대해 기존대로 산책로를 연장하되, 수달 보호 캠페인을 벌이자고 하며 캠페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캠페인에 희망구 주민들도 동참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산책로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희망구 측에서 기존대로 산책로를 연장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거부하며 수달 보호와 관련된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 있다.

②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희망구 주민들의 바람을 언급하고 있다.

③ (가)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기존 계획대로 산책로를 연장 하되 미래시 차원에서 수달 보호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안하며, 이를 수락할 시 희망구 주민들도 동참하겠다고 하고 있다.

⑤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수달 보호 캠페인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협력적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 (나)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사랑천을 보고 느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생태 복합 시설을 만들자고 하고 있고, '희망구 주민 대표'는 생태 복합 시설은 사랑천 주변을 직접 걸으며 여가를 즐기고 싶은 주민들의 바람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나)에서는 '주민들이 자연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쟁점에 관해 협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새술형** (나)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는 주민들이 바라는 건 사랑천이라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며, 사랑천을 보고 느끼며 여유있게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근원적 동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근원적 동기를 바탕으로 '미래시 공무원'은 사랑천을 조망할 수 있는 사랑천 생태 복합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희망구 주민 측의 근원적 동기를 바르게 썼다.	☐
미래시 측의 대안을 바르게 썼다.	☐

12 원래 계획대로 산책로를 연장하는 것(㉠)과 기존 산책로의 폭을 넓히는 것(㉡)은 모두 '희망구 주민 대표'의 요구 사항이다. '미래시 공무원'은 이러한 '희망구 주민 대표'의 요구 사항 모두 수달의 서식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사랑천 생태 복합 시설 건설과 노후한 산책로 보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3 이 협상은 '해결 단계'를 보여 주고 있다. '해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데, 이 협상에서는 양측이 기존의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랑천 생태 복합 시설 건설과 기존의 노후한 산책로 보수, 그리고 수달 보호 캠페인과 홍보 활동 등의 협력 활동을 논의하며 합의에 이르고 있다.

14 이 협상을 통해 기존의 산책로 연장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희망구 주민 측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생태 복합 시설을 얻게 되었고, 기존의 낡은 산책로를 보수하게 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② 협상 결과 미래시 측의 입장으로 기존의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은 취소하기로 하였다.

③ 미래시 측은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산책로 연장 계획을 취소하였으며, 희망구 주민 대표도 동의하여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⑤ 이 협상 내용에서는 희망구 주민 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의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자치회 구성을 계획하였는지 알 수 없다.

15 ㉠에서 '희망구 주민 대표'가 드러내는 아쉬움은 바라고 있던 사랑천 연장 계획이 취소되는 것에 대한 것이다. '희망구 주민 대표'는 수달과 희망구 주민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이끌어 냈다고 협상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상대방에게 모두 양보하고 맞추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6 협상의 목적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측보다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도록 양보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우리 측과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며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17 이 대화에서 '철민'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친구들 사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소연'은 '철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말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즉 타인에게 거짓된 내용이나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소통 윤리를 지켜야 한다.

18 '철민'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고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개인 방송 영상을 올려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이는 자신의 말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다.

19 **새술형** '민수'는 '철민'의 방송을 보고 미래시가 산책로를 폐쇄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수현'의 말을 통해, 기존의 산책로 연장 계획이 취소된 대신 생태 복합 시설을 건설하고, 낡은 산책로를 보수하게 되었다는 협상의 실제 내용을 알게 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수현'의 말을 참고하여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20 <보기>는 개인의 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의사소통을 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철민'에게 말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출 것을 조언할 수 있다.

21 '소연'은 감정을 앞세워 '철민'에게 '한심하다'와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소통 윤리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소연'에게는 이러한 점에 대해 조언해 주는 말을 할 수 있다.

01 ㉠ 02 ㉠ 03 ㉠ 04 희망구 주민들이 자연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05 ㉠

01 이 협상의 참여자는 경쟁적인 협력자의 관계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측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자기 측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02 '미래시 공무원'은 '희망구 주민 대표'가 차도 옆으로 나는 산책로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 산책로 연장 구간을 차도에 바로 붙여서 널 계획은 아니라며 상대측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정정하고 있는 것이지, 주민 측 의견을 반영하여 산책로 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03 '희망구 주민 대표'는 근원적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 사랑천 생태 복합 시설의 건축을 추진할 때 산책로의 폭을 넓힐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 산책로를 보수해 준다는 것은 미래시 측의 제안이다.

04 **새술형** '미래시 공무원'은 사랑천을 보고 느끼며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공간을 원한다는 주민들의 바람을 언급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상에 드러난 쟁점은 '희망구 주민들이 자연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미래시 공무원'의 발언을 바탕으로 썼다.	☐
평서문으로 썼다.	☐

05 '미래시 공무원'은 산책로의 폭을 넓혀달라는 상대측의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낡은 산책로를 보수하는 새로운 제안을 통해 상호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02 논증하는 글 쓰기

01 ㉠ 02 ㉠ 03 ㉠ 04 ㉠ 05 ㉠ 06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이 부족하다. 07 ㉠ 08 내용 조직하기: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적절한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09 ㉠ 10 ㉠ 11 ㉠ 12 ㉠ 13 ㉠ 14 ㉠ 15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금융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다. 16 ㉠ 17 ㉠

01 논증하는 글을 쓸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논증하는 글의 화제를 정하고 쓰기 맥락과 언어 공동체의 작문 관습을 분석한다.

02 (가)를 참고할 때 글을 쓸 때에는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와 같은 쓰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도표 안에 정리된 내용으로 보아 ㉠은 주제, ㉠은 예상 독자, ㉠은 매체임을 추측할 수 있다.

03 논증하는 글의 작문 관습에 따라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글을 써야 한다. 또, 예상 독자인 학생들로 구성된 언어 공동체는 매체를 활용하는 데 익숙하므로 글에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04 (나)에서 분석한 쓰기 맥락을 보면 이 글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 지식을 상세히 설명해야겠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05 자료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공신력이 있는지,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자료인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성은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06 **새술형** (가)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 점수가 낮은 것을 보여 주고, (나)와 (다)는 금융 이해력을 높였을 때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가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이 부족한 상황을 문제로 보고,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쓰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필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바르게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7 (다)의 통계 자료에서 금융 이해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새술형** (가), (나)에서는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있다. 이는 논증하는 글 쓰기의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해당 단계를 '내용 조직하기'라고 썼다.	☐
'내용 조직하기'에서 하는 일을 썼다.	☐

09 '결론'에서는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연역의 논증 방법을 활용했다.

고난도 **입** 소단원 심화 문제

01 ⑤ 02 ① 03 ③ 04 ② 05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0 <보기>의 생계비 감당 능력 항목을 통해 금융 이해력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생계비를 감당하는 능력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소득이 낮다는 것은 확인할 수는 없다.

11 이 글의 (가)에서는 금융 이해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상황을, (나)에서는 금융 이해력을 길렀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다)에서는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이 글의 주제는 '청소년들은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12 (나)를 통해 금융 이해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카드 이용 금액을 납부일 안에 지불하는지를 점검하는 항목에서 점수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3 (나)에서는 금융 교육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제시하고 있을 뿐,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뉴스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 자료의 출처인 서민 금융 진흥원, 금융 감독원과 한 국은행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의 (나)에서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다)에서는 연역의 논 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⑤ 이 글은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되었다.

14 <보기>의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쓰기 윤리를 지키고 글을 진 실되게 작성했는지가 글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 따 라서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을 꾸며 써서는 안 된다.

15 **새술형** 이 글의 필자는 (나)의 첫 번째 문단을 통해 금융 이해 력을 기르면 금융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나) 의 두 번째 문단을 통해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금융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썼다.	☐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썼다.	☐

16 <보기>에서는 금융 이해력 기준 점수는 60점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46.8점으로 기준 점수보다 낮았음을 보 여 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을 고쳐 쓴다면, '기준 점수인 60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가 적절하다.

17 <보기>에서는 각 항목에서 점수가 35점, 27.1점, 38.2점 더 높 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객관성을 강화하고 근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01 예상 독자와 매체를 고려할 때,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는 것 을 계획할 수는 있으나 복합양식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 여 글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2 (나)는 금융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 이나 금융 당국에 신고하며 적절하게 대처한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담긴 기사로, 이를 활용하여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금 융 범죄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03 (나)에는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이나 금융 당국에 신고하 는지에 대한 질문에 금융 교육 미이수자들의 대답이 구체적 인 수치로 제시되어 있다.

- | 오답 풀이 |** ① (나)와 (다)는 모두 출처가 명확하여 신뢰성이 있 는 자료이다.
 ② (나)와 (다)는 모두 논증하는 글의 '서론-본론-결론' 구성 중 '본론'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④ (나)는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금융 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필자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적절한 자료이다.
 ⑤ (다)는 금융 이해력이 뛰어나면 경제적 어려움이 닦쳤을 때 잘 대응하고, 합리적으로 소비 생활을 한다는 조사 결과이므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적절한 자료이다.

04 이 개요의 '본론'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에게 다양 한 방면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 로 '본론'에서 고가의 스마트폰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구상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05 **새술형** '본론 1'의 주장과 근거를 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스마 트폰 과의존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이유를 '스마트폰을 지 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 때문이다.' 형식의 문장으로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1 ⑤ 02 ① 03 ③ 04 ④ 05 ④ 06 ‘철민’은 거짓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개인의 말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함을 인식하지 않고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의사소통을 했다. 07 ④ 08 • 미래 시 측: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취소하여 사랑천에 서식하는 수달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희망구 주민 측: 생태 복합 시설을 얻고, 기존의 노후한 산책로를 보수하게 되었다. 09 ⑤ 10 ⑤ 11 ④ 12 청소년들은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 13 ③ 14 ②

01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며 합의에 이르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02 (가)에서 ‘미래시 공무원’은 사랑천 주변의 산책로를 연장하는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의 수정’을 안건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가)와 (나)에 드러난 협상의 단계는 조정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양측의 제안을 검토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고,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전략이 사용된다.

04 미래시 측의 첫 번째 제안에 대한 ‘희망구 주민 대표’의 입장은, 주택 지역으로 산책로를 연장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희망구 주민들에게는 자연을 느끼며 여가를 즐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가)에서 미래시 측은 산책로 연장 구간을 주택 지역 근처로 옮기자고 하며 그 이유로 산책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③ (나)에서 희망구 주민 측은 주택 지역에는 이미 공원이 여러 곳이 있어 산책로와 공원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희망구 주민 측은 계획대로 산책로를 연장하고 수달 보호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하였다.

05 ㉠은 ‘희망구 주민 대표’가 미래시 측의 제안에 대해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6 **새술형** <보기 2>를 바탕으로 파악한 ‘철민’의 문제점은 거짓된 내용을 전달한 것과 개인의 말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함을 인식하지 않고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철민’의 문제점을 <보기 2>를 바탕으로 썼다.	☐

07 (가)의 ‘희망구 주민 대표’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희망구 주민 대표’의 근원적 바람은 희망구 주민들이 사랑천 주변을 직접 걸으며 여가를 즐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산책로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 아니다.

08 **새술형** 미래시 측은 사랑천 산책로 연장 계획을 취소하여 사랑천에 서식하는 수달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희망구 주민 측은 생태 복합 시설을 얻고, 기존의 노후한 산책로를 보수하게 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양측이 얻은 이익을 각각 바르게 썼다.	☐
각각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09 이 글은 논증하는 글이다. 다양한 표현 방식과 개성적 문체로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쓰는 글은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이다.

10 글을 고쳐 쓸 때는 쓰기 윤리를 지켰는지, 글을 쓴 목적과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났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논증하는 글을 쓸 때는 주제에 맞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대한 많은 근거를 넣는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11 <보기>는 금융 이해력 점수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경제적 위기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나)에서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12 **새술형** 이 글의 결론 부분인 (다)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필자가 ‘청소년들은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는 주제로 이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빈칸에 들어갈 주제를 바르게 썼다.	☐
‘~한다’ 형식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3 (나)의 ㉠과 <보기>를 비교해 보면 <보기>에서는 ㉠과 달리 각 항목의 점수를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근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글을 고쳐 썼음을 알 수 있다.

14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은 언어 공동체이고,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작문 관습을 공유한다. 또한 논증하는 글은 작문 관습에 따라 ‘서론 - 본론 - 결론’으로 구성된다.

1. 시야를 넓히는 말과 글

본책 206~209쪽

(01) 인공지능을 보는 다양한 관점

① 인공지능 ② 논설문 ③ 재구성 ④ 타당성 ⑤ 관점

01 ③ 02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사람과 같이 복잡한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 03 ② 04 ④ 05 ⑤ 06 ⑤ 07 ④ 08 인간이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이유와 자율성을 잃어버렸을 때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다. 09 ③ 10 ⑤ 11 ③

01 이 자료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오늘날 인간처럼 감정을 인식하고 문학이나 음악 작품을 만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오늘날의 인공지능 기술이 복잡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02 **시술형** (가)에서는 인공지능을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사람과 같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든 ‘존 매카시’는 인공지능을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이라고 정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에서 인공지능의 정의 두 가지를 찾아 썼다.	☐

03 이 자료의 (나)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 양상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은 초기에는 인간이 하는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데 그쳤지만, 이후 상품 추천이나 의료 진단 등 복잡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까지 발전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자료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노동의 대체를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제한적인 위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4 주제 통합적 읽기는 하나의 화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작성된 글과 자료를 읽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05 (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겪는 ‘나’의 불안과 혼란을 그리고 있으며, (나)는 기계에 의존하는 대가로 인간의 자율성이 상실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가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인 ‘그것’이 ‘나’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그 과정에서 ‘나’가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② (나)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인 ‘러셀’ 교수가 소설을 통해 이끌어 낸 교훈을 소개하며, 기계에 의존하는 대가로 인간이 자율성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③ (가)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 로봇에게 느끼는 주인공의 심경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주제가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논설문이므로, (가)가 (나)와 달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물의 심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나)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숙고하고 판단해서 행사하는 결정권의 필요성과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도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성찰적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으나, (가)가 소설로 이야기를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나)가 (가)와 달리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6 ⑤는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자율성 문제와 거리가 멀고,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담은 것이기에 부적절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는 ‘나’가 인공지능 로봇인 ‘그것’ 때문에 겪는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②, ③ (나)는 기계에 의존하는 대가로 인간이 자율성을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인간이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④ (가)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추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그것’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아보고 싶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다.

07 ‘나’가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해서 “오늘 좀 이상하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것은 회사에서 그동안 완벽히 업무를 수행해 온 ‘그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열흘 만에 복귀한 ‘나’의 결과물을 본 ‘홍’의 얼굴이 굳어지며, 수정 전보다 더 안 좋다고 한 말과, ‘나’가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뻔하다고 하며,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을 것이라 추측한 것을 통해 ‘그것’이 ‘나’에 비해 회사 일을 잘 해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 웬일이야?”라는 ‘구’의 말을 통해 ‘그것’이 ‘나’ 대신 일하는 동안 ‘홍’을 만족시켰음을 알 수 있다.

- ③ “모든 게 막막했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라는 점이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나’가 회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⑤ 동료들이 자신을 피하고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고 다른 몇 사람도 감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며 ‘나’가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08 **새술형** <보기>에서 소설 「기계는 멈춘다」는 사람들이 기계에만 의존하여 결국 멸망을 맞는다는 내용으로 끝맺는다고 하였다. (나)에서 ‘러셀’ 교수 또한 학습한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며 문명을 이룬 인류가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경우를 경계하고, 기계에 의존하는 대가로 인간은 자율성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소설 「기계는 멈춘다」를 통해 인간이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이유와 자율성을 잃어버렸을 때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빈칸에 들어갈 말로 학습의 필요성과 자율성을 잃었을 때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
‘~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문장을 끝맺음해서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9 ㉠ ‘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우리가 문명을 경영하는 일을 기계에 넘겨주면서 스스로 경영하는 능력을 잃어 간다는 것과 다음 세대는 그런 능력을 배울 동기마저 잃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인공 지능 시스템이 좋은 뜻으로 쓰인다 해도, 인간이 자율성을 상실한다면 최선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철학적 사고 능력을 ‘신적인 것’이라 부르며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과 ㉡은 모두 인간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10 주제 통합적 읽기는 하나의 화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형식의 글과 자료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며 읽는 것이다. 주제 통합적 읽기를 수행할 때에는 읽기 목적을 정하여 글이나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또 정보 간에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글이나 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하며, 자료의 드러난 관점을 편견 없이 평가해야 한다.

11 주제 통합적 읽기는 하나의 화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작성된 글과 자료를 읽는 것으로, 이를 통해 폭넓은 시각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하나의 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주제 통합적 읽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02 생각을 나누는 독서와 발표

① 인용 ② 통합 ③ 청중 ④ 발표 전략

01 ① 02 ② 03 ⑤ 04 ③ 05 ⑤

01 (마)에서 필자는 공감력의 증진이 폭력이 감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주장을 소개하며 확장된 공감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공감의 과잉이 폭력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필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바)에서 인간의 공감력은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힐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외부 집단까지 포용하는 인지적 공감은 문명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였다.

④ (가)에서 필자는 오늘날 갈등과 편 가르기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집단에 대한 과잉 공감 때문이라고 하였다.

⑤ (사)에서 필자는 공감의 구심력과 원심력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어느 쪽이 강화되느냐에 따라 우리 문명은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02 (바)에서 필자는 ‘인지적 공감’은 공감의 원심력, ‘정서적 공감’은 공감의 구심력으로 부르려고 한다고 하였다.

03 <보기>는 사회적 독서 활동에 해당한다. 사회적 독서 활동은 다른 사람들과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개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사회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독서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다른 이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참고할 수 있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이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독서 활동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다.

04 발표 환경을 점검하는 일은 예상 청중을 분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발표를 할 때에 매체를 활용할 예정이라면 발표 환경을 미리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예상 청중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아니다.

05 발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청중을 고려하는 기본적인 예의이므로, 발표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청중을 고려한 발표라고 할 수 없다.

2. 우리 삶을 비추는 한국 문학

본책 212~215쪽

(01) 청산별곡 / 십년을 경영후여

① 고려 가요 ② 강산 ③ 초려 삼간 ④ 유랑민

01 ⑤ 02 ② 03 이 시가는 '청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1연~4연과 5연~8연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04 ③ 05 ⑤ 06 ④ 07 ④ 08 ④ 09 ③ 10 ③ 11 화자가 그리워하는(사랑하는) 대상이다. 12 ④ 13 ③ 14 ① 15 ⑤

01 이 시가에서 '청산'과 '바다'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가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는 도피의 공간이자 이상향을 상징하며, 이는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02 이 시가의 갈래는 고려 가요이다. 고려 가요는 고려 시대를 살았던 평민들이 주로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 평민들의 생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03 **시술형** 이 시가에서 '청산'과 '바다'는 화자가 현실의 시름을 잊기 위해 선택한 이상향이자 안식처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청산'을 중심으로 한 1연~4연, '바다'를 중심으로 한 5연~8연이 상호 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때 5연과 6연의 위치는 서로 바꿔 이해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청산'과 '바다'라는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이 시가의 대칭적 구조에 대해 썼다.	☐

04 고려 가요의 후렴구는 내용과 관련 없이 악절을 맞추기 위한 여음으로 고려 가요의 형식적 특성을 드러낸다. 'ㄴ', 'ㅇ' 음을 통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며, 특정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노래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이 후렴구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다.

05 8연의 '강수(술)'는 화자가 현실의 비애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보여 주는 소재이다. 따라서 화자를 불우한 지식인으로 생각하면 '강수(술)'는 그러한 현실적 불우함을 잊기 위해 선택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를 농민이었던 유랑민으로 생각하면 3연의 '가던 새'는 속세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가던 농토(갈던 밭)로 해석할 수 있다.

② 화자를 유랑민으로 생각하면 3연의 '가던 새'는 '갈던 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물 아래 가던 새'를 보는 행위는 떠나온 삶의 터전에 미련이 남아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4연의 '바므란(밤)'은 화자가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다. 화자를 실연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바므란(밤)'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로 혼자 지내기 때문에 고독감이 극대화된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④ 5연의 '돌'은 화자에게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 고통을 주는 상징물이다. 화자를 불우한 지식인으로 생각하면 '돌'은 화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할 수 있다.

06 ㉠ '돌'은 누군가 던진 것으로, 화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발생한 시련의 매개체이다. 화자의 의지에 의해 발생한 내적 비애의 매개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 '새'는 울고 있는 존재로, 화자가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 '나'는 이 작품의 화자이며, '시름'이 많은 삶에 울고 있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 '오리도 가리도 업슨' 시간은 '밤'이다. 화자는 낮은 그럭저럭 지내왔지만 혼자 있는 밤은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고 있다. 밤은 화자가 낮에 비해 고독감을 더 느끼는 시간이며, 그 이유는 혼자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⑤ ㉤ '의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에서 화자는 미워할 사람이나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냥 울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화자가 외부에서 발생한 비애의 원인에 대해 운명적으로 체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가), (나)는 평시조, (다)는 사설시조이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정형적 형식에서 벗어나 중장이 길어진 형태로 나타나고, 3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중장이 확장되었으며 4음보의 정형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4음보의 정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가)의 화자에게 자연인 '달'과 '청풍', '강산'은 집의 공간과 그 주변에 함께 두고 즐기고 싶은 풍류의 대상이고, (다)의 화자에게 자연은 도끼를 메고 가 나무를 하는 노동과 생활의 공간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가)의 화자는 자연을 풍류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다)의 화자는 자연을 노동과 생활의 공간으로 대상으로 보고 있다.

③ (가)의 화자에게 자연은 풍류의 대상이므로 이상적 공간일 수 있으나, (다)의 화자에게 자연은 생활 공간으로 도피의 공간이 아니다.

⑤ (가)의 화자가 자연을 속세와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여긴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다)의 화자에게 자연은 삶의 공간이므로 속세와 대비되는 곳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없다.

09 (가)에서는 자연과 하나가 된 삶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 의식을 보여 주는 한자 성어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다.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자연과 화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① ‘감탄고토(甘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모가 있다는 뜻으로, 남의 하찮은 말이나 행동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괄목상대(刮目相對)’는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높을 이르는 말이다.

⑤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본다는 말이다.

10 ㉠ ‘서리서리’는 국수, 새끼, 실 따위를 형클어지지 아니하도록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모양을 이르는 부사로, 의성어가 아니라 의태어이다.

11 **새술형** (나)의 종장에 쓰인 ‘어론 남’은 화자가 혼자 있는 밤 시간을 보냈다가 나중에 그 시간을 펴서 함께 더 오래 있고 싶은 대상이다. 즉, 화자가 그리워하는(사랑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어론 남’을 화자가 그리워하는(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썼다.	☐

12 (다)에서는 농부의 하루 일과를 사실적으로 제시하며, 바쁜 농촌 생활 속에서도 여유를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의 화자에게 자연은 생활의 터전이므로 화자가 가난한 가운데 도를 즐기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3 작가가 서술자를 설정하여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서사 갈래 중 소설의 특징이다. 수필은 서술자가 작가이며, 작가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하는 갈래이다.

14 작가는 이제부터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며,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15 이 글에서 나무는 변함없이 한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며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또한

누군가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 글의 작가는 참나무와 자신을 비교하며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흔들렸고, 상처를 받게 되면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으며,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자신을 반성한다. 그리고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본책 216~219쪽

02 속미인곡 / 진달래꽃

❶ 대화 ❷ 질문 ❸ 축복 ❹ 장애물 ❺ 분신

01 ③ 02 ③ 03 ④ 04 임의 옷을 적시며 임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05 ③ 06 ② 07 ④ 08 ① 09 ④ 10 ⑤ 11 ③ 12 사랑하던 상대와의 이별은 순간적이고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감정을 잊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 13 ④

01 이 작품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시상의 전개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지도 않다.

02 (나)에서 ‘묵음의 머근 말슴 슬크장 슬자 하니 / 눈물이 바라나니 말슴인들 어이 흐며 / 정(情)을 못다 흐야 목이조차 메여 하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임에게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뉘 네와 고티 세시는가’라고 말하며 임께서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② (가)에서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 이리야 교티야 어저러이 후듯썸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임의 사랑을 받은 뒤 아양과 교태를 부렸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잡거니 밀거니 눕픈 뉘히 올라가니, ‘출하리 물궤가 비길히나 보라 하니’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임을 보고 싶은 마음에 산과 강가를 돌아다녔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빠혀시니 / 하눌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후라 / 설워 플터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임과 헤어지게 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운명론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 측근가마는'은 '내 모습 이 거동이 임이 사랑함직 한가마는'의 의미이므로, 이를 다음 행인 '엇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기에)'와 함께 연결하여 볼 때 이는 정철이 선조에게 신뢰 받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4 **새술형** 잠깐 비추다 마는 '낙월'에 비해 '구준비(긋은 비)'는 오래 내리면서 임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구준비(긋은 비)'는 임의 옷을 적시며 임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구준비'의 의미로 임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라고 썼다.	☐

05 ㉠은 작품 속 화자 중 '여인 2'이다. '여인 2'는 임과 헤어진 대상으로서 하소연을 하며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중심 화자로,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 상대방에게 질문이나 위로를 하며 구체적인 사연을 들려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화자는 '여인 1'이다.

②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은 '여인 1'이 하고 있다.

④ 작품을 전개하고 종결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보조적 위치의 화자는 '여인 1'이다.

⑤ '여인 2'가 임과 헤어진 대상인 것은 맞지만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06 ⑥에 쓰인 '뵈 비'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입시킨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이 시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이별의 상황과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화를 활용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은 가정적 표현이다. 즉,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1연과 4연을 수미상관식으로 배치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인고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③ 이 작품은 3음보 7·5조의 율격으로 음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⑤ '우리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이 느껴지도록 하고 있다.

08 <보기>의 화자는 강을 건너지 말라고 임을 말렸지만 결국 임이 물에 빠져 죽자 '가신 임을 어이할꼬'라며 체념적 자세를 보인다. 이 시에서도 화자는 임이 떠나신다면 고이 보내드리겠다는 체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이별의 슬픔을 인내하는 것은 이 시의 화자만 보이는 태도이다.

③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는 태도는 이 시와 <보기>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별을 인고의 의지로 승화하는 것은 이 시의 화자만 보이는 태도이다.

⑤ 이별한 임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 태도는 이 시와 <보기>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09 ㉡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는 자신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밟고 가라는 의미로, 화자의 자기희생적 태도가 나타난다.

10 (가)의 화자는 떨어져 있는 당신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이별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잊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슬픔을 견디며 '침묵'과 '외로움' 속에서 견디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나)는 희생적 태도로 슬픔을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의 화자는 당신과의 만남을 바라고 있으나, (나)의 화자는 이별한 사람을 잊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을 뿐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가)는 이별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이별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으나, 이별의 상황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는 '겨울'과 같은 외적인 시련에 맞선 기다림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나)는 화자의 마음속에서 임을 잊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11 '어느 겨울인들 /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를 영탄적 표현 또는 설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기다림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2 **새술형** (나)에서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과 사람의 사랑과 이별을 대응시켜 표현하고 있다. '꽃이 / 피는 건 힘들어도'는 사랑을 이루는 것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고, '꽃이 지는 건 / 쉬워도'는 사랑이나 감정의 끝이 일시적이고 빠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잊는 건 한참이더군'은 꽃이 지는 순간은 짧고 덧없지만, 그 후의 감정적인 변화나 상처는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㉔는 감정의 변화나 상실은 순간적이지만, 그로 인한 기억이나 잊기 어려운 감정은 더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꽃(사랑)이 지는(끝나는) 순간은 짧고 덧없지만, 그 후의 감정적인 변화나 상처는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도록 썼다.	☐

- 13 ㉔ ‘그대’는 화자와 사랑을 했지만, 지금은 헤어진 상대이다. 화자의 잘못에 의해 헤어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본책 220~223쪽

03 춘향전

① 판소리계 ② 해학적 ③ 운문체 ④ 편집자적 ⑤ 평등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④ 06 ① 07 ⑤ 08 ‘춘향’은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충암절벽 높은 바위’에 빗대고 외부의 탄압을 ‘바람’에 빗대어, 외부의 탄압에도 지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9 ④ 10 ⑤ 11 ②

- 01 「춘향전」은 조선 후기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창작된 판소리계 소설로, 많은 이본(異本)으로 창작돼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영웅 서사의 일대기적 구조를 바탕으로 허구적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영웅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 02 ‘가림주구(苛劄誅求)’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백성들에게 포악한 정치를 일삼는 지배층을 비판할 수 있는 말로, (가)~(마)에 제시된 ‘본관 사또’의 행태나, ‘몽룡’이 지은 한시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 03 (마)에 제시된 내용으로 보아 ‘어사또’의 정체를 짐작하고 대비를 서두르는 ‘운봉 영장’과 달리 ‘본관 사또’는 그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 04 (마)에서 ‘본관 사또’가 어사출두를 눈치채지 못하고 술주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본관 사또’의 어리석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본관 사또’가 그동안 저지른 악행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5 판소리계 소설의 전신인 판소리는 양반과 평민들이 모두 향유하던 대중적 종합 예술이다. 따라서 판소리에는 양반들이 사용하던 한자어와 평민들이 사용하던 비속어 등이 함께 나

타나며, 이와 같은 특징은 판소리계 소설에도 반영되어 있다. ㉔는 양반층의 향유하던 한시로, 양반들의 언어가 반영되어 있다.

| 오답 풀이 | ① 생일잔치 준비 장면을 열거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판소리계 소설은 원래 판소리로 불려지던 사설을 소설로 정착시킨 것으로, 소설 속에 판소리 사설체의 문체가 자주 나타난다. ③ 마음으로 생각하는 뜻과는 반대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⑤ 판소리 사설과 마찬가지로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4·4조의 운율감이 느껴지는 글자 수 배열이 자주 나타난다.

- 06 ‘몽룡’이 걸인 차림으로 나타난 것은 ‘몽룡’이 몰락한 양반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암행어사로서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07 (나)에 어려운 상황에서 신념을 지키는 민중들의 건강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08 **서술형** ‘충암절벽 높은 바위’는 ‘바람’에 무너지지 않는 사물이다. ‘춘향’은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충암절벽 높은 바위’에 빗대고 외부의 탄압을 ‘바람’에 빗대어, 외부의 탄압에도 지조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을(를) ~에 빗대어 ~을(를) 드러내고 있다.’의 형태로 원관념과 비유하는 대상이 드러나도록 썼다.	☐

- 09 ㉔에서 ‘이화춘풍’은 ‘봄바람’과 ‘이몽룡’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으로, ‘춘향’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 10 「유자소전」은 전통 문학 양식인 ‘전’의 형식을 빌려 인물의 생애를 서술하고 평가하며, 독자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유자(유재필)’는 평범한 인물이다. 평범한 인물의 삶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작품이다.
- 11 ‘유자’는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묻는 ‘총수’의 질문에 엉뚱한 말로 능청스럽게 대답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유자’는 ‘뽕어낸벤또’나 ‘차에코풀고싶어’와 같은 언어유희적 표현을 통해 ‘총수’의 허영심을 비판하고 있다. ③ ‘총수’가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비싼 비단잉어를 기르는 것은 서민들의 삶과 괴리되는 사치스러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총수’는 비단잉어가 죽은 것에 대해 마치 ‘유자’가 혐의자라도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들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⑤ ‘나’는 비단잉어의 비싼 가격을 자신의 월급과 비교하며 놀라고 있다.

3. 생각하고 표현하는 우리

본책 224~225쪽

(1) 영화 「업(UP)」 비평문

① 비평문 ② 근거 ③ 음악 ④ 풍선

01 ② 02 ② 03 각진 외모를 강조한 ‘칼’과 둥그스름한 외모의 ‘러셀’을 대비시킴으로써 흥미를 배가한다. 04 ② 05 ③

01 이 글은 비평문으로 필자가 영화 「업(UP)」의 다양한 요소(캐릭터 디자인, 배경 음악 등)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02 이 글의 (라)에서는 영화의 초반부의 ‘칼’의 인생을 압축한 장면과 후반부의 ‘칼’이 ‘엘리’가 쓴 문장을 읽는 장면을 인상적인 대목으로 언급했다. 특히 필자는 초반 장면을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한 잔상을 남기는 명장면’이라고 언급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영화 「업」에서 사용된 서정적이면서 내향적인 음악이 극에 절묘하게 어울린다고 했다.

③, ⑤ (가)에서 캐릭터 디자인은 삼등신에 가깝게 머리를 크게 그림으로써 만화적이고 정감 어린 인물의 느낌을 강조한 반면에 배경은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력으로 생생히 살려 냈다고 했다.

④ (마)에서 자신의 경험과 연관된 가치로 영화 「업」 시사회에서 받은 풍선을 꽃병에 꽂자,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다고 언급했다.

03 **시술형** (가)에서는 “각진 외모를 강조한 ‘칼’과 둥그스름한 외모의 ‘러셀’을 대비시킴으로써 흥미를 배가한다.”라고 하며 과학한 노인과 호기심 많은 소년이라는 캐릭터의 특성을 외모 대비를 통해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평가 기준	확인 ☒
‘칼’과 ‘러셀’의 외모 대비를 통해 흥미를 배가한다고 썼다.	☐

04 <보기>의 독자는 필자의 해석에 대해 공감하며 영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매체 비평 자료를 수용할 때는 비평한 사람이 공정한 관점에서 매체 자료를 비평하고 있는지, 비평한 내용의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 매체 비평 자료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매체 비평 자료를 수용할 때는 필자의 의도가 공정한지 파악해야 하지만 <보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필자의 관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드러나지만 제작 의도와 비교 분석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에서 필자는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관점을 소개하고 있지 않으며 <보기>에도 다른 관점을 소개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⑤ 필자가 인상적으로 표현한 부분과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나타나 있는 것은 맞지만, 필자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매체 자료에는 매체 자료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 관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수용자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제작자의 관점에 맞추어 매체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매체 자료를 평가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비평할 매체 자료를 선정하고 감상하는 것이 매체 자료 비평의 시작이다.

②, ④ 매체 자료를 분석할 때는 표현 방법, 관점 및 의도, 가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비평할 분석 영역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질문을 만들어 분석한다.

⑤ 매체 비평 자료는 매체 비평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매체 유형을 선정하여 제작한다.

본책 226~227쪽

(2) 복합양식으로 짜인 글과 자료

① 관점 ② 출처 ③ 문화 ④ 기후

01 ③ 02 ① 03 ③ 04 ② 05 노인과 아기 사진을 대비하여 보여 줌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현세대가 더 자주 폭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01 필자는 (가)에서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이 낮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 줌으로써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나)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기부 참여율이 낮은 현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대상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대상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드러나지만, 상반된 견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⑤ ‘사람들의 기부 참여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02 (가)에서 기부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통계청의 사회 조사 결과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담은 그래프 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통계청의 사회 조사 항목이 무엇인지 정리한 표는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 ② (가)에서 세계 기부 지수 순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④, ⑤ (나)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름으로 팬들이 함께 기부하는 경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기부와 관련된 사진을 올려서 인증을 하면 기부가 되는 방식,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고 걸으면 걸음 수만큼 기부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퍼네이션'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3 필자는 (가)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라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나)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사람들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04 (가)~(라)의 제작자는 폭염과 같은 기후 위기를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자료의 제작자는 특정 세대를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③, ④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⑤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폭염의 빈도는 8.6배로 늘어난다고 하여 지구의 온도와 폭염의 빈도에 상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05 **새술형** (나)와 (다)에서는 노인을 이전 세대로, 아기를 현세대로 나타내어 두 사진을 대비하여 보여 줌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현세대가 더 자주 폭염을 겪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노인과 아기 사진을 대비하여 보여 준 것에 드러나는 제작자의 의도를 바르게 썼다.	☐

본책 228~229쪽

03 함께 쓰는 보고서

1 보고서 **2** 목차 **3** 복합양식 **4** 역할

01 ⑤ **02** ④ **03** <보기>는 출처가 명확하여 신뢰할 수 있고, '청소년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보고서의 주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04** ④ **05** ④ **06** ④

01 (가)의 '민재'의 말을 통해 공동 보고서의 주제는 알 수 있지만, (가)의 대화에서는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할 매체는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민재'의 말을 통해 보고서의 주제는 '청소년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② '예나'의 말을 통해 예상 독자는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③ '은호'와 '지수'의 대화를 통해 모둠의 관심 분야는 '청소년의 생활과 운동 실태'임을 알 수 있다.

④ '예나'의 말을 통해 조사 대상과 예상 독자 등 공동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 조사 계획을 알 수 있다.

02 청소년들의 운동 참여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이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오답 풀이 | ① 'I. 머리말 - 1. 연구 동기'에서 제시할 수 있다.

② 'II. 본문 - 3. 연구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

③ 'II. 본문 - 4. 연구 내용과 결과'에서 제시할 수 있다.

⑤ 'III. 맺음말 - 5. 연구 결과 요약'에서 제시할 수 있다.

03 **새술형** 작성할 보고서의 주제는 '청소년의 운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이므로, 청소년의 운동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인 <보기>는 보고서에 활용하기 적절하다. 또, 케이비에스(KBS) 뉴스 누리집이라는 출처가 명확하기에 신뢰성을 충족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의 출처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평가했다.	☐
이 공동 보고서의 주제를 고려하여 적절성을 평가했다.	☐

04 공동 보고서 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보고서의 형식과 목차에 맞게 조직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주제 정하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 구성원들과 상의하여 보고서 주제와 작성 계획을 세운다.

② '목차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모둠에서 정한 주제와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목차를 구성한다.

③ '자료 수집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보고서 주제와 작성 계획에 맞는 자료를 찾고,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해야 한다.

⑤ '내용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보고서의 형식과 목차를 고려하고 복합양식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05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작성 등 모든 절차와 과정에 모둠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공동 보고서를 쓸 때는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

② 공동 보고서를 쓸 때는 쓰기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③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쓰기 경험과 지식을 모둠 구성원과 공유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⑤ 공동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모둠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는 대화를 통해 협력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06 공동 보고서를 쓸 때는 복합양식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보고서를 고쳐 쓸 때도 이를 점검해야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4. 살아 숨 쉬는 국어와 매체

본책 230~231쪽

(01) 변화하는 국어와 매체

① 자음 ② 성조 ③ 에 ④ 방점 ⑤ 수용자

01 ③ 02 ③ 03 ④ 04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 05 ①
06 ② 07 ④

01 (가)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중세 국어에는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아)’ 등과 같이 현대 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음운들이 존재하였다.

② 중세 국어에서 주격 조사는 ‘이’가 쓰였으나 환경에 따라 ‘이’, ‘!’로 실현되고 생략되기도 하였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세로쓰기를 했으며, 현대 국어와 같은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다.

⑤ 훈민정음이 창제된 당시는 받침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쓰는 8종성법을 원칙으로 지켰다.

참고 자료

모음 조화

중세 국어는 양성 모음(‘ㅏ, ㅑ’)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ㅓ, ㅕ’)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에 비해 잘 지켜졌다.

쁘들 부루매

02 ‘기·픈’, ‘부루·매’, ‘말썸·미’, ‘쁘르·미니·라’는 모두 앞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에 옮겨 쓰는 이어 적기가 나타난다.

참고 자료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

이어 적기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것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 예) 사람+이 → 사라미, 것+은 → 거슨
끊어 적기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지 않고 앞 음절의 형태소를 밝혀 적는 방식 예) 사람+이 → 사람이, 것+은 → 것은

03 ‘부·메’에는 현대 국어와 형태와 기능이 동일한 부사격 조사 ‘에’가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② ‘부·메’는 ‘쁘- + -음 + 에’의 형태로 명사형 전성 어미로 ‘-음’이 사용되었다. 명사형 어미 ‘-음/-음’은 모음 조화에 따라 앞에 나오는 어간이 양성 모음이면 ‘-음’, 음성 모음이면

면 ‘-음’이 쓰였는데, 이를 통해 ‘부·메’는 어간에 어미를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진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부’에 초성에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 ‘ㅃ’이 사용되었다.

⑤ ‘부·메’에는 소리의 높낮이로써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성조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었다. 방점 표기는 평성(낮은 소리)은 점을 찍지 않고, 거성(높은 소리)은 점 한 개, 상성(낮다가 높아지는 소리)은 점 두 개를 찍는다.

04 **새소형** 중세 국어에서 ‘여름’은 현대 국어의 ‘열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 ‘하느니’의 기본형 ‘하다’는 현대 국어와 달리 ‘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은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로 풀이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현대어 풀이를 올바르게 썼다.	☐

05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가 쓰였고, 주격 조사 ‘이’는 환경에 따라 ‘이’, ‘!’로 실현되고 생략되기도 하였다. ㉠의 ‘불·휘’에서는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 오답 풀이 | ② ‘부·래’는 양성 모음끼리 어울려 썼으며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③ ‘전·추·로’를 현대 국어로 풀이하면 ‘까닭으로’라는 뜻이다.

④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는 ‘가엿게, 불쌍하게’라는 뜻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로 의미가 바뀌었다.

⑤ ‘수·비’에는 현대 국어에 없는 음운인 ‘▽(순경음 비읍)’가 사용되었다.

06 현대 사회는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만큼 정보의 파급력이 크다.

| 오답 풀이 | ①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은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와 생각을 전달한다.

③ 현대 사회는 이전에 비해 매체를 제작하는 방법이 다양화되었으며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도 이전에 비해 많아졌다.

④ 오늘날에는 정보를 전달할 때 매체를 통해 다양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정보가 전달되어 정보의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현대 사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매체는 공장 사라지지 않고 저장되어 다른 시·공간에 옮기기 용이하다.

07 신조어나 줄임말은 특정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용할 경우 다른 세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조어나 줄임말의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 한글 맞춤법과 국어생활

❶ 소리 ❷ 어법 ❸ 된소리 ❹ 조사 ❺ 의사소통

01 ① 02 ② 03 '해님'은 어근 '해'에 접미사 '-님'이 붙은 파생어이다. 즉, 합성어가 아니므로 '제30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04 ⑤ 05 ⑤ 06 ③ 07 ⑤ 08 ③

01 '법석'의 발음은 [법썩]으로, 'ㅅ' 받침 뒤에서 'ㅅ'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 '제5항' '다만'의 영향을 받아 '법썩'이 아닌 '법석'으로 적어야 한다.

02 '묻+-히+-다'는 'ㄷ'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히-'가 온 경우이므로, 발음상 [무치다]와 같이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제6항'에 따라 그 원형을 밝혀 '묻히다'로 적는 것이 타당하다.

| 오답 풀이 | ① 본말 '두었다'를 준말 '뒀다'라고도 적을 수 있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35항'에 따른 것이다.

③ '늑어[늑거]'를 '늑거'라고 적지 않는 이유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함'에 따라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④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1]에서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는 본음대로 적는다고 하였고, '소녀'에서 '녀'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⑤ '거꾸로'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제5항'을 고려하여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03 **새소형** 사이시옷과 관련된 조항은 합성어일 때 적용된다. '해님'은 어근 '해'에 접미사 '-님'이 붙은 파생어이기 때문에 합성어가 아니므로 합성어에 적용되는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평가 기준	확인 ☒
사이시옷 조항이 합성어일 때 적용됨을 썼다.	☐
'해님'이 파생어임을 썼다.	☐

➤ 참고 자료

사이시옷이 적용되는 경우

사이시옷은 '고유어+고유어'로 된 합성어 또는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두 글자로 된 한자어는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

04 '아는 것', '할 수', '떠난 지', '갔던 차'의 '것, 수, 지, 차'는 모두 의존 명사로, 한글 맞춤법 '제42항'을 적용하여 띄어 쓴다. 그러나 '열 자루'의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로, 한글 맞춤법 '제43항'을 적용하여 띄어 쓴다.

➤ 참고 자료

한글 맞춤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05 '일주일만에'에서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고등학교'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② '학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지만, 숫자와 어울려 쓰였으므로 붙여 쓸 수 있다.

③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④ '정도'는 '그만큼가량의 분량'을 의미하는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06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에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은 '공간(庫間)', '숫자(數字)', '차간(車間)', '횡수(回數)', '셋방(賃房)', '뒷간(退間)'이다.

07 '자마자'는 어미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하고, '우리'와 '고양이'도 각각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더이상'에서 '더'와 '이상'은 각각의 단어이므로 '더 이상'과 같이 띄어 쓴다.

② '틀렸는 지'에서 '-ㄴ지'는 하나의 어미이므로 '틀렸는지'와 같이 붙여 쓴다.

③ '한가지'에서 '한'과 '가지'는 각각의 단어이므로 '한 가지 소원만'과 같이 띄어 쓴다.

④ '아래집'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아랫집'과 같이 적어야 한다.

08 '아이'는 단일어로,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예시가 아니다.

➤ 참고 자료

단일어와 복합어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복합어	둘 이상의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

5.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본책 234~235쪽

(01) 함께하는 협상과 소통

① 수달 ② 여가 ③ 쟁점 ④ 공동체

01 ② 02 ③ 03 산책로를 연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가 제안을 한 것이다. 04 ③ 05 ③

01 이와 같은 답화는 협상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달라 발생한 갈등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2 '미래시 공무원'은 '희망구 주민 대표'가 수달을 희망구의 상징으로 홍보하겠다고 하자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해 협력하겠다고 한 것이지 이 일을 다른 지역에 넘긴 것이 아니며, 수달을 홍보하는 것은 희망구 주민 측의 어려움도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희망구 주민 대표'는 오랜 바람이었던 산책로 연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② '희망구 주민 대표'는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과 수달을 희망구의 상징으로 홍보하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미래시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미래시 공무원'과 '희망구 주민 대표' 모두 성공적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미래시 공무원'은 '희망구 주민 대표'가 생태 복합 시설을 건설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자, 협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03 **새싹형** 사랑천 산책로 연장이 무효가 되면서 희망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희망구 주민 대표'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희망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산책로를 연장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밝혀 썼다.	☐
'~ 위해서 추가 제안을 한 것이다.' 형식의 문장으로 썼다.	☐

04 기존의 노후한 산책로와 위험 방지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미래시의 역할이다.

05 <보기>에서 '소연'은 '철민'에게 감정을 앞세워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였다. 그러므로 '소연'에게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달라고 조언할 수 있다.

(02) 논증하는 글 쓰기

① 관습 ② 주장 ③ 근거 ④ 출처

01 ① 02 ③ 03 ② 04 ② 05 (나)의 서론에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01 (가)는 학생이 고려한 쓰기 맥락이다. (가)의 목적에서 이 글이 논증하는 글임을 확인할 수 있기에 독자들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학교 학생들의 연령대와 배경지식을 고려한다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하므로 적절한 생각이다.

③ 이 글의 주제는 청소년들이 금융 이해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이 많이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누리집에 글을 실어야겠다는 생각은 적절하다.

④ 논증하는 글에서 주장이 명확히 드러나게 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생각은 적절하다.

⑤ 학교 누리집에 올리는 글이니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겠다는 생각은 적절하다.

02 (나)의 본론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금융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에서 금융 이해력을 길렀을 때 부유해질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03 (나)에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없다.

| 오답 풀이 | ① 금융 생활을 성찰하고, 금융 지식을 익히고, 학교 안팎의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 점수, 금융 이해력을 기르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사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서민 금융 진흥원, 금융 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근거로 활용한 정보의 출처를 밝혀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서론에서 '금융 이해력'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 있다.

04 제시된 내용을 ㉠과 비교했을 때, 정보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출처를 추가하여 신뢰성을 높이며 쓰기 윤리를 지키고 있다.

05 **새싹형** <보기>는 (나)의 서론에 제시된 우리나라 청소년 금융 이해력 점수를 보여 주는 동영상 자료로, 이를 제시하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자료를 활용할 글의 구성 단계를 썼다.	☐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효과를 썼다.	☐